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평가 및 제11대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최종보고서
2022. 12.

제 출 문

서울시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평가 및 제11대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책 임 연 구 자 : 이 현 출 (건국대학교)

공 동 연 구 자 : 김 은 경 (국민대학교)

김 미 선 (건국대학교)

장 보 원 (건국대학교)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내용 및 범위	4
3. 응답자 특성	6
II.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7
1.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	9
2.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13
3.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17
4. 민생 현안 해결	21
5.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25
6.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29
7.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	33
8. 공정한 판단과 결정	36
9.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39
III.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위상 제고 방안	43
1.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	45
2.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	48
3.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	51
4. 의정정보 인지경로	54
5.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	57
6.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	60
IV.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감	63
1.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65
2.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	68
3.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70
4.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	73
5.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	76
V. 주요 결과 및 제언	79
1. 주요 결과 요약	81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	86

부록. 설문지

■ 표 목 차 ■

【 표 I-1 】 서울시민 인식조사 항목별 세부 내용	4
【 표 I-2 】 응답자 특성	6
【 표 II-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12
【 표 II-2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16
【 표 II-3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20
【 표 II-4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24
【 표 II-5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28
【 표 II-6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32
【 표 II-7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35
【 표 II-8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38
【 표 II-9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41
【 표 III-1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47
【 표 III-2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50
【 표 III-3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53
【 표 III-4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56
【 표 III-5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59
【 표 III-6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62
【 표 IV-1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67
【 표 IV-2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69
【 표 IV-3 】 서울시의회 기대감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72
【 표 IV-4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75
【 표 IV-5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78

■ 그림목차 ■

【 그림 Ⅱ-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전체 인식	9
【 그림 Ⅱ-2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	10
【 그림 Ⅱ-3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전체 인식	13
【 그림 Ⅱ-4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인식 변화	14
【 그림 Ⅱ-5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전체 인식	17
【 그림 Ⅱ-6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인식 변화	18
【 그림 Ⅱ-7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전체 인식	21
【 그림 Ⅱ-8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인식 변화	22
【 그림 Ⅱ-9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전체 인식	25
【 그림 Ⅱ-10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인식 변화	26
【 그림 Ⅱ-11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전체 인식	29
【 그림 Ⅱ-12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인식 변화	30
【 그림 Ⅱ-13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한 전체 인식	33
【 그림 Ⅱ-14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전체 인식	36
【 그림 Ⅱ-15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전체 인식	39
【 그림 Ⅲ-1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전체 인식	45
【 그림 Ⅲ-2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	46
【 그림 Ⅲ-3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48
【 그림 Ⅲ-4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49
【 그림 Ⅲ-5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51
【 그림 Ⅲ-6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52
【 그림 Ⅲ-7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전체 인식	54
【 그림 Ⅲ-8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인식 변화	55
【 그림 Ⅲ-9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57

■ 그림목차 ■

【 그림 Ⅲ-10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58
【 그림 Ⅲ-11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60
【 그림 Ⅲ-12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61
【 그림 Ⅳ-1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에 대한 전체 인식	65
【 그림 Ⅳ-2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에 대한 전체 인식	68
【 그림 Ⅳ-3 】 서울시의회 기대감에 대한 전체 인식	70
【 그림 Ⅳ-4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전체 인식	73
【 그림 Ⅳ-5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	74
【 그림 Ⅳ-6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에 대한 전체 인식	76
【 그림 Ⅳ-7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에 대한 인식 변화	77
【 그림 Ⅴ-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평가	81
【 그림 Ⅴ-2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인식 변화	82
【 그림 Ⅴ-3 】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2020~2021년)	87
【 그림 Ⅴ-4 】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청렴도 점수	88
【 그림 Ⅴ-5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88

PART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내용 및 범위
3.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의회의회는 서울시의 입법기관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임
- 2022년 6월 제11대 서울시의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서울시의의회를 운영해 나갈 목표와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조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제11대 서울시의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4년간 서울시의의회의 의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재까지 서울시의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서울시의의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의정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촉진하는 서울시의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함
- 제10대 서울시의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성과 진단과 서울시의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제11대 서울시의의회 의정활동 전반의 성과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향후 의정활동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의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

2. 조사 내용 및 범위

1) 조사 내용

■ 서울시민 인식조사

○ 조사내용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평가 및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식조사

【 표 I - 1 】 서울시민 인식조사 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I.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및 전반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적 평가 •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 민생 현안 해결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 • 공정한 판단과 결정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II.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위상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 추진 의정 활동 분야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
III. 의정활동 인지경로 및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정보 인지경로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
IV.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및 시의원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
V.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및 중점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

2) 조사 방법

■ 문헌 검토 및 현황자료 분석

- 국내·외 시민여론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유사 연구자료 등 관련 문헌 조사

■ 시민여론조사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지 조사
- 표본 수 : 642명
- 표본 설계 : 지역(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Quota Sampling)
- 표본 오차 : $\pm 4.38\%$ Point(95% 신뢰수준)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21일 ~ 2022년 11월 25일

3. 응답자 특성

- 총 642명의 서울특별시민이 인식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전문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함

【 표 I-2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642	100.0
권역	도심권	32	5.0
	동북권	193	30.1
	서북권	74	11.5
	서남권	201	31.3
	동남권	142	22.1
성별	남성	307	47.8
	여성	335	52.2
연령	18~29세	141	22.0
	30대	134	20.9
	40대	122	19.0
	50대	133	20.7
	60대 이상	112	17.4
학력	고졸 이하	94	14.6
	대졸(재학포함)	439	68.4
	대학원 이상	109	17.0
소득	200만원 이하	65	10.1
	201~400만원	219	34.1
	401~600만원	179	27.9
	601만원 이상	179	27.9
직업	자영업	39	6.1
	블루칼라	90	14.0
	화이트칼라	336	52.3
	주부	96	15.0
	학생	39	6.1
	무직/기타	42	6.5

PART

II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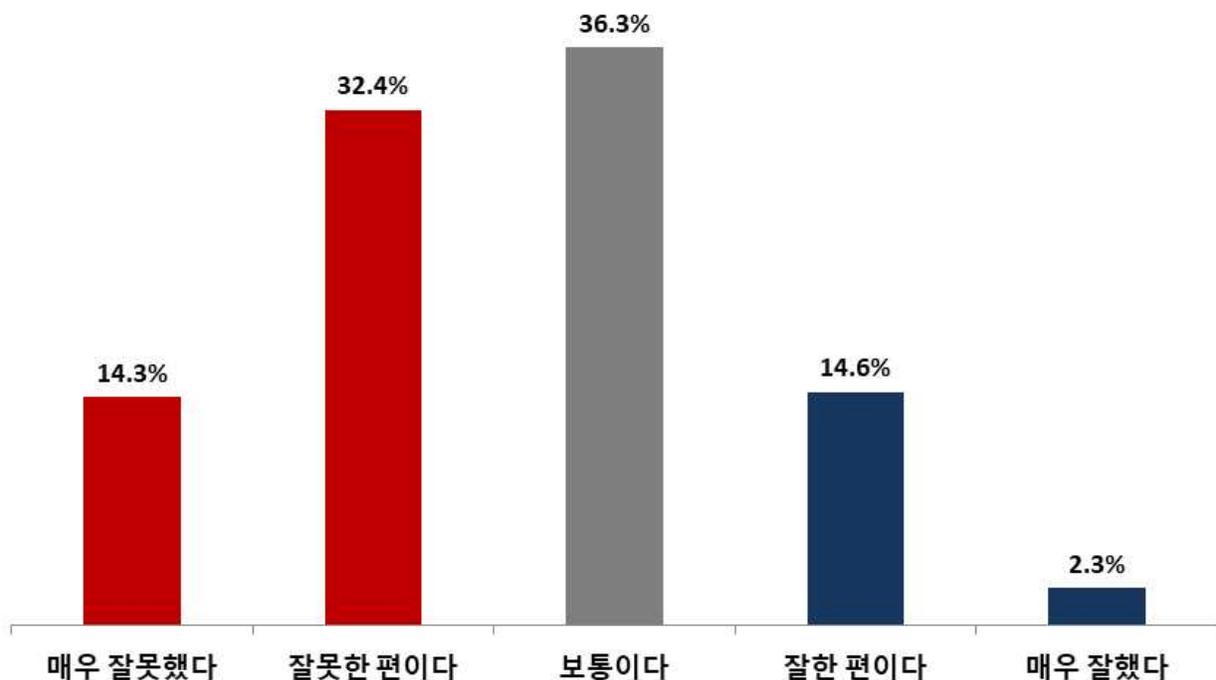
1.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
2.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3.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4. 민생 현안 해결
5.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6.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7.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
8. 공정한 판단과 결정
9.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1.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보통’ 응답이 233명(36.3%)인 가운데 ‘잘했다’는 긍정 응답이 109명(17.0%),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300명(46.7%)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3%)와 잘한 편이다(14.6%)에 비해 매우 잘못했다(14.3%)와 잘못된 편이다(32.4%)가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의 평가가 다소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58점으로 보통(3점)에 비해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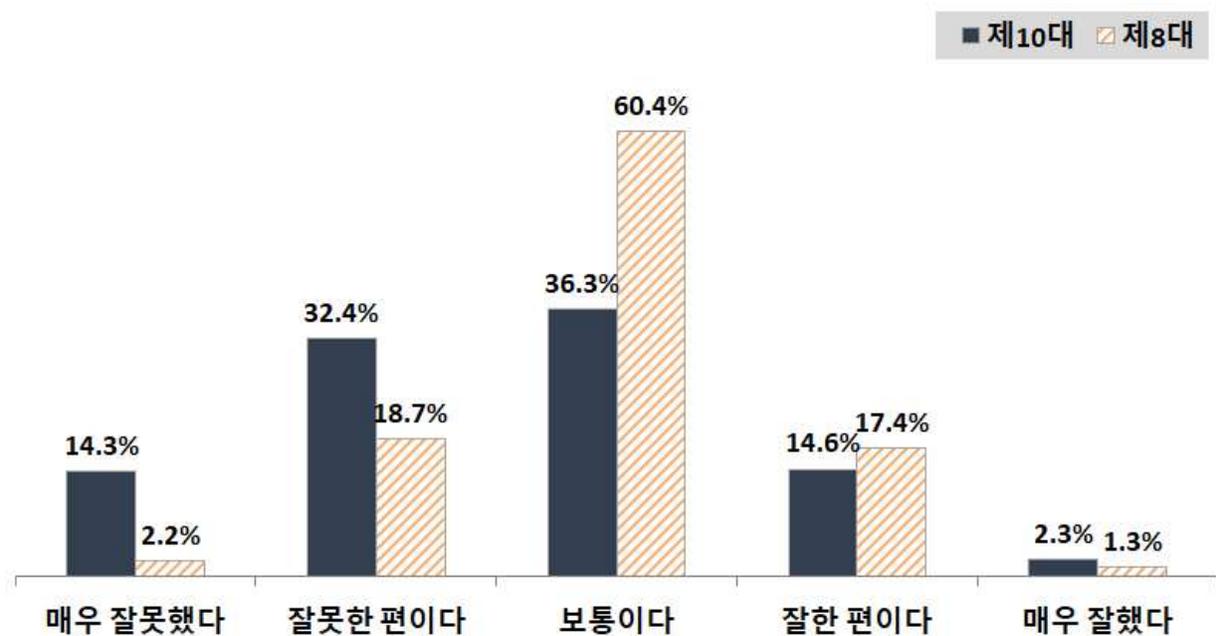
【 그림 II-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¹⁾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60.4%에서 36.3%로 감소한 반면 잘못된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는 각각 18.7%에서 32.4%로, 2.2%에서 14.3%로 크게 증가함

【 그림 II-2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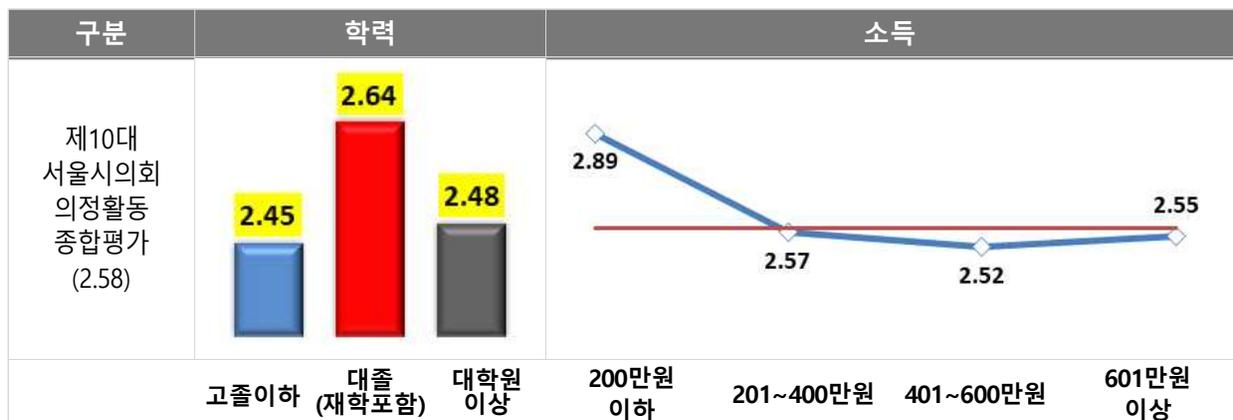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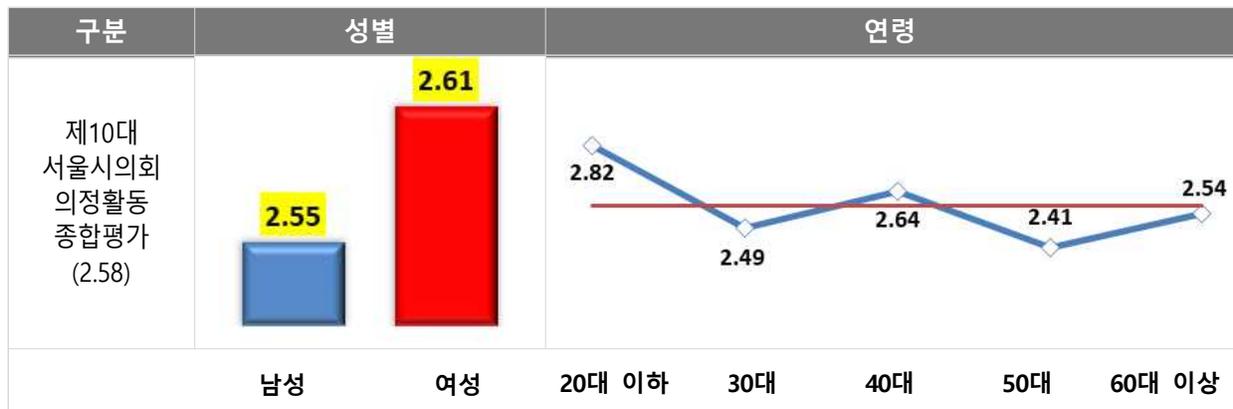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여성(2.61점)이 남성(2.55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2.82점)와 40대 응답자(2.64점)가 평균(2.58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2.6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졸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2.8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소득 집단들의 평가는 평균

1) 본 보고서의 서울시민 인식 변화는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평가 및 9대 의회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민 여론조사(2015)”와 비교를 기준으로 함

이하로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2.65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이 2.74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표 II-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전반 평가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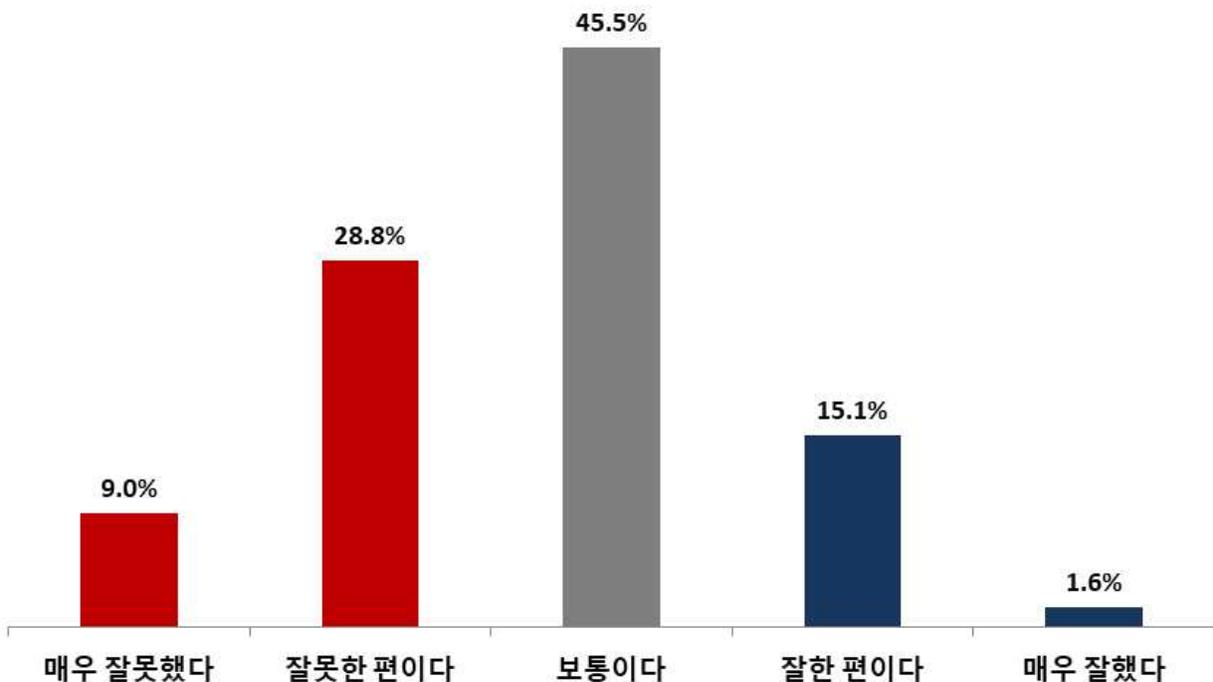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집단 답변	부정 집단 답변
전체		15 2.3%	94 14.6%	233 36.3%	208 32.4%	92 14.3%	642 100.0%	109 17.0%	300 46.7%
권역	도심권	0 0.0%	7 21.9%	10 31.3%	9 28.1%	6 18.8%	32 100.0%	7 21.9%	15 46.9%
	동북권	4 2.1%	21 10.9%	88 45.6%	55 28.5%	25 13.0%	193 100.0%	25 13.0%	80 41.5%
	서북권	0 0.0%	19 25.7%	19 25.7%	27 36.5%	9 12.2%	74 100.0%	19 25.7%	36 48.6%
	서남권	10 5.0%	29 14.4%	56 27.9%	71 35.3%	35 17.4%	201 100.0%	39 19.4%	106 52.7%
	동남권	1 0.7%	18 12.7%	60 42.3%	46 32.4%	17 12.0%	142 100.0%	19 13.4%	63 44.4%
성별	남성	9 2.9%	48 15.6%	109 35.5%	79 25.7%	62 20.2%	307 100.0%	57 18.6%	141 45.9%
	여성	6 1.8%	46 13.7%	124 37.0%	129 38.5%	30 9.0%	335 100.0%	52 15.5%	159 47.5%
연령	20대 이하	5 3.5%	24 17.0%	62 44.0%	41 29.1%	9 6.4%	141 100.0%	29 20.6%	50 35.5%
	30대	2 1.5%	19 14.2%	47 35.1%	40 29.9%	26 19.4%	134 100.0%	21 15.7%	66 49.3%
	40대	6 4.9%	15 12.3%	47 38.5%	37 30.3%	17 13.9%	122 100.0%	21 17.2%	54 44.3%
	50대	1 0.8%	18 13.5%	39 29.3%	51 38.3%	24 18.0%	133 100.0%	19 14.3%	75 56.4%
	60대 이상	1 0.9%	18 16.1%	38 33.9%	39 34.8%	16 14.3%	112 100.0%	19 17.0%	55 49.1%
학력	고졸 이하	1 1.1%	12 12.8%	33 35.1%	30 31.9%	18 19.1%	94 100.0%	13 13.8%	48 51.1%
	대졸(재학포함)	14 3.2%	62 14.1%	167 38.0%	143 32.6%	53 12.1%	439 100.0%	76 17.3%	196 44.6%
	대학원 이상	0 0.0%	20 18.3%	33 30.3%	35 32.1%	21 19.3%	109 100.0%	20 18.3%	56 51.4%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14 21.5%	34 52.3%	13 20.0%	4 6.2%	65 100.0%	14 21.5%	17 26.2%
	201~400만원	7 3.2%	32 14.6%	73 33.3%	73 33.3%	34 15.5%	219 100.0%	39 17.8%	107 48.9%
	401~600만원	4 2.2%	22 12.3%	59 33.0%	72 40.2%	22 12.3%	179 100.0%	26 14.5%	94 52.5%
	601만원 이상	4 2.2%	26 14.5%	67 37.4%	50 27.9%	32 17.9%	179 100.0%	30 16.8%	82 45.8%
직업	자영업	0 0.0%	8 20.5%	15 38.5%	7 17.9%	9 23.1%	39 100.0%	8 20.5%	16 41.0%
	블루칼라	2 2.2%	16 17.8%	34 37.8%	23 25.6%	15 16.7%	90 100.0%	18 20.0%	38 42.2%
	화이트칼라	12 3.6%	47 14.0%	120 35.7%	108 32.1%	49 14.6%	336 100.0%	59 17.6%	157 46.7%
	주부	1 1.0%	13 13.5%	34 35.4%	40 41.7%	8 8.3%	96 100.0%	14 14.6%	48 50.0%
	학생	0 0.0%	7 17.9%	18 46.2%	11 28.2%	3 7.7%	39 100.0%	7 17.9%	14 35.9%
	무직/기타	0 0.0%	3 7.1%	12 28.6%	19 45.2%	8 19.0%	42 100.0%	3 7.1%	27 64.3%

2.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 ‘보통’ 응답이 292명(45.5%)인 가운데 ‘잘했다’는 긍정 응답이 107명(16.7%),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243명(37.9%)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은 우호적인 응답으로 분류함
 - 따라서 매우 잘했다(1.6%)와 잘한 편이다(15.1%)를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62.0%라고 볼 수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71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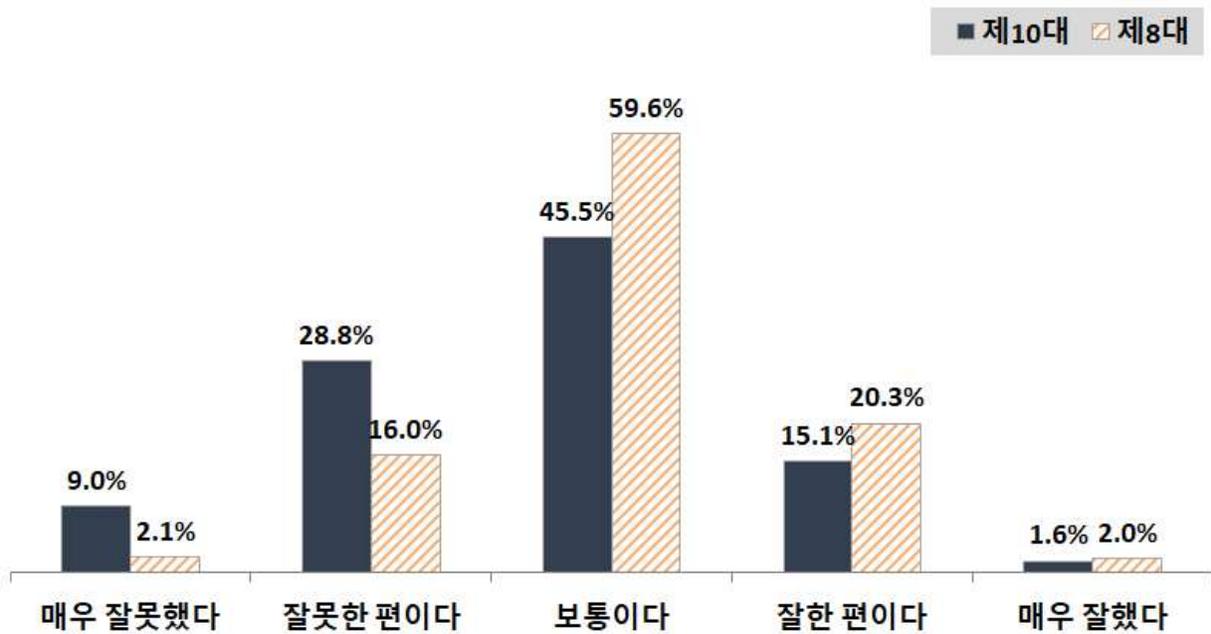
【 그림 II-3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59.6%에서 45.5%로 감소한 반면 잘못된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는 각각 16.0%에서 28.8%로, 2.1%에서 9.0%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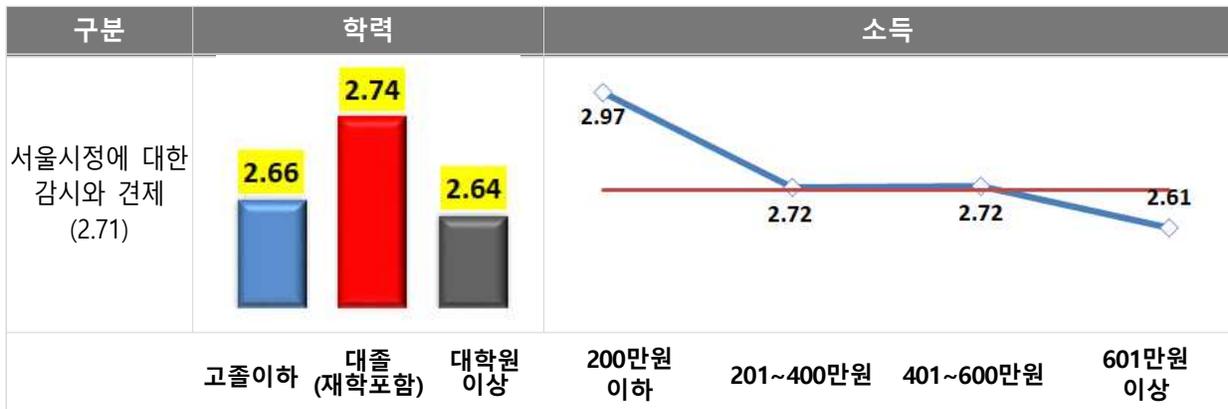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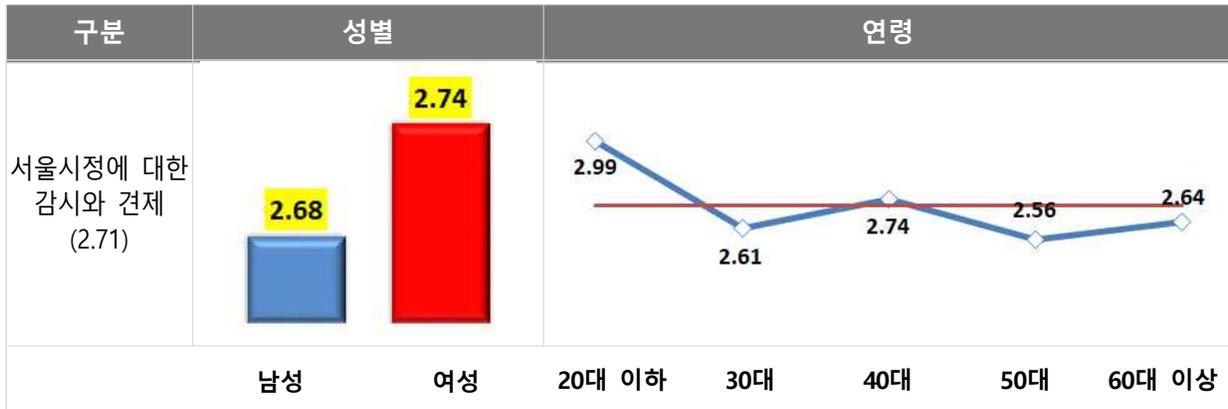
【 그림 II-4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2.99점)와 40대 응답자(2.74점)가 전체 평균(2.71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601만원 이상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냄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2.76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이 2.95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가 2.31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2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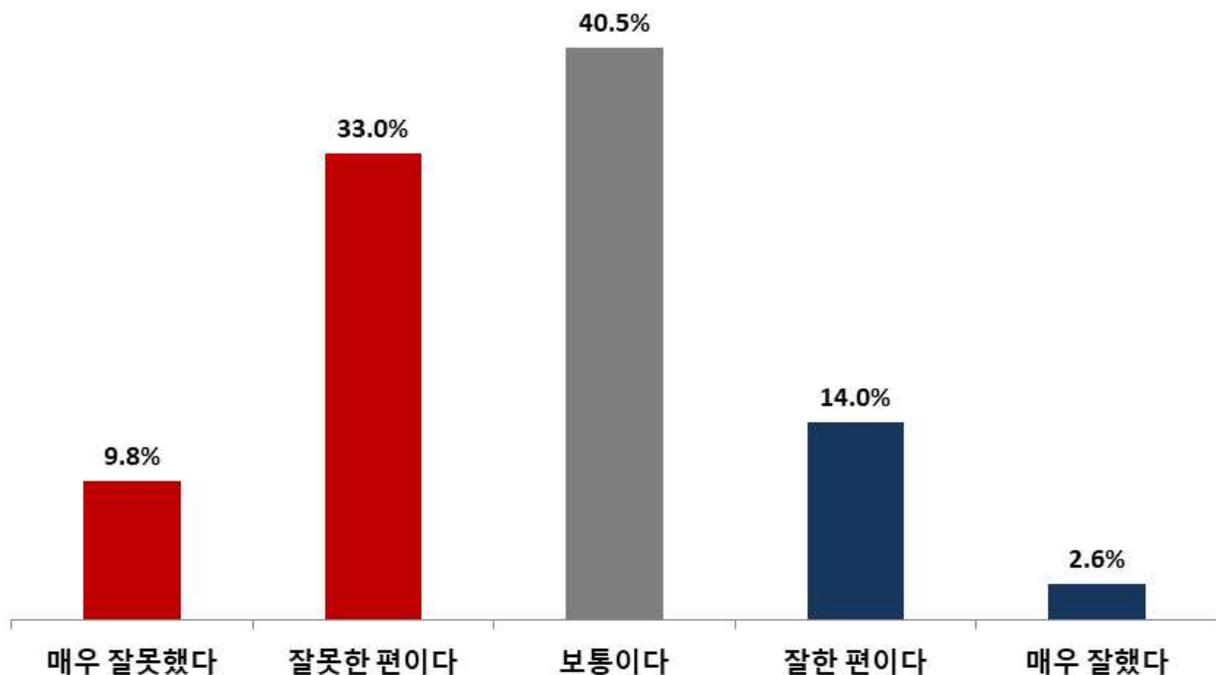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답변	부정 답변
전체		10 1.6%	97 15.1%	292 45.5%	185 28.8%	58 9.0%	642 100.0%	107 16.7%	243 37.9%
권역	도심권	0 0.0%	5 15.6%	17 53.1%	7 21.9%	3 9.4%	32 100.0%	5 15.6%	10 31.3%
	동북권	3 1.6%	26 13.5%	95 49.2%	55 28.5%	14 7.3%	193 100.0%	29 15.0%	69 35.8%
	서북권	0 0.0%	15 20.3%	31 41.9%	23 31.1%	5 6.8%	74 100.0%	15 20.3%	28 37.8%
	서남권	7 3.5%	32 15.9%	83 41.3%	60 29.9%	19 9.5%	201 100.0%	39 19.4%	79 39.3%
	동남권	0 0.0%	19 13.4%	66 46.5%	40 28.2%	17 12.0%	142 100.0%	19 13.4%	57 40.1%
성별	남성	6 2.0%	52 16.9%	133 43.3%	71 23.1%	45 14.7%	307 100.0%	58 18.9%	116 37.8%
	여성	4 1.2%	45 13.4%	159 47.5%	114 34.0%	13 3.9%	335 100.0%	49 14.6%	127 37.9%
연령	20대 이하	2 1.4%	34 24.1%	70 49.6%	30 21.3%	5 3.5%	141 100.0%	36 25.5%	35 24.8%
	30대	2 1.5%	15 11.2%	64 47.8%	35 26.1%	18 13.4%	134 100.0%	17 12.7%	53 39.6%
	40대	4 3.3%	18 14.8%	49 40.2%	44 36.1%	7 5.7%	122 100.0%	22 18.0%	51 41.8%
	50대	2 1.5%	16 12.0%	54 40.6%	44 33.1%	17 12.8%	133 100.0%	18 13.5%	61 45.9%
	60대 이상	0 0.0%	14 12.5%	55 49.1%	32 28.6%	11 9.8%	112 100.0%	14 12.5%	43 38.4%
학력	고졸 이하	1 1.1%	8 8.5%	49 52.1%	30 31.9%	6 6.4%	94 100.0%	9 9.6%	36 38.3%
	대졸(재학포함)	9 2.1%	69 15.7%	199 45.3%	124 28.2%	38 8.7%	439 100.0%	78 17.8%	162 36.9%
	대학원 이상	0 0.0%	20 18.3%	44 40.4%	31 28.4%	14 12.8%	109 100.0%	20 18.3%	45 41.3%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12 18.5%	42 64.6%	8 12.3%	3 4.6%	65 100.0%	12 18.5%	11 16.9%
	201~400만원	5 2.3%	42 19.2%	82 37.4%	66 30.1%	24 11.0%	219 100.0%	47 21.5%	90 41.1%
	401~600만원	3 1.7%	20 11.2%	92 51.4%	52 29.1%	12 6.7%	179 100.0%	23 12.8%	64 35.8%
	601만원 이상	2 1.1%	23 12.8%	76 42.5%	59 33.0%	19 10.6%	179 100.0%	25 14.0%	78 43.6%
직업	자영업	0 0.0%	6 15.4%	21 53.8%	8 20.5%	4 10.3%	39 100.0%	6 15.4%	12 30.8%
	블루칼라	2 2.2%	11 12.2%	46 51.1%	21 23.3%	10 11.1%	90 100.0%	13 14.4%	31 34.4%
	화이트칼라	7 2.1%	60 17.9%	139 41.4%	98 29.2%	32 9.5%	336 100.0%	67 19.9%	130 38.7%
	주부	1 1.0%	11 11.5%	46 47.9%	34 35.4%	4 4.2%	96 100.0%	12 12.5%	38 39.6%
	학생	0 0.0%	7 17.9%	25 64.1%	5 12.8%	2 5.1%	39 100.0%	7 17.9%	7 17.9%
	무직/기타	0 0.0%	2 4.8%	15 35.7%	19 45.2%	6 14.3%	42 100.0%	2 4.8%	25 59.5%

3.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07명(16.7%),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275명(42.8%), ‘보통’ 응답은 260명(40.5%)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6%)와 잘한 편이다(14.0%)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7.0%라고 볼 수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6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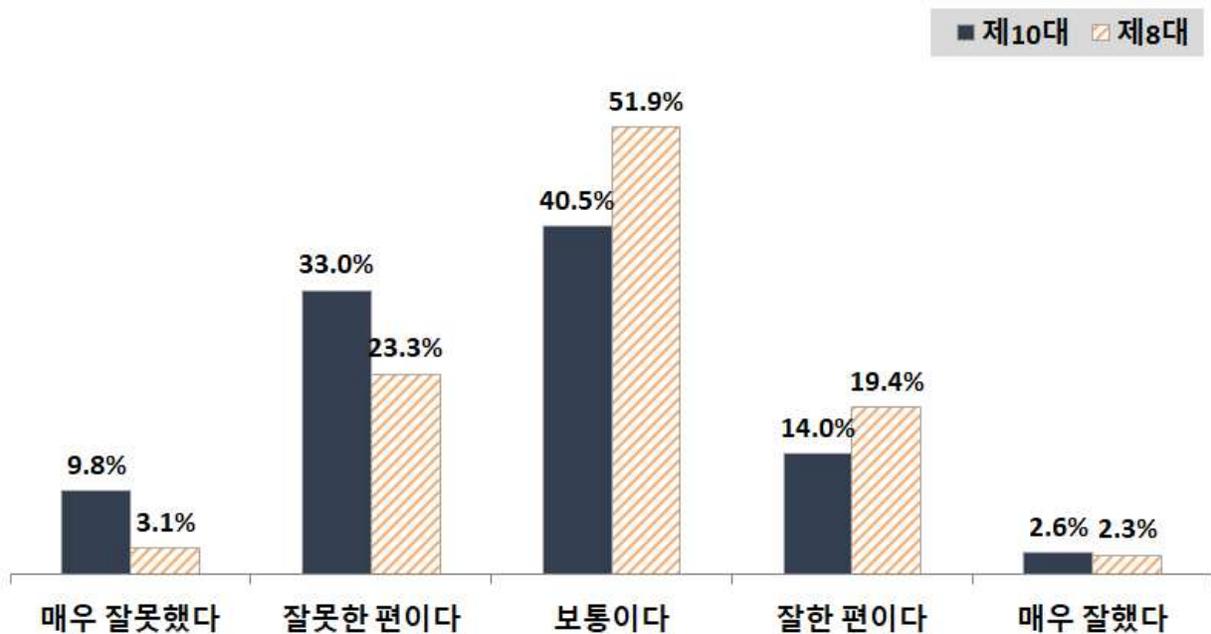
【 그림 II-5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51.9%에서 40.5%로 감소한 반면 잘못된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는 각각 23.3%에서 33.0%로, 3.1%에서 9.8%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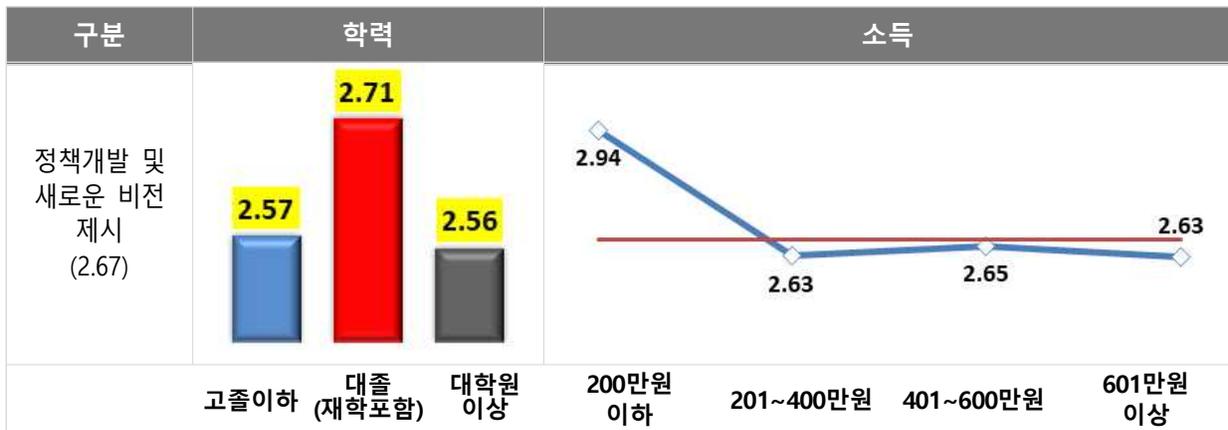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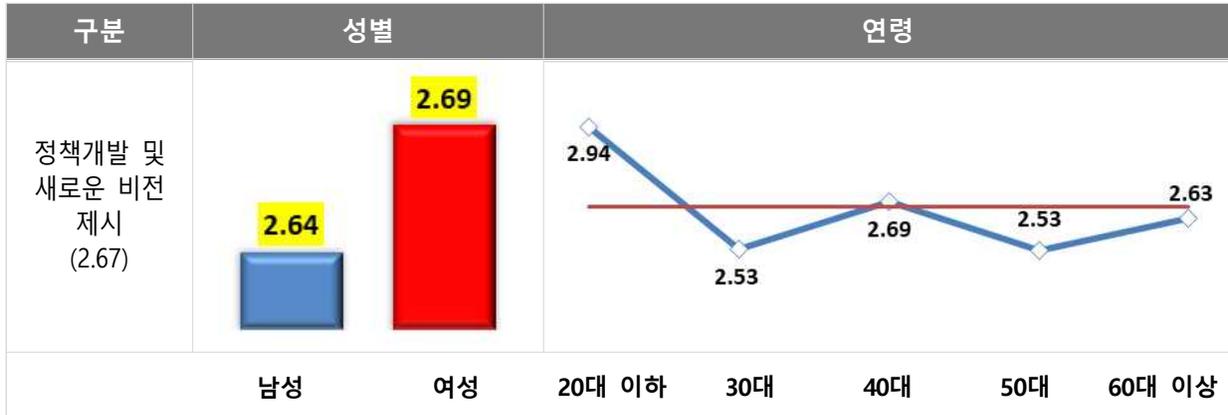
【 그림 II-6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2.94점)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 30대와 50대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2.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201~400만원 응답자와 601만원 이상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2.76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이 2.85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가 2.50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3 】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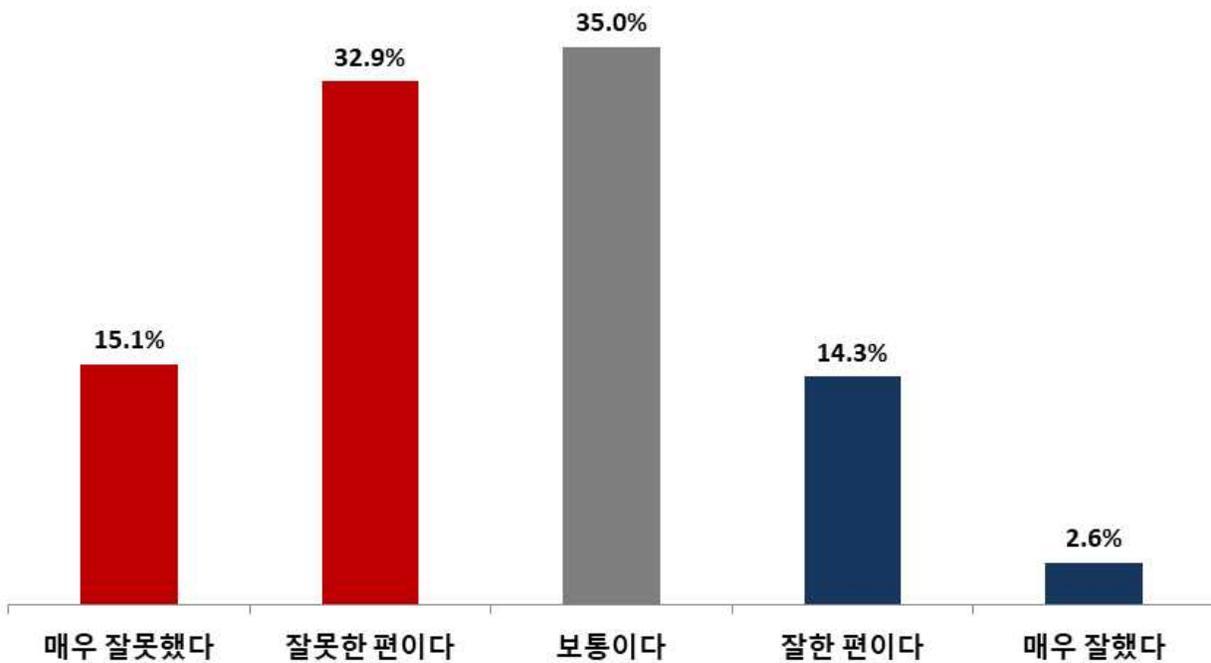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반응	부정 반응
전체		17 2.6%	90 14.0%	260 40.5%	212 33.0%	63 9.8%	642 100.0%	107 16.7%	275 42.8%
권역	도심권	0 0.0%	3 9.4%	16 50.0%	10 31.3%	3 9.4%	32 100.0%	3 9.4%	13 40.6%
	동북권	3 1.6%	27 14.0%	80 41.5%	68 35.2%	15 7.8%	193 100.0%	30 15.5%	83 43.0%
	서북권	3 4.1%	13 17.6%	28 37.8%	23 31.1%	7 9.5%	74 100.0%	16 21.6%	30 40.5%
	서남권	10 5.0%	31 15.4%	75 37.3%	65 32.3%	20 10.0%	201 100.0%	41 20.4%	85 42.3%
	동남권	1 0.7%	16 11.3%	61 43.0%	46 32.4%	18 12.7%	142 100.0%	17 12.0%	64 45.1%
성별	남성	10 3.3%	46 15.0%	120 39.1%	87 28.3%	44 14.3%	307 100.0%	56 18.2%	131 42.7%
	여성	7 2.1%	44 13.1%	140 41.8%	125 37.3%	19 5.7%	335 100.0%	51 15.2%	144 43.0%
연령	20대 이하	4 2.8%	30 21.3%	69 48.9%	29 20.6%	9 6.4%	141 100.0%	34 24.1%	38 27.0%
	30대	4 3.0%	12 9.0%	51 38.1%	51 38.1%	16 11.9%	134 100.0%	16 11.9%	67 50.0%
	40대	5 4.1%	17 13.9%	48 39.3%	39 32.0%	13 10.7%	122 100.0%	22 18.0%	52 42.6%
	50대	2 1.5%	13 9.8%	52 39.1%	52 39.1%	14 10.5%	133 100.0%	15 11.3%	66 49.6%
	60대 이상	2 1.8%	18 16.1%	40 35.7%	41 36.6%	11 9.8%	112 100.0%	20 17.9%	52 46.4%
학력	고졸 이하	1 1.1%	8 8.5%	39 41.5%	42 44.7%	4 4.3%	94 100.0%	9 9.6%	46 48.9%
	대졸(재학포함)	14 3.2%	68 15.5%	177 40.3%	138 31.4%	42 9.6%	439 100.0%	82 18.7%	180 41.0%
	대학원 이상	2 1.8%	14 12.8%	44 40.4%	32 29.4%	17 15.6%	109 100.0%	16 14.7%	49 45.0%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15 23.1%	33 50.8%	15 23.1%	2 3.1%	65 100.0%	15 23.1%	17 26.2%
	201~400만원	9 4.1%	24 11.0%	89 40.6%	71 32.4%	26 11.9%	219 100.0%	33 15.1%	97 44.3%
	401~600만원	6 3.4%	25 14.0%	63 35.2%	71 39.7%	14 7.8%	179 100.0%	31 17.3%	85 47.5%
	601만원 이상	2 1.1%	26 14.5%	75 41.9%	55 30.7%	21 11.7%	179 100.0%	28 15.6%	76 42.5%
직업	자영업	1 2.6%	3 7.7%	19 48.7%	12 30.8%	4 10.3%	39 100.0%	4 10.3%	16 41.0%
	블루칼라	2 2.2%	13 14.4%	38 42.2%	26 28.9%	11 12.2%	90 100.0%	15 16.7%	37 41.1%
	화이트칼라	12 3.6%	49 14.6%	130 38.7%	110 32.7%	35 10.4%	336 100.0%	61 18.2%	145 43.2%
	주부	2 2.1%	11 11.5%	38 39.6%	41 42.7%	4 4.2%	96 100.0%	13 13.5%	45 46.9%
	학생	0 0.0%	7 17.9%	22 56.4%	7 17.9%	3 7.7%	39 100.0%	7 17.9%	10 25.6%
	무직/기타	0 0.0%	7 16.7%	13 31.0%	16 38.1%	6 14.3%	42 100.0%	7 16.7%	22 52.4%

4. 민생 현안 해결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09명(17.0%),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308명(48.0%), ‘보통’ 응답은 225명(35.0%)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6%)와 잘한 편이다(14.3%)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1.9%라고 볼 수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57점으로 보통(3점)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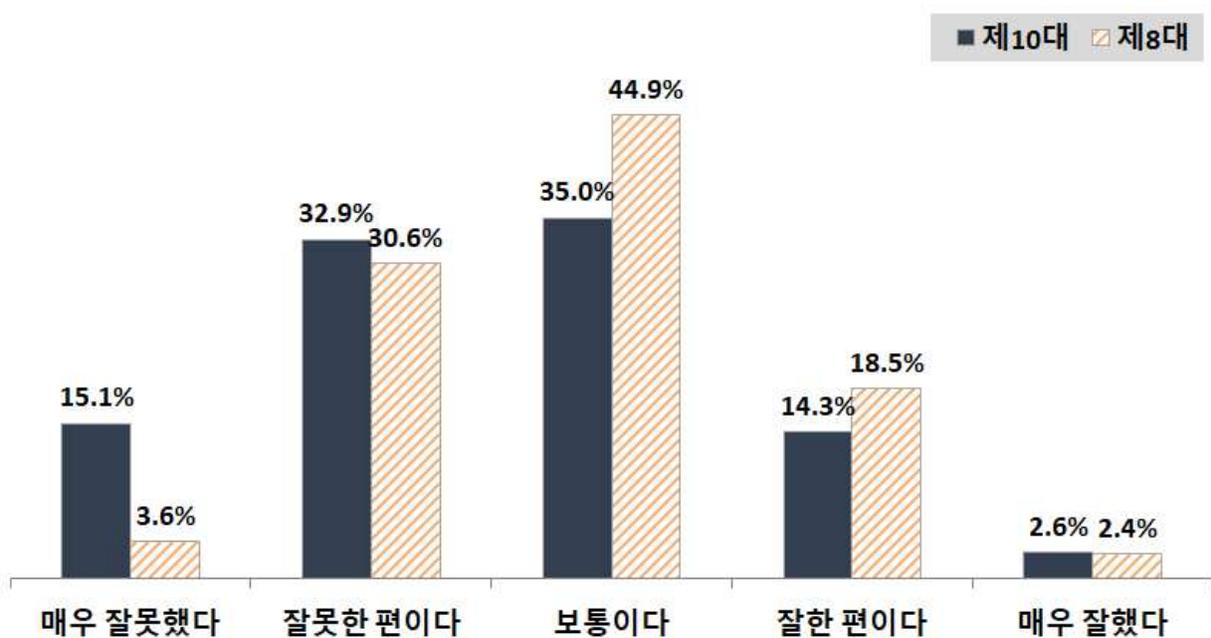
【 그림 II-7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44.9%에서 35.0%로 감소함
- 잘못된 편이다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매우 잘못했다가 3.6%에서 15.1%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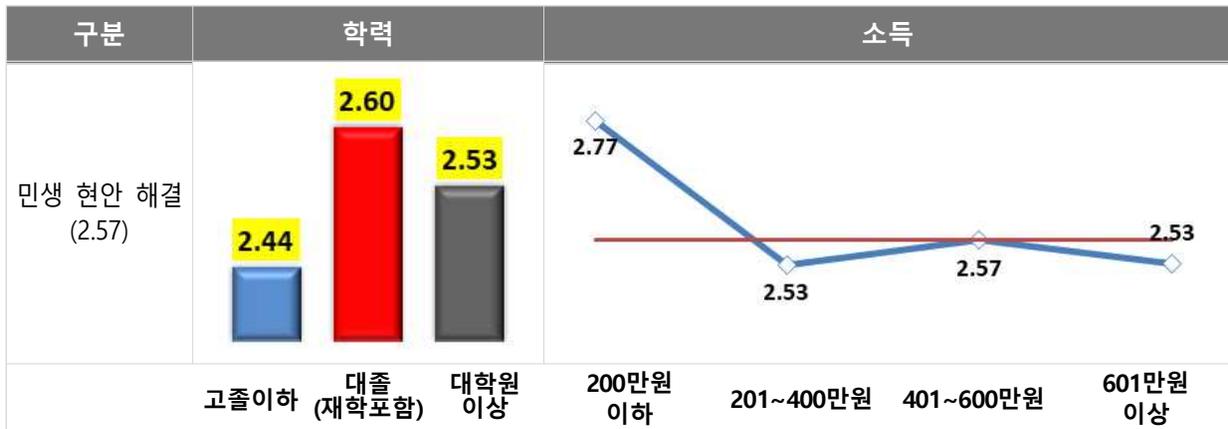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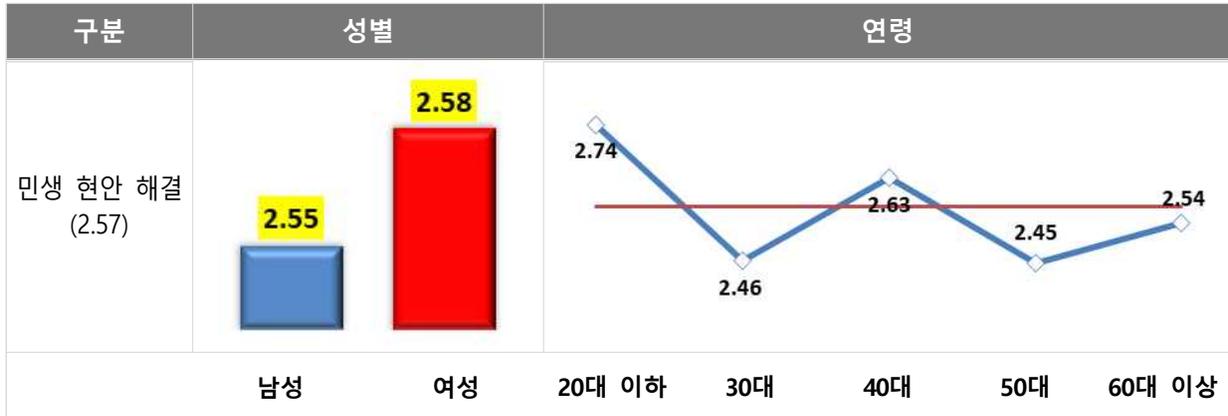
【 그림 II-8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201~400만원 응답자와 601만원 이상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과 주부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가 2.24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4 】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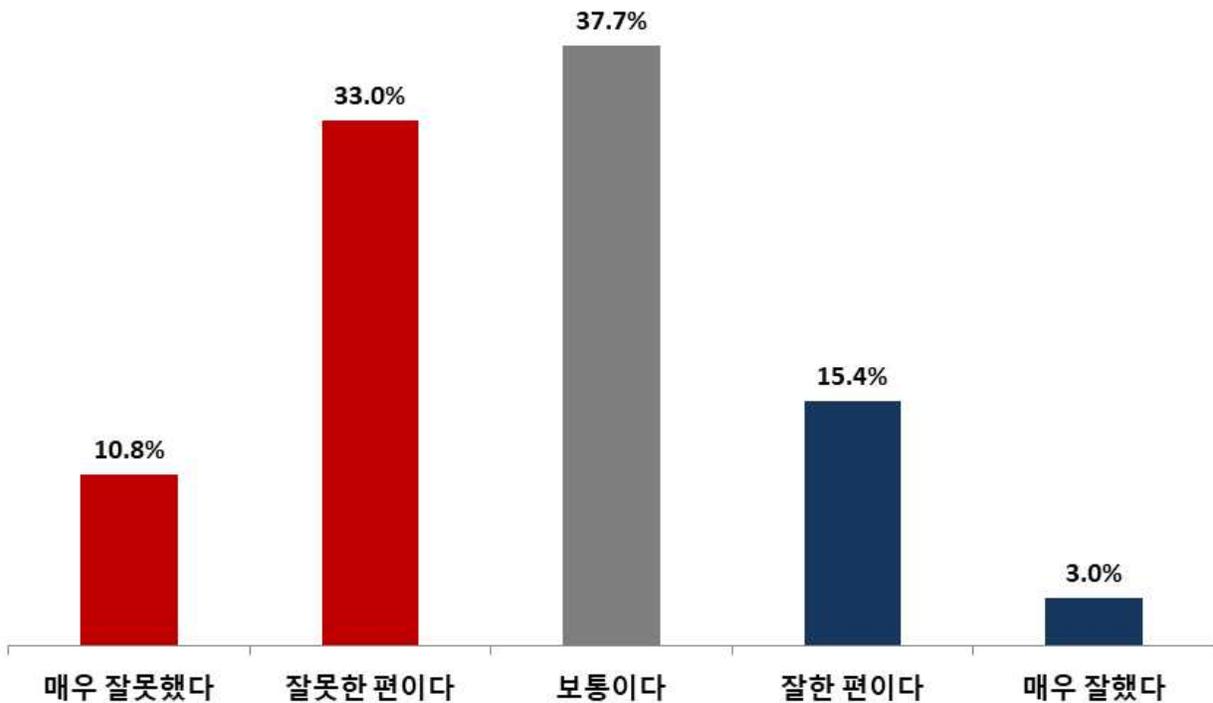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답변	부정 답변
전체		17 2.6%	92 14.3%	225 35.0%	211 32.9%	97 15.1%	642 100.0%	109 17.0%	308 48.0%
권역	도심권	0 0.0%	3 9.4%	10 31.3%	14 43.8%	5 15.6%	32 100.0%	3 9.4%	19 59.4%
	동북권	3 1.6%	24 12.4%	72 37.3%	69 35.8%	25 13.0%	193 100.0%	27 14.0%	94 48.7%
	서북권	1 1.4%	19 25.7%	22 29.7%	23 31.1%	9 12.2%	74 100.0%	20 27.0%	32 43.2%
	서남권	12 6.0%	30 14.9%	64 31.8%	56 27.9%	39 19.4%	201 100.0%	42 20.9%	95 47.3%
	동남권	1 0.7%	16 11.3%	57 40.1%	49 34.5%	19 13.4%	142 100.0%	17 12.0%	68 47.9%
성별	남성	11 3.6%	47 15.3%	105 34.2%	81 26.4%	63 20.5%	307 100.0%	58 18.9%	144 46.9%
	여성	6 1.8%	45 13.4%	120 35.8%	130 38.8%	34 10.1%	335 100.0%	51 15.2%	164 49.0%
연령	20대 이하	4 2.8%	29 20.6%	52 36.9%	39 27.7%	17 12.1%	141 100.0%	33 23.4%	56 39.7%
	30대	2 1.5%	20 14.9%	40 29.9%	47 35.1%	25 18.7%	134 100.0%	22 16.4%	72 53.7%
	40대	7 5.7%	16 13.1%	42 34.4%	39 32.0%	18 14.8%	122 100.0%	23 18.9%	57 46.7%
	50대	3 2.3%	14 10.5%	46 34.6%	47 35.3%	23 17.3%	133 100.0%	17 12.8%	70 52.6%
	60대 이상	1 0.9%	13 11.6%	45 40.2%	39 34.8%	14 12.5%	112 100.0%	14 12.5%	53 47.3%
학력	고졸 이하	1 1.1%	8 8.5%	36 38.3%	35 37.2%	14 14.9%	94 100.0%	9 9.6%	49 52.1%
	대졸(재학포함)	15 3.4%	61 13.9%	159 36.2%	142 32.3%	62 14.1%	439 100.0%	76 17.3%	204 46.5%
	대학원 이상	1 0.9%	23 21.1%	30 27.5%	34 31.2%	21 19.3%	109 100.0%	24 22.0%	55 50.5%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9 13.8%	36 55.4%	16 24.6%	4 6.2%	65 100.0%	9 13.8%	20 30.8%
	201~400만원	10 4.6%	29 13.2%	68 31.1%	72 32.9%	40 18.3%	219 100.0%	39 17.8%	112 51.1%
	401~600만원	4 2.2%	27 15.1%	60 33.5%	64 35.8%	24 13.4%	179 100.0%	31 17.3%	88 49.2%
	601만원 이상	3 1.7%	27 15.1%	61 34.1%	59 33.0%	29 16.2%	179 100.0%	30 16.8%	88 49.2%
직업	자영업	1 2.6%	4 10.3%	15 38.5%	8 20.5%	11 28.2%	39 100.0%	5 12.8%	19 48.7%
	블루칼라	2 2.2%	15 16.7%	27 30.0%	32 35.6%	14 15.6%	90 100.0%	17 18.9%	46 51.1%
	화이트칼라	13 3.9%	51 15.2%	116 34.5%	102 30.4%	54 16.1%	336 100.0%	64 19.0%	156 46.4%
	주부	1 1.0%	13 13.5%	38 39.6%	38 39.6%	6 6.3%	96 100.0%	14 14.6%	44 45.8%
	학생	0 0.0%	6 15.4%	16 41.0%	14 35.9%	3 7.7%	39 100.0%	6 15.4%	17 43.6%
	무직/기타	0 0.0%	3 7.1%	13 31.0%	17 40.5%	9 21.4%	42 100.0%	3 7.1%	26 61.9%

5.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19명(18.5%), ‘잘 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281명(43.8%), ‘보통’ 응답은 242명(37.7%)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3.0%)와 잘한 편이다(15.4%)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6.1%라고 볼 수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6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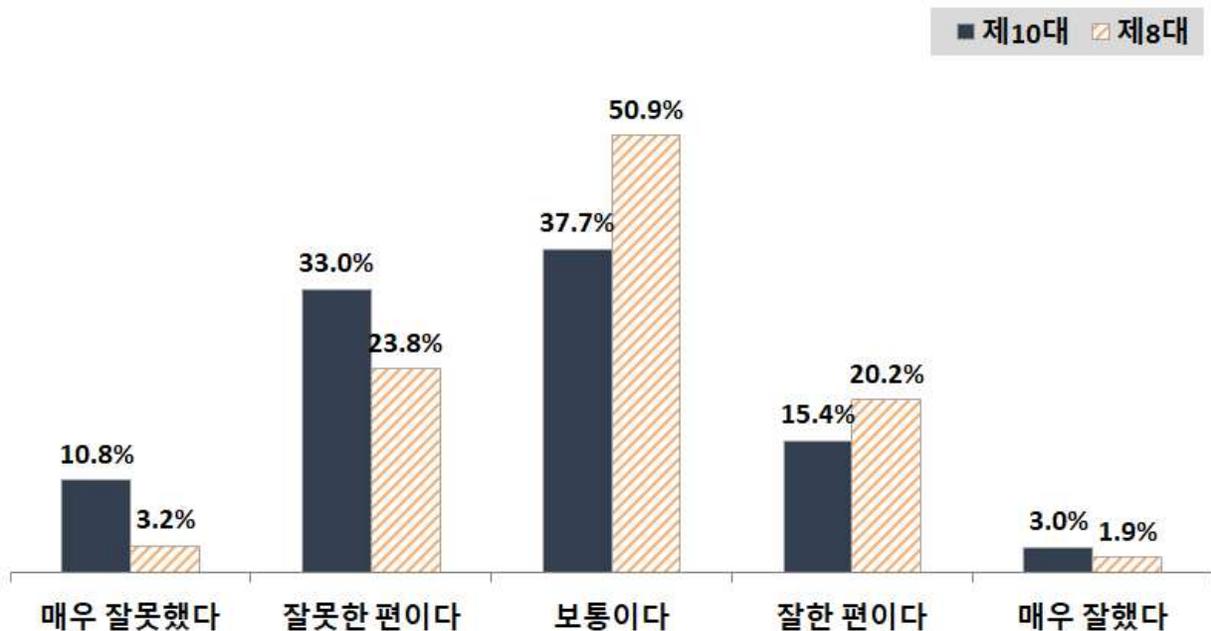
【 그림 II-9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50.9%에서 37.7%로 감소하였으며, 잘못된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는 각각 23.8%에서 33.0%로, 3.2%에서 10.8%로 증가함
- 반면 긍정적 응답 중에서 매우 잘했다는 의견은 1.9%에서 3.0%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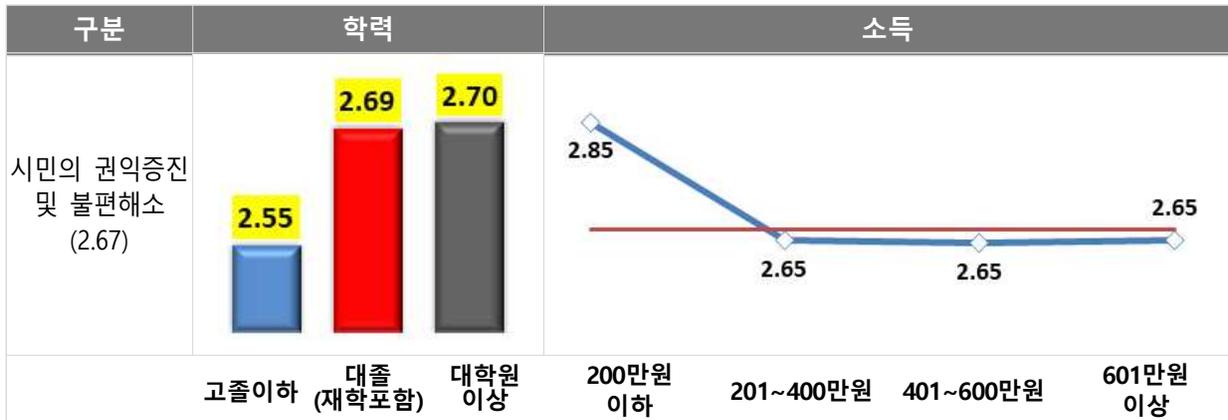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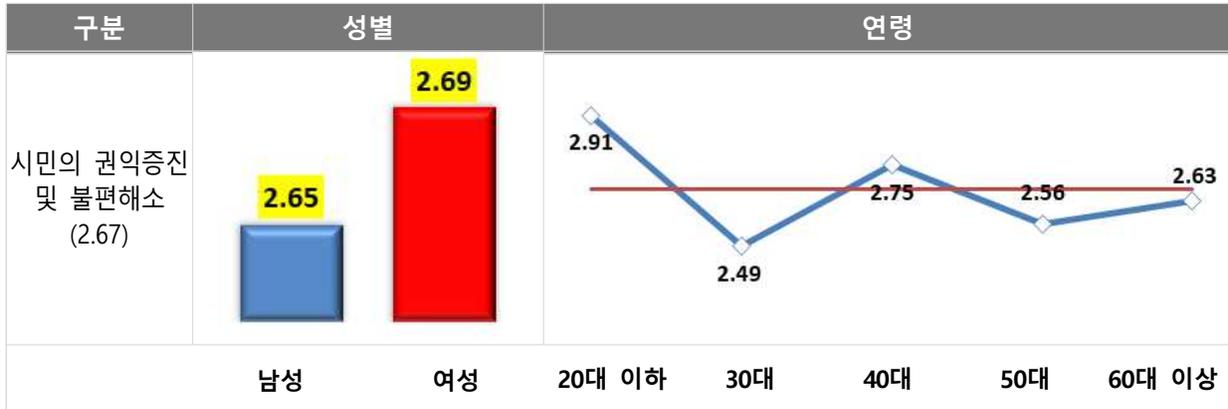
【 그림 II-10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대졸 응답자의 평가도 평균(2.67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는 2.31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5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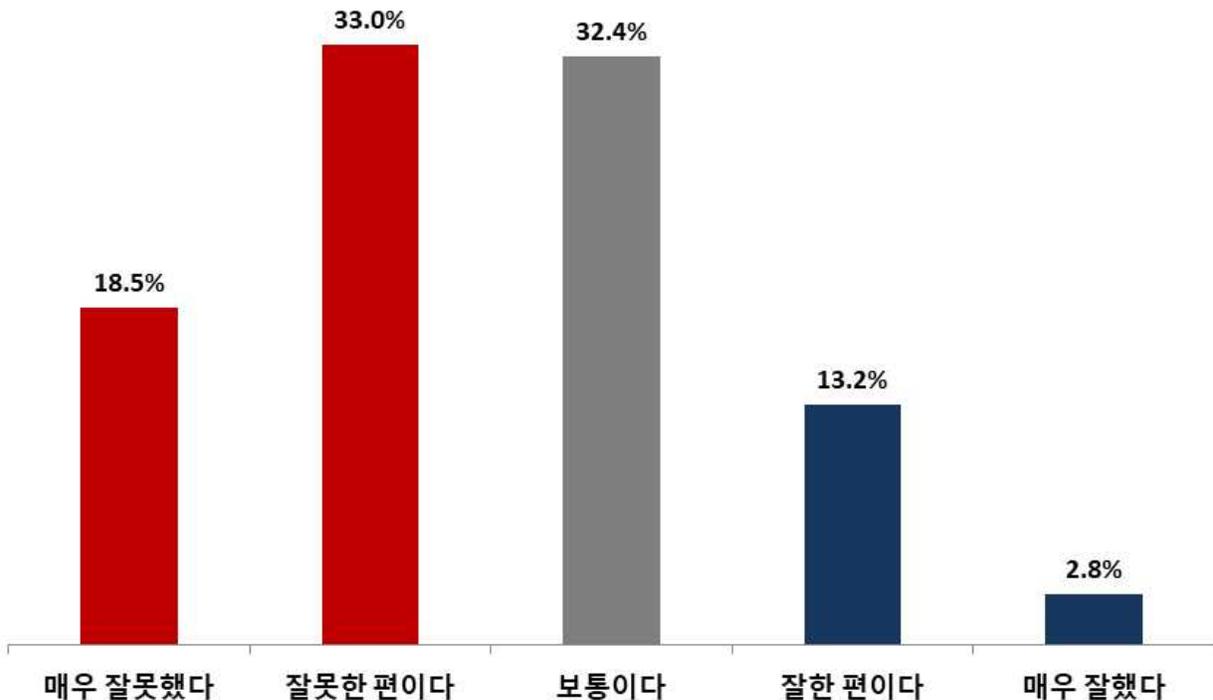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답변	부정 답변
전체		20 3.1	99 15.4	242 37.7	212 33.0	69 10.7	642 100.0	119 18.5	281 43.8
권역	도심권	0 0.0%	5 15.6%	10 31.3%	13 40.6%	4 12.5%	32 100.0%	5 15.6%	17 53.1%
	동북권	5 2.6%	30 15.5%	71 36.8%	63 32.6%	24 12.4%	193 100.0%	35 18.1%	87 45.1%
	서북권	3 4.1%	16 21.6%	28 37.8%	19 25.7%	8 10.8%	74 100.0%	19 25.7%	27 36.5%
	서남권	11 5.5%	31 15.4%	65 32.3%	74 36.8%	20 10.0%	201 100.0%	42 20.9%	94 46.8%
	동남권	1 0.7%	17 12.0%	68 47.9%	43 30.3%	13 9.2%	142 100.0%	18 12.7%	56 39.4%
성별	남성	10 3.3%	48 15.6%	120 39.1%	83 27.0%	46 15.0%	307 100.0%	58 18.9%	129 42.0%
	여성	10 3.0%	51 15.2%	122 36.4%	129 38.5%	23 6.9%	335 100.0%	61 18.2%	152 45.4%
연령	20대 이하	5 3.5%	36 25.5%	53 37.6%	36 25.5%	11 7.8%	141 100.0%	41 29.1%	47 33.3%
	30대	5 3.7%	11 8.2%	49 36.6%	48 35.8%	21 15.7%	134 100.0%	16 11.9%	69 51.5%
	40대	6 4.9%	16 13.1%	52 42.6%	38 31.1%	10 8.2%	122 100.0%	22 18.0%	48 39.3%
	50대	4 3.0%	17 12.8%	46 34.6%	48 36.1%	18 13.5%	133 100.0%	21 15.8%	66 49.6%
	60대 이상	0 0.0%	19 17.0%	42 37.5%	42 37.5%	9 8.0%	112 100.0%	19 17.0%	51 45.5%
학력	고졸 이하	1 1.1%	12 12.8%	34 36.2%	38 40.4%	9 9.6%	94 100.0%	13 13.8%	47 50.0%
	대졸(재학포함)	16 3.6%	66 15.0%	168 38.3%	144 32.8%	45 10.3%	439 100.0%	82 18.7%	189 43.1%
	대학원 이상	3 2.8%	21 19.3%	40 36.7%	30 27.5%	15 13.8%	109 100.0%	24 22.0%	45 41.3%
소득	200만원 이하	1 1.5%	10 15.4%	34 52.3%	18 27.7%	2 3.1%	65 100.0%	11 16.9%	20 30.8%
	201~400만원	6 2.7%	37 16.9%	77 35.2%	73 33.3%	26 11.9%	219 100.0%	43 19.6%	99 45.2%
	401~600만원	8 4.5%	26 14.5%	61 34.1%	63 35.2%	21 11.7%	179 100.0%	34 19.0%	84 46.9%
	601만원 이상	5 2.8%	26 14.5%	70 39.1%	58 32.4%	20 11.2%	179 100.0%	31 17.3%	78 43.6%
직업	자영업	1 2.6%	6 15.4%	19 48.7%	9 23.1%	4 10.3%	39 100.0%	7 17.9%	13 33.3%
	블루칼라	2 2.2%	13 14.4%	30 33.3%	36 40.0%	9 10.0%	90 100.0%	15 16.7%	45 50.0%
	화이트칼라	16 4.8%	53 15.8%	125 37.2%	102 30.4%	40 11.9%	336 100.0%	69 20.5%	142 42.3%
	주부	1 1.0%	15 15.6%	35 36.5%	39 40.6%	6 6.3%	96 100.0%	16 16.7%	45 46.9%
	학생	0 0.0%	11 28.2%	16 41.0%	8 20.5%	4 10.3%	39 100.0%	11 28.2%	12 30.8%
	무직/기타	0 0.0%	1 2.4%	17 40.5%	18 42.9%	6 14.3%	42 100.0%	1 2.4%	24 57.1%

6.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03명(16.0%), ‘잘 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331명(51.6%), ‘보통’ 응답은 208명(32.4%)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8%)와 잘한 편이다(13.2%)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48.4%로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 5점 척도 환산점은 2.49점으로 보통(3점)에 비해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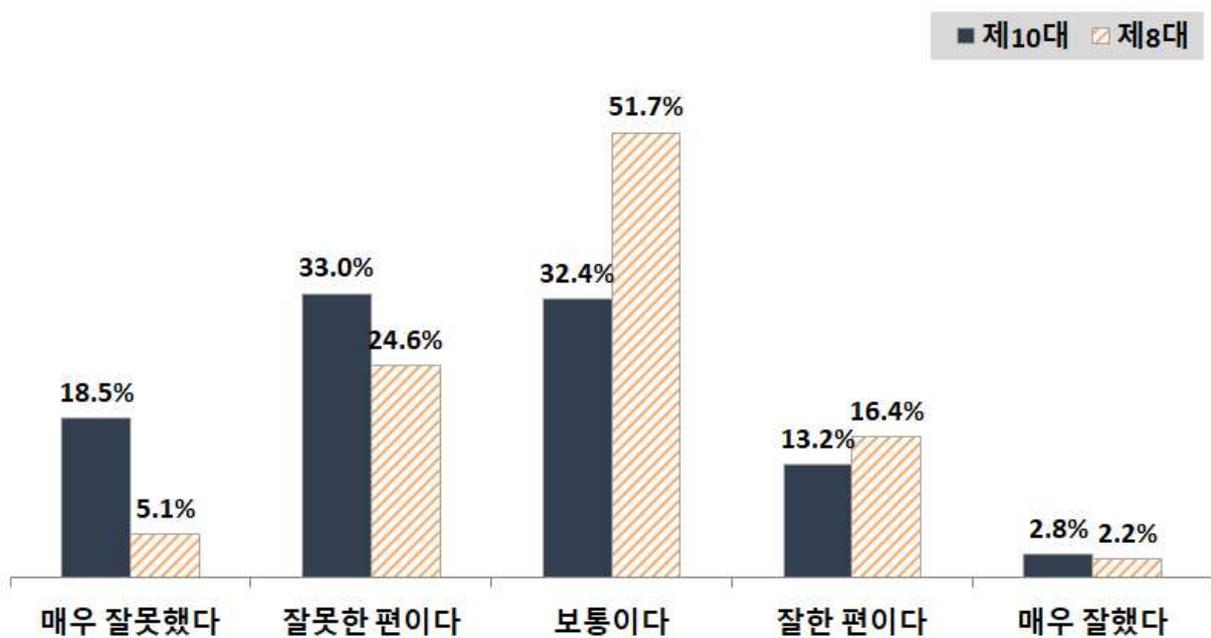
【 그림 II-11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에 비해 ‘보통’ 응답이 51.7%에서 32.4%로 감소한 반면 잘못된 편이다와 매우 잘못했다는 각각 24.6%에서 33.0%로, 5.1%에서 18.5%로 증가함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중립적 혹은 우호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 ‘보통’ 응답자가 크게 감소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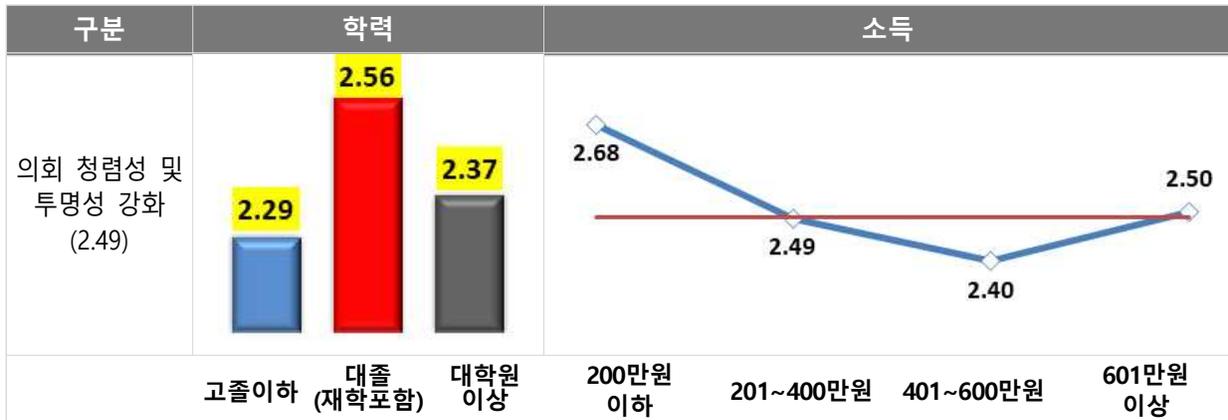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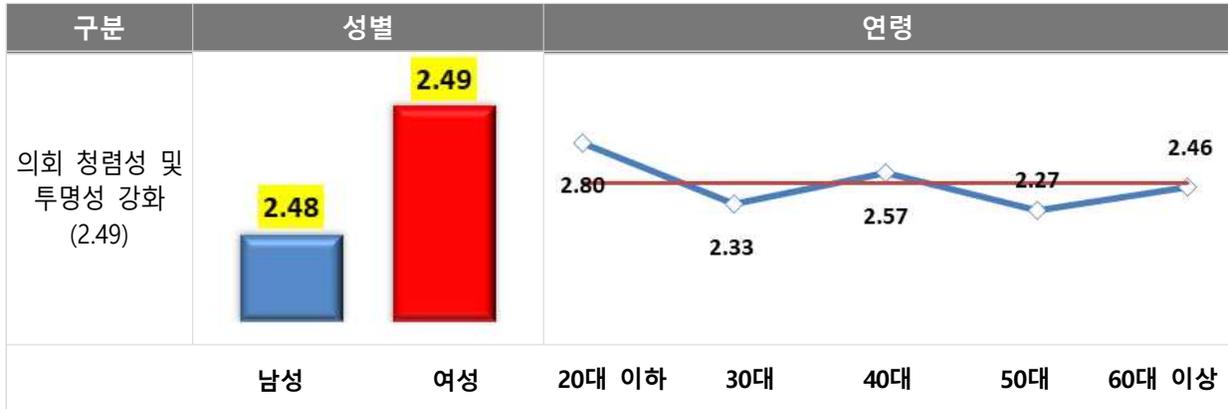
【 그림 II-12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평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5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고졸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남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는 2.19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6 】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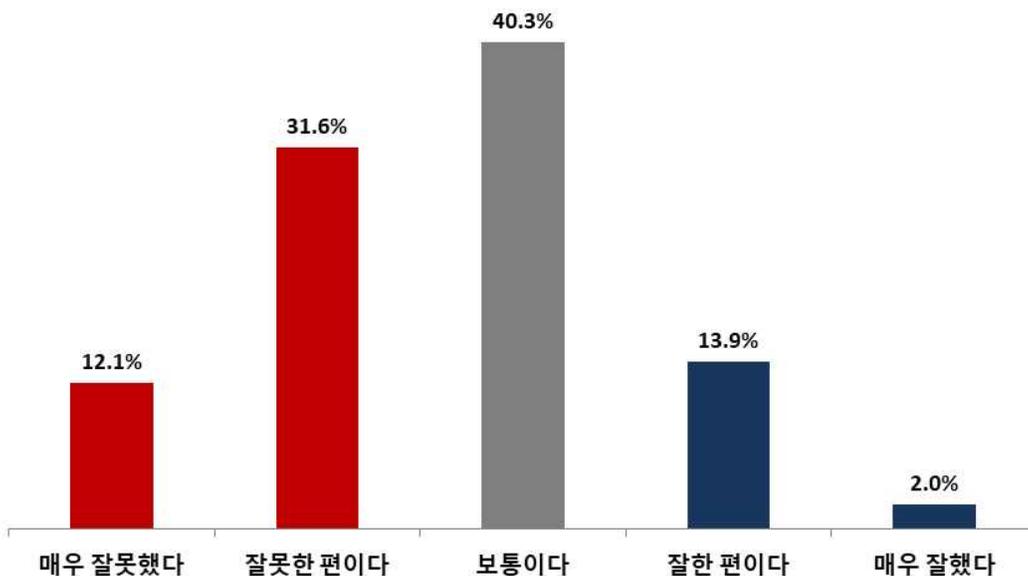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답변	부정 답변
전체		18 2.8	85 13.2	208 32.4	212 33.0	119 18.5	642 100.0	103 16.0	331 51.6
권역	도심권	0 0.0%	3 9.4%	8 25.0%	13 40.6%	8 25.0%	32 100.0%	3 9.4%	21 65.6%
	동북권	1 0.5%	26 13.5%	73 37.8%	55 28.5%	38 19.7%	193 100.0%	27 14.0%	93 48.2%
	서북권	1 1.4%	11 14.9%	22 29.7%	26 35.1%	14 18.9%	74 100.0%	12 16.2%	40 54.1%
	서남권	12 6.0%	26 12.9%	54 26.9%	72 35.8%	37 18.4%	201 100.0%	38 18.9%	109 54.2%
	동남권	4 2.8%	19 13.4%	51 35.9%	46 32.4%	22 15.5%	142 100.0%	23 16.2%	68 47.9%
성별	남성	10 3.3%	41 13.4%	101 32.9%	90 29.3%	65 21.2%	307 100.0%	51 16.6%	155 50.5%
	여성	8 2.4%	44 13.1%	107 31.9%	122 36.4%	54 16.1%	335 100.0%	52 15.5%	176 52.5%
연령	20대 이하	6 4.3%	25 17.7%	59 41.8%	37 26.2%	14 9.9%	141 100.0%	31 22.0%	51 36.2%
	30대	2 1.5%	12 9.0%	46 34.3%	42 31.3%	32 23.9%	134 100.0%	14 10.4%	74 55.2%
	40대	6 4.9%	14 11.5%	43 35.2%	39 32.0%	20 16.4%	122 100.0%	20 16.4%	59 48.4%
	50대	3 2.3%	14 10.5%	33 24.8%	49 36.8%	34 25.6%	133 100.0%	17 12.8%	83 62.4%
	60대 이상	1 0.9%	20 17.9%	27 24.1%	45 40.2%	19 17.0%	112 100.0%	21 18.8%	64 57.1%
학력	고졸 이하	1 1.1%	10 10.6%	28 29.8%	31 33.0%	24 25.5%	94 100.0%	11 11.7%	55 58.5%
	대졸(재학포함)	14 3.2%	61 13.9%	151 34.4%	144 32.8%	69 15.7%	439 100.0%	75 17.1%	213 48.5%
	대학원 이상	3 2.8%	14 12.8%	29 26.6%	37 33.9%	26 23.9%	109 100.0%	17 15.6%	63 57.8%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9 13.8%	32 49.2%	18 27.7%	6 9.2%	65 100.0%	9 13.8%	24 36.9%
	201~400만원	8 3.7%	27 12.3%	72 32.9%	69 31.5%	43 19.6%	219 100.0%	35 16.0%	112 51.1%
	401~600만원	2 1.1%	25 14.0%	49 27.4%	70 39.1%	33 18.4%	179 100.0%	27 15.1%	103 57.5%
	601만원 이상	8 4.5%	24 13.4%	55 30.7%	55 30.7%	37 20.7%	179 100.0%	32 17.9%	92 51.4%
직업	자영업	1 2.6%	6 15.4%	14 35.9%	8 20.5%	10 25.6%	39 100.0%	7 17.9%	18 46.2%
	블루칼라	2 2.2%	8 8.9%	28 31.1%	35 38.9%	17 18.9%	90 100.0%	10 11.1%	52 57.8%
	화이트칼라	14 4.2%	47 14.0%	109 32.4%	100 29.8%	66 19.6%	336 100.0%	61 18.2%	166 49.4%
	주부	1 1.0%	17 17.7%	24 25.0%	38 39.6%	16 16.7%	96 100.0%	18 18.8%	54 56.3%
	학생	0 0.0%	6 15.4%	19 48.7%	12 30.8%	2 5.1%	39 100.0%	6 15.4%	14 35.9%
	무직/기타	0 0.0%	1 2.4%	14 33.3%	19 45.2%	8 19.0%	42 100.0%	1 2.4%	27 64.3%

7.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02명(15.9%), ‘잘 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281명(43.86%), ‘보통’ 응답은 259명(40.3%)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0%)와 잘한 편이다(13.9%)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6.2%로 나타남
- 5점 척도 환산점은 2.6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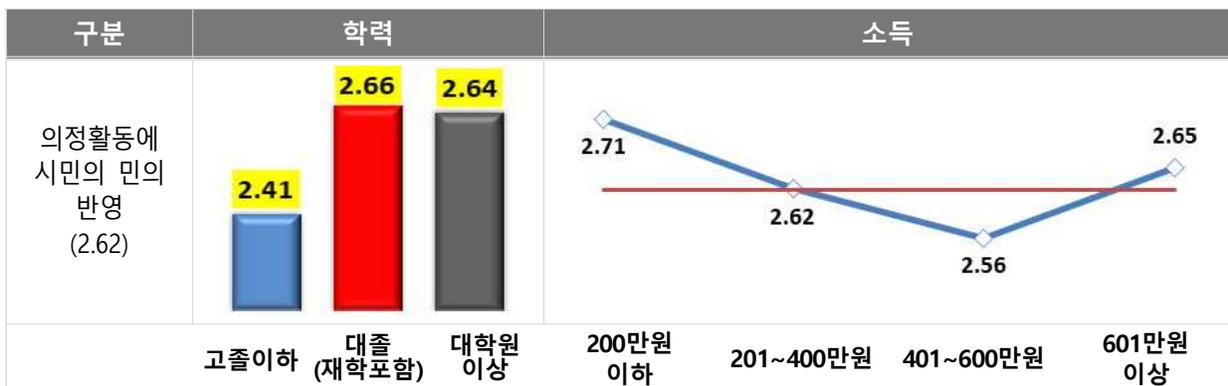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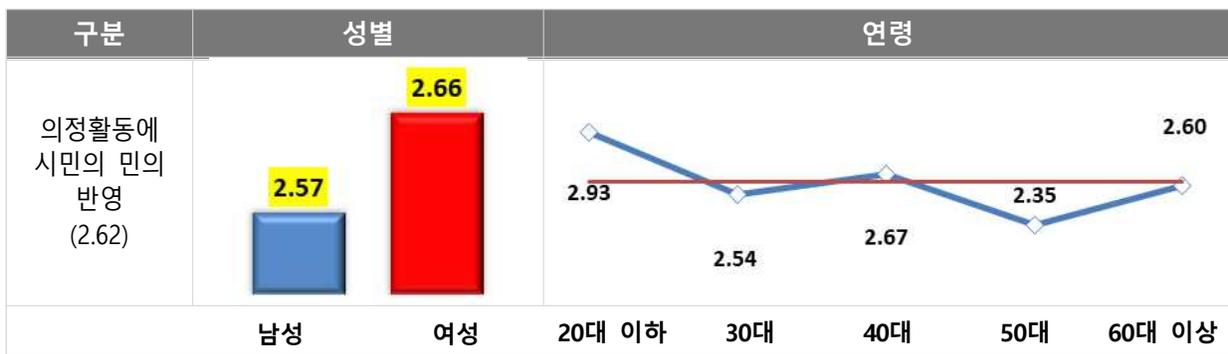
【 그림 II-13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해 여성 응답자(2.66점)가 남성 응답자(2.57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평가도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유지되었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401~600만원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남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는 2.17점으로 가장 부정적임



【 표 II-7 】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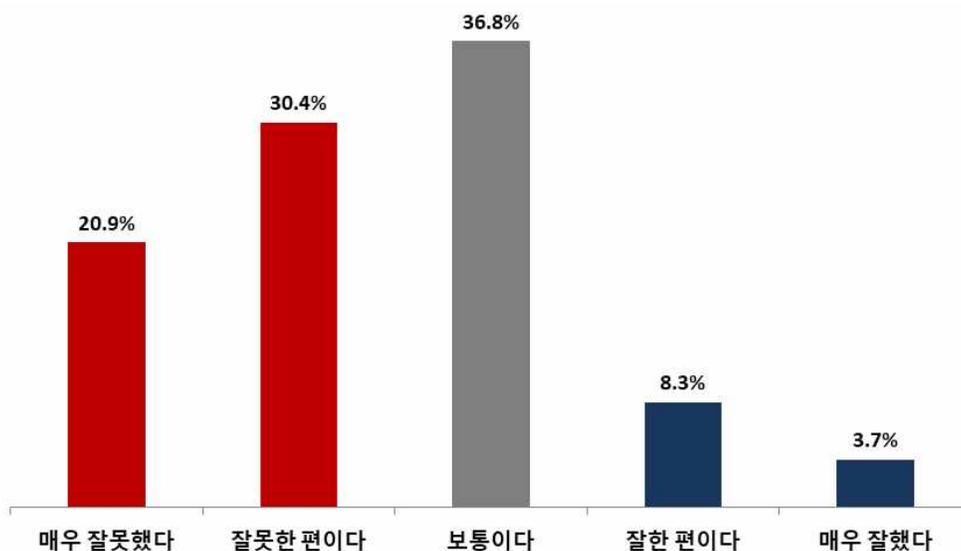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답변	부정 답변
전체		13 2.0%	89 13.9%	259 40.3%	203 31.6%	78 12.1%	642 100.0%	102 15.9%	281 43.8%
구역	도심권	0 0.0%	7 21.9%	11 34.4%	11 34.4%	3 9.4%	32 100.0%	7 21.9%	14 43.8%
	동북권	3 1.6%	18 9.3%	90 46.6%	60 31.1%	22 11.4%	193 100.0%	21 10.9%	82 42.5%
	서북권	2 2.7%	13 17.6%	28 37.8%	19 25.7%	12 16.2%	74 100.0%	15 20.3%	31 41.9%
	서남권	7 3.5%	31 15.4%	74 36.8%	64 31.8%	25 12.4%	201 100.0%	38 18.9%	89 44.3%
	동남권	1 0.7%	20 14.1%	56 39.4%	49 34.5%	16 11.3%	142 100.0%	21 14.8%	65 45.8%
성별	남성	8 2.6%	46 15.0%	108 35.2%	97 31.6%	48 15.6%	307 100.0%	54 17.6%	145 47.2%
	여성	5 1.5%	43 12.8%	151 45.1%	106 31.6%	30 9.0%	335 100.0%	48 14.3%	136 40.6%
연령	20대 이하	4 2.8%	26 18.4%	73 51.8%	32 22.7%	6 4.3%	141 100.0%	30 21.3%	38 27.0%
	30대	4 3.0%	16 11.9%	49 36.6%	44 32.8%	21 15.7%	134 100.0%	20 14.9%	65 48.5%
	40대	3 2.5%	19 15.6%	51 41.8%	33 27.0%	16 13.1%	122 100.0%	22 18.0%	49 40.2%
	50대	1 0.8%	14 10.5%	36 27.1%	61 45.9%	21 15.8%	133 100.0%	15 11.3%	82 61.7%
	60대 이상	1 0.9%	14 12.5%	50 44.6%	33 29.5%	14 12.5%	112 100.0%	15 13.4%	47 42.0%
학력	고졸 이하	1 1.1%	12 12.8%	29 30.9%	35 37.2%	17 18.1%	94 100.0%	13 13.8%	52 55.3%
	대졸(재학포함)	10 2.3%	58 13.2%	191 43.5%	132 30.1%	48 10.9%	439 100.0%	68 15.5%	180 41.0%
	대학원 이상	2 1.8%	19 17.4%	39 35.8%	36 33.0%	13 11.9%	109 100.0%	21 19.3%	49 45.0%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6 9.2%	38 58.5%	17 26.2%	4 6.2%	65 100.0%	6 9.2%	21 32.3%
	201~400만원	4 1.8%	35 16.0%	85 38.8%	64 29.2%	31 14.2%	219 100.0%	39 17.8%	95 43.4%
	401~600만원	5 2.8%	23 12.8%	64 35.8%	62 34.6%	25 14.0%	179 100.0%	28 15.6%	87 48.6%
	601만원 이상	4 2.2%	25 14.0%	72 40.2%	60 33.5%	18 10.1%	179 100.0%	29 16.2%	78 43.6%
직업	자영업	0 0.0%	6 15.4%	13 33.3%	13 33.3%	7 17.9%	39 100.0%	6 15.4%	20 51.3%
	블루칼라	2 2.2%	16 17.8%	30 33.3%	26 28.9%	16 17.8%	90 100.0%	18 20.0%	42 46.7%
	화이트칼라	10 3.0%	45 13.4%	138 41.1%	108 32.1%	35 10.4%	336 100.0%	55 16.4%	143 42.6%
	주부	1 1.0%	12 12.5%	44 45.8%	31 32.3%	8 8.3%	96 100.0%	13 13.5%	39 40.6%
	학생	0 0.0%	9 23.1%	20 51.3%	7 17.9%	3 7.7%	39 100.0%	9 23.1%	10 25.6%
	무직/기타	0 0.0%	1 2.4%	14 33.3%	18 42.9%	9 21.4%	42 100.0%	1 2.4%	27 64.3%

8. 공정한 판단과 결정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77명(12.0%),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329명(51.2%), ‘보통’ 응답은 236명(36.8%)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3.7%)와 잘한 편이다(8.3%)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48.8%로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5점 척도 환산점은 2.44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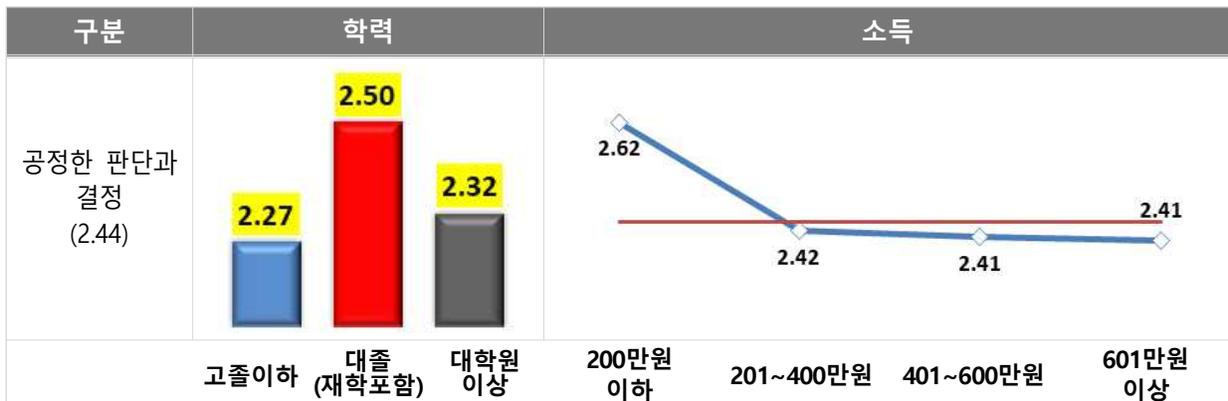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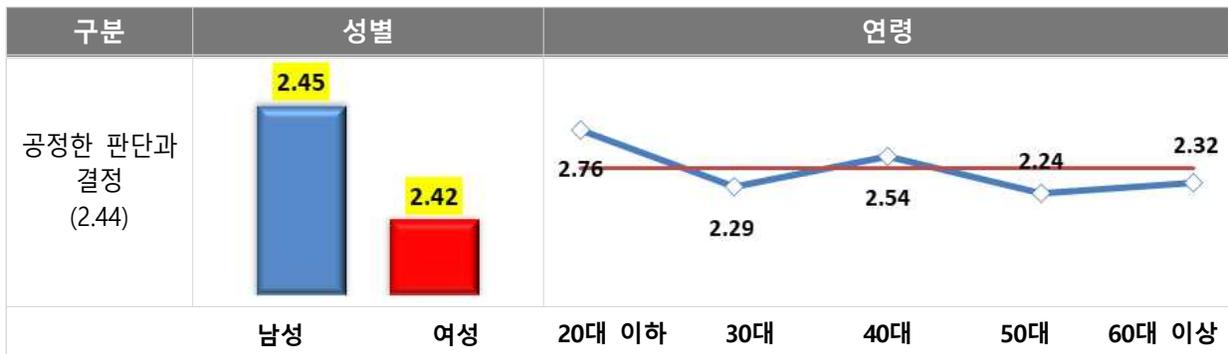
【 그림 II-14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2.45점)가 여성 응답자(2.66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5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고졸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타 소득 구간 응답자의 평가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집계됨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북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는 2.10점으로 가장 부정적임



【 표 II-8 】 공정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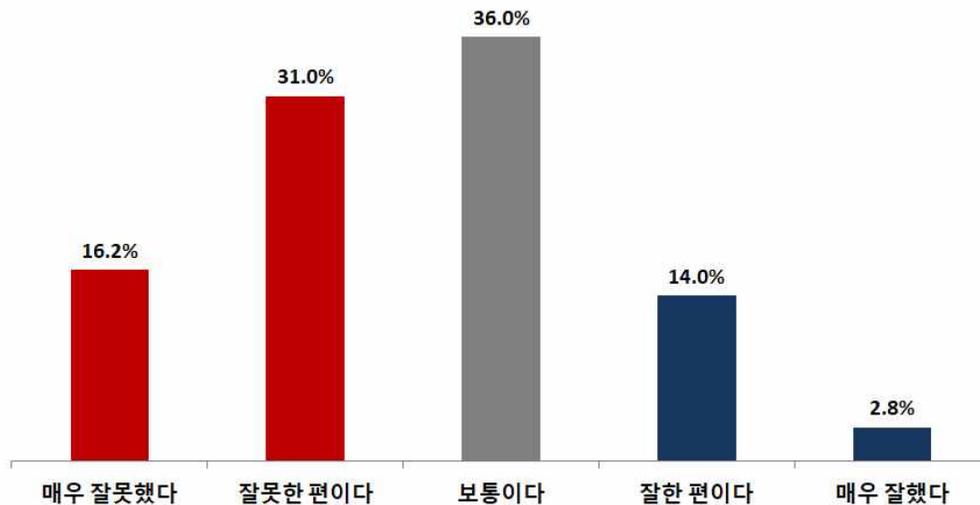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집단 답변	부정 집단 답변
전체		24 3.7%	53 8.3%	236 36.8%	195 30.4%	134 20.9%	642 100.0%	77 12.0%	329 51.2%
권역	도심권	0 0.0%	1 3.1%	10 31.3%	14 43.8%	7 21.9%	32 100.0%	1 3.1%	21 65.6%
	동북권	4 2.1%	19 9.8%	83 43.0%	48 24.9%	39 20.2%	193 100.0%	23 11.9%	87 45.1%
	서북권	2 2.7%	5 6.8%	29 39.2%	22 29.7%	16 21.6%	74 100.0%	7 9.5%	38 51.4%
	서남권	15 7.5%	15 7.5%	57 28.4%	69 34.3%	45 22.4%	201 100.0%	30 14.9%	114 56.7%
	동남권	3 2.1%	13 9.2%	57 40.1%	42 29.6%	27 19.0%	142 100.0%	16 11.3%	69 48.6%
성별	남성	12 3.9%	35 11.4%	107 34.9%	79 25.7%	74 24.1%	307 100.0%	47 15.3%	153 49.8%
	여성	12 3.6%	18 5.4%	129 38.5%	116 34.6%	60 17.9%	335 100.0%	30 9.0%	176 52.5%
연령	20대 이하	9 6.4%	16 11.3%	66 46.8%	32 22.7%	18 12.8%	141 100.0%	25 17.7%	50 35.5%
	30대	4 3.0%	7 5.2%	46 34.3%	44 32.8%	33 24.6%	134 100.0%	11 8.2%	77 57.5%
	40대	7 5.7%	14 11.5%	39 32.0%	40 32.8%	22 18.0%	122 100.0%	21 17.2%	62 50.8%
	50대	3 2.3%	6 4.5%	45 33.8%	45 33.8%	34 25.6%	133 100.0%	9 6.8%	79 59.4%
	60대 이상	1 0.9%	10 8.9%	40 35.7%	34 30.4%	27 24.1%	112 100.0%	11 9.8%	61 54.5%
학력	고졸 이하	1 1.1%	5 5.3%	34 36.2%	32 34.0%	22 23.4%	94 100.0%	6 6.4%	54 57.4%
	대졸(재학포함)	19 4.3%	36 8.2%	172 39.2%	131 29.8%	81 18.5%	439 100.0%	55 12.5%	212 48.3%
	대학원 이상	4 3.7%	12 11.0%	30 27.5%	32 29.4%	31 28.4%	109 100.0%	16 14.7%	63 57.8%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6 9.2%	34 52.3%	19 29.2%	6 9.2%	65 100.0%	6 9.2%	25 38.5%
	201~400만원	13 5.9%	11 5.0%	79 36.1%	69 31.5%	47 21.5%	219 100.0%	24 11.0%	116 53.0%
	401~600만원	4 2.2%	16 8.9%	61 34.1%	67 37.4%	31 17.3%	179 100.0%	20 11.2%	98 54.7%
	601만원 이상	7 3.9%	20 11.2%	62 34.6%	40 22.3%	50 27.9%	179 100.0%	27 15.1%	90 50.3%
직업	자영업	0 0.0%	5 12.8%	16 41.0%	7 17.9%	11 28.2%	39 100.0%	5 12.8%	18 46.2%
	블루칼라	4 4.4%	7 7.8%	31 34.4%	32 35.6%	16 17.8%	90 100.0%	11 12.2%	48 53.3%
	화이트칼라	19 5.7%	27 8.0%	130 38.7%	90 26.8%	70 20.8%	336 100.0%	46 13.7%	160 47.6%
	주부	1 1.0%	6 6.3%	29 30.2%	40 41.7%	20 20.8%	96 100.0%	7 7.3%	60 62.5%
	학생	0 0.0%	7 17.9%	17 43.6%	9 23.1%	6 15.4%	39 100.0%	7 17.9%	15 38.5%
	무직/기타	0 0.0%	1 2.4%	13 31.0%	17 40.5%	11 26.2%	42 100.0%	1 2.4%	28 66.7%

9.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08명 (16.8%),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은 303명(47.2%), ‘보통’ 응답은 231명 (36.0%)으로 나타남
 - 매우 잘했다(2.8%)와 잘한 편이다(14.0%)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2.8%로 나타남
- 5점 척도 환산점은 2.5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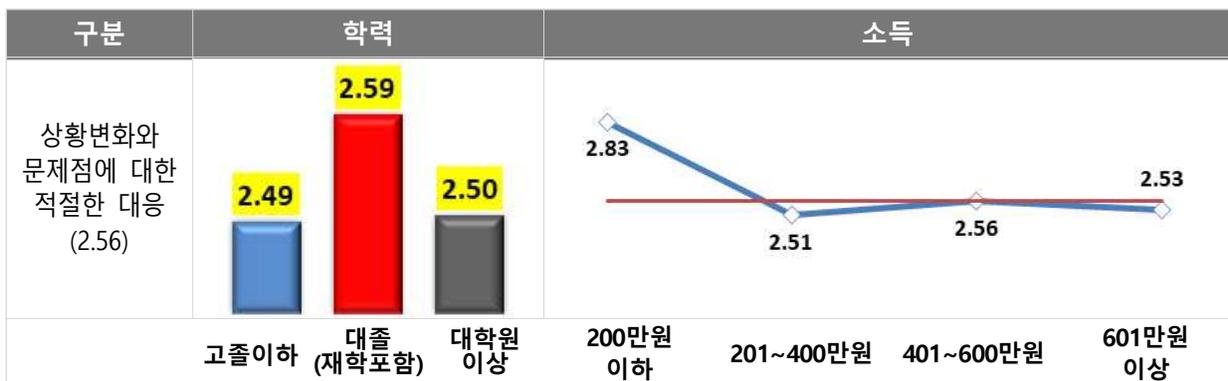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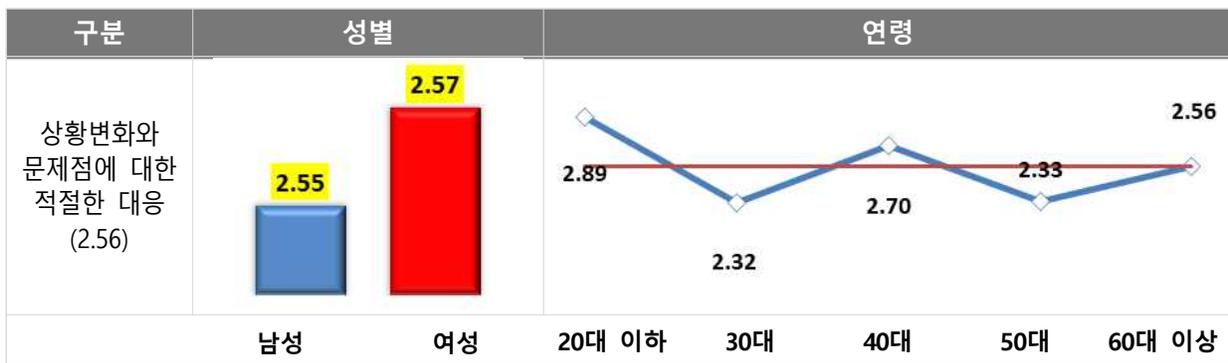
【 그림 II-15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2.57점)가 남성 응답자(2.55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대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고졸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 201~400만원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북권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심권 응답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무직/기타 응답자는 2.40점으로 가장 부정적임



【 표 II-9 】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단위: 명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전체	긍정 집단	부정 집단
전체		18 2.8	90 14.0	231 36.0	199 31.0	104 16.2	642 100.0	108 16.8	303 47.2
권역	도심권	0 0.0%	4 12.5%	11 34.4%	10 31.3%	7 21.9%	32 100.0%	4 12.5%	17 53.1%
	동북권	3 1.6%	31 16.1%	77 39.9%	52 26.9%	30 15.5%	193 100.0%	34 17.6%	82 42.5%
	서북권	3 4.1%	10 13.5%	28 37.8%	23 31.1%	10 13.5%	74 100.0%	13 17.6%	33 44.6%
	서남권	11 5.5%	23 11.4%	63 31.3%	66 32.8%	38 18.9%	201 100.0%	34 16.9%	104 51.7%
	동남권	1 0.7%	22 15.5%	52 36.6%	48 33.8%	19 13.4%	142 100.0%	23 16.2%	67 47.2%
성별	남성	9 2.9%	51 16.6%	102 33.2%	83 27.0%	62 20.2%	307 100.0%	60 19.5%	145 47.2%
	여성	9 2.7%	39 11.6%	129 38.5%	116 34.6%	42 12.5%	335 100.0%	48 14.3%	158 47.2%
연령	20대 이하	4 2.8%	28 19.9%	69 48.9%	29 20.6%	11 7.8%	141 100.0%	32 22.7%	40 28.4%
	30대	5 3.7%	9 6.7%	41 30.6%	48 35.8%	31 23.1%	134 100.0%	14 10.4%	79 59.0%
	40대	7 5.7%	21 17.2%	42 34.4%	32 26.2%	20 16.4%	122 100.0%	28 23.0%	52 42.6%
	50대	2 1.5%	12 9.0%	41 30.8%	51 38.3%	27 20.3%	133 100.0%	14 10.5%	78 58.6%
	60대 이상	0 0.0%	20 17.9%	38 33.9%	39 34.8%	15 13.4%	112 100.0%	20 17.9%	54 48.2%
학력	고졸 이하	1 1.1%	14 14.9%	32 34.0%	30 31.9%	17 18.1%	94 100.0%	15 16.0%	47 50.0%
	대졸(재학포함)	13 3.0%	61 13.9%	164 37.4%	137 31.2%	64 14.6%	439 100.0%	74 16.9%	201 45.8%
	대학원 이상	4 3.7%	15 13.8%	35 32.1%	32 29.4%	23 21.1%	109 100.0%	19 17.4%	55 50.5%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10 15.4%	37 56.9%	15 23.1%	3 4.6%	65 100.0%	10 15.4%	18 27.7%
	201~400만원	6 2.7%	28 12.8%	77 35.2%	69 31.5%	39 17.8%	219 100.0%	34 15.5%	108 49.3%
	401~600만원	7 3.9%	24 13.4%	58 32.4%	63 35.2%	27 15.1%	179 100.0%	31 17.3%	90 50.3%
	601만원 이상	5 2.8%	28 15.6%	59 33.0%	52 29.1%	35 19.6%	179 100.0%	33 18.4%	87 48.6%
직업	자영업	1 2.6%	8 20.5%	15 38.5%	8 20.5%	7 17.9%	39 100.0%	9 23.1%	15 38.5%
	블루칼라	2 2.2%	9 10.0%	32 35.6%	28 31.1%	19 21.1%	90 100.0%	11 12.2%	47 52.2%
	화이트칼라	14 4.2%	45 13.4%	123 36.6%	96 28.6%	58 17.3%	336 100.0%	59 17.6%	154 45.8%
	주부	1 1.0%	11 11.5%	35 36.5%	39 40.6%	10 10.4%	96 100.0%	12 12.5%	49 51.0%
	학생	0 0.0%	10 25.6%	16 41.0%	10 25.6%	3 7.7%	39 100.0%	10 25.6%	13 33.3%
	무직/기타	0 0.0%	7 16.7%	10 23.8%	18 42.9%	7 16.7%	42 100.0%	7 16.7%	25 59.5%

PART

III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위상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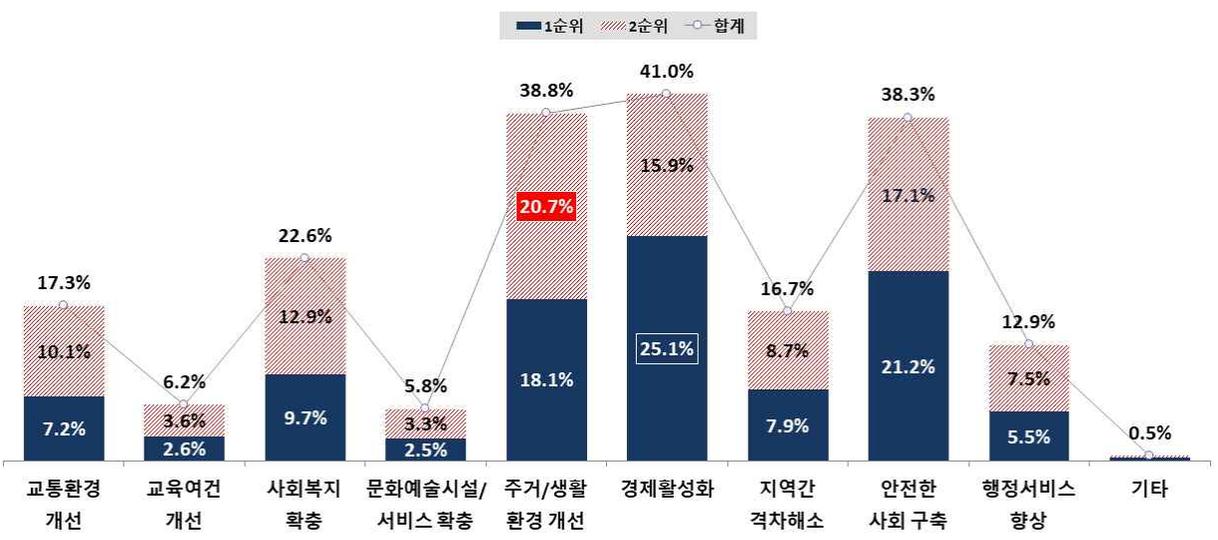
1.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
2.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
3.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
4. 의정정보 인지경로
5.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
6.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

1.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민은 1순위로 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구축을, 2순위로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응답함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경제활성화(41.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38.8%)과 안전한 사회 구축(3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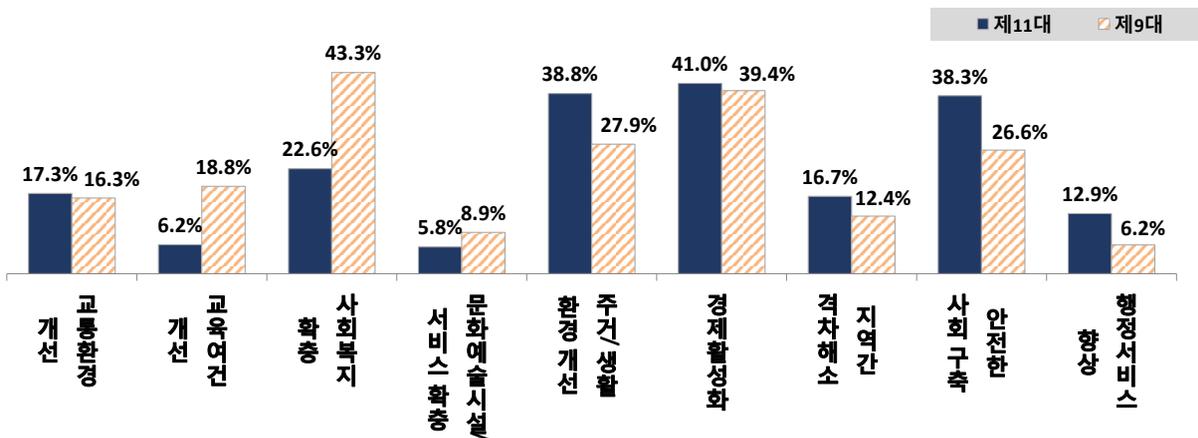
【 그림 III-1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대한 응답은 크게 증가함
-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제9대와 제11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III-2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경제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28.1%), 동남권(27.5%), 20대 이하(31.2%), 고졸 이하(33.0%), 학생(33.3%)과 자영업(3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안전한 사회 구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북권(24.4%), 40대(25.4%), 월평균 가구소득이 401~600만원인 집단(2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북권(18.7%), 동남권(18.3%), 여성(19.4%), 30대 이하(24.6%), 대졸(19.6%), 주부(2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II-1 】 역점 추진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교통 환경 개선	교육 여건 개선	사회 복지 확충	문화예술 시설·서비스 확충	주거/ 생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전한 사회 구축	행정 서비스 향상	기타	합계
전체		46 7.2%	17 2.6%	62 9.7%	16 2.5%	116 18.1%	161 25.1%	51 7.9%	136 21.2%	35 5.5%	2 0.3%	642 100.0%
구 역	도심권	0 0.0%	0 0.0%	2 6.3%	2 6.3%	5 15.6%	9 28.1%	3 9.4%	7 21.9%	4 12.5%	0 0.0%	32 100.0%
	동북권	16 8.3%	4 2.1%	14 7.3%	7 3.6%	36 18.7%	49 25.4%	16 8.3%	47 24.4%	4 2.1%	0 0.0%	193 100.0%
	서북권	6 8.1%	0 0.0%	11 14.9%	3 4.1%	13 17.6%	13 17.6%	9 12.2%	13 17.6%	4 5.4%	2 2.7%	74 100.0%
	서남권	12 6.0%	6 3.0%	20 10.0%	4 2.0%	36 17.9%	51 25.4%	13 6.5%	44 21.9%	15 7.5%	0 0.0%	201 100.0%
	동남권	12 8.5%	7 4.9%	15 10.6%	0 0.0%	26 18.3%	39 27.5%	10 7.0%	25 17.6%	8 5.6%	0 0.0%	142 100.0%
성 별	남성	29 9.4%	9 2.9%	25 8.1%	10 3.3%	51 16.6%	76 24.8%	24 7.8%	61 19.9%	22 7.2%	0 0.0%	307 100.0%
	여성	17 5.1%	8 2.4%	37 11.0%	6 1.8%	65 19.4%	85 25.4%	27 8.1%	75 22.4%	13 3.9%	2 0.6%	335 100.0%
연 령	20대 이하	15 10.6%	2 1.4%	7 5.0%	8 5.7%	22 15.6%	44 31.2%	13 9.2%	24 17.0%	6 4.3%	0 0.0%	141 100.0%
	30대	14 10.4%	6 4.5%	12 9.0%	5 3.7%	33 24.6%	24 17.9%	10 7.5%	25 18.7%	5 3.7%	0 0.0%	134 100.0%
	40대	10 8.2%	4 3.3%	13 10.7%	2 1.6%	20 16.4%	24 19.7%	11 9.0%	31 25.4%	7 5.7%	0 0.0%	122 100.0%
	50대	4 3.0%	4 3.0%	18 13.5%	1 0.8%	18 13.5%	38 28.6%	7 5.3%	30 22.6%	11 8.3%	2 1.5%	133 100.0%
	60대 이상	3 2.7%	1 0.9%	12 10.7%	0 0.0%	23 20.5%	31 27.7%	10 8.9%	26 23.2%	6 5.4%	0 0.0%	112 100.0%
학 력	고졸 이하	4 4.3%	2 2.1%	9 9.6%	1 1.1%	15 16.0%	31 33.0%	5 5.3%	19 20.2%	8 8.5%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26 5.9%	14 3.2%	41 9.3%	12 2.7%	86 19.6%	108 24.6%	33 7.5%	95 21.6%	22 5.0%	2 0.5%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6 14.7%	1 0.9%	12 11.0%	3 2.8%	15 13.8%	22 20.2%	13 11.9%	22 20.2%	5 4.6%	0 0.0%	109 100.0%
소 득	200만원 이하	2 3.1%	2 3.1%	11 16.9%	4 6.2%	11 16.9%	11 16.9%	4 6.2%	9 13.8%	9 13.8%	2 3.1%	65 100.0%
	201~400만원	18 8.2%	6 2.7%	18 8.2%	7 3.2%	43 19.6%	59 26.9%	15 6.8%	44 20.1%	9 4.1%	0 0.0%	219 100.0%
	401~600만원	10 5.6%	4 2.2%	16 8.9%	2 1.1%	30 16.8%	54 30.2%	13 7.3%	46 25.7%	4 2.2%	0 0.0%	179 100.0%
	601만원 이상	16 8.9%	5 2.8%	17 9.5%	3 1.7%	32 17.9%	37 20.7%	19 10.6%	37 20.7%	13 7.3%	0 0.0%	179 100.0%
직 업	자영업	2 5.1%	0 0.0%	7 17.9%	0 0.0%	3 7.7%	12 30.8%	7 17.9%	7 17.9%	1 2.6%	0 0.0%	39 100.0%
	블루칼라	5 5.6%	2 2.2%	14 15.6%	5 5.6%	11 12.2%	20 22.2%	5 5.6%	18 20.0%	10 11.1%	0 0.0%	90 100.0%
	화이트칼라	31 9.2%	12 3.6%	26 7.7%	7 2.1%	61 18.2%	85 25.3%	27 8.0%	71 21.1%	14 4.2%	2 0.6%	336 100.0%
	주부	3 3.1%	2 2.1%	11 11.5%	2 2.1%	24 25.0%	22 22.9%	8 8.3%	21 21.9%	3 3.1%	0 0.0%	96 100.0%
	학생	1 2.6%	1 2.6%	3 7.7%	2 5.1%	7 17.9%	13 33.3%	3 7.7%	9 23.1%	0 0.0%	0 0.0%	39 100.0%
	무직/기타	4 9.5%	0 0.0%	1 2.4%	0 0.0%	10 23.8%	9 21.4%	1 2.4%	10 23.8%	7 16.7%	0 0.0%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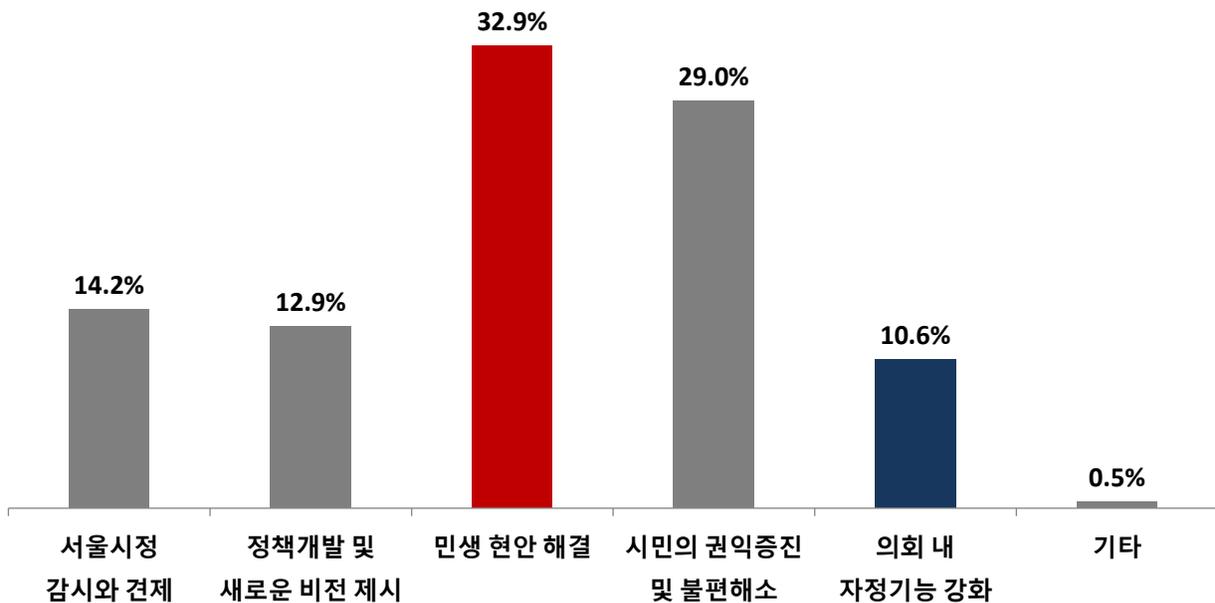
※ 특성별 분석은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생현안 해결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2.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의회 내 자정기능 강화는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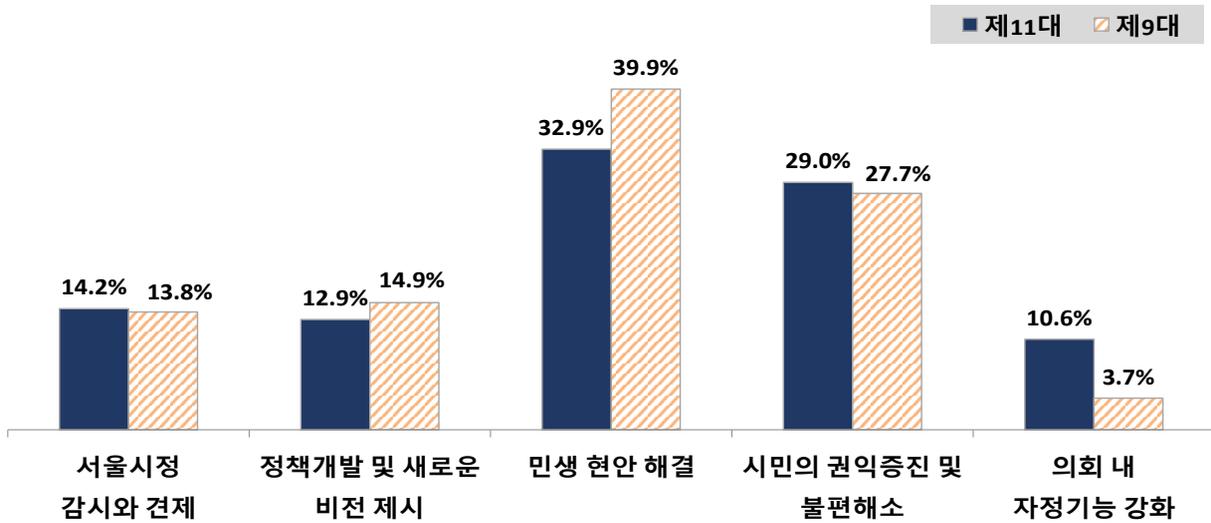
【 그림 III-3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민생현안 해결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의회 내 자정기능 강화에 대한 응답은 증가함

【 그림 III-4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40.6%), 여성(36.1%), 50대(36.8%), 고졸이하(37.2%),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초과인 집단(34.6%), 블루칼라(4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II-2 】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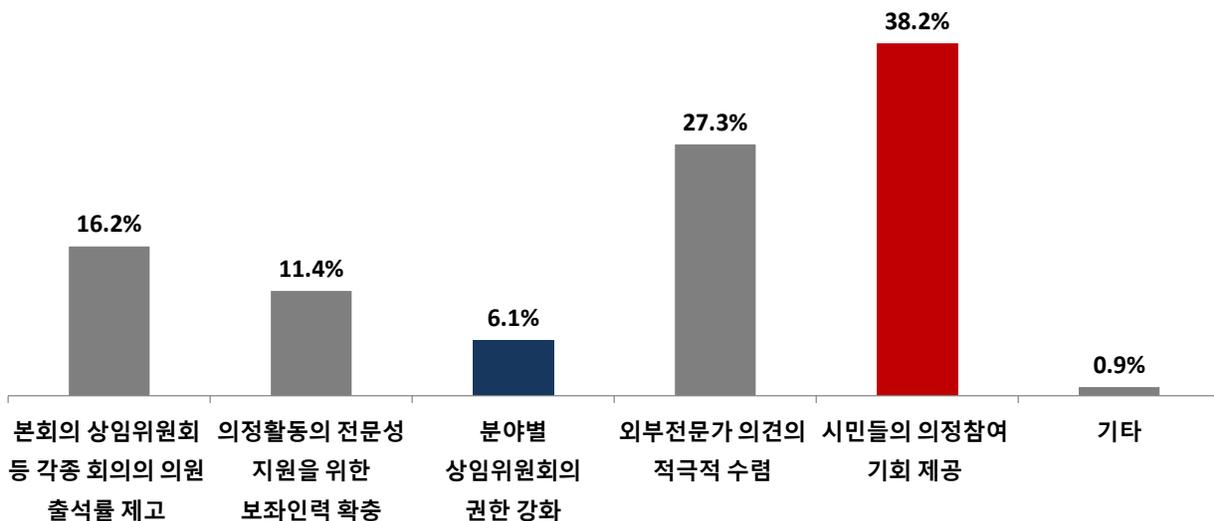
		서울시정 감시와 견제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민생 현안 해결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의회 내 자정기능 강화	기타	합계
전체		91 14.2%	83 12.9%	211 32.9%	186 29.0%	68 10.6%	3 0.5%	642 100.0%
구 역	도심권	3 9.4%	1 3.1%	13 40.6%	9 28.1%	6 18.8%	0 0.0%	32 100.0%
	동북권	29 15.0%	28 14.5%	62 32.1%	57 29.5%	17 8.8%	0 0.0%	193 100.0%
	서북권	14 18.9%	9 12.2%	18 24.3%	23 31.1%	7 9.5%	3 4.1%	74 100.0%
	서남권	22 10.9%	32 15.9%	67 33.3%	60 29.9%	20 10.0%	0 0.0%	201 100.0%
	동남권	23 16.2%	13 9.2%	51 35.9%	37 26.1%	18 12.7%	0 0.0%	142 100.0%
성 별	남성	52 16.9%	49 16.0%	90 29.3%	84 27.4%	31 10.1%	1 0.3%	307 100.0%
	여성	39 11.6%	34 10.1%	121 36.1%	102 30.4%	37 11.0%	2 0.6%	335 100.0%
연 령	20대 이하	12 8.5%	27 19.1%	48 34.0%	46 32.6%	8 5.7%	0 0.0%	141 100.0%
	30대	16 11.9%	12 9.0%	48 35.8%	48 35.8%	10 7.5%	0 0.0%	134 100.0%
	40대	21 17.2%	9 7.4%	42 34.4%	35 28.7%	15 12.3%	0 0.0%	122 100.0%
	50대	25 18.8%	14 10.5%	49 36.8%	32 24.1%	10 7.5%	3 2.3%	133 100.0%
	60대 이상	17 15.2%	21 18.8%	24 21.4%	25 22.3%	25 22.3%	0 0.0%	112 100.0%
학 력	고졸 이하	12 12.8%	16 17.0%	35 37.2%	20 21.3%	11 11.7%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61 13.9%	53 12.1%	139 31.7%	141 32.1%	43 9.8%	2 0.5%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8 16.5%	14 12.8%	37 33.9%	25 22.9%	14 12.8%	1 0.9%	109 100.0%
수 익	200만원 이하	5 7.7%	9 13.8%	22 33.8%	22 33.8%	5 7.7%	2 3.1%	65 100.0%
	201~400만원	29 13.2%	37 16.9%	69 31.5%	65 29.7%	19 8.7%	0 0.0%	219 100.0%
	401~600만원	23 12.8%	20 11.2%	58 32.4%	51 28.5%	27 15.1%	0 0.0%	179 100.0%
	601만원 이상	34 19.0%	17 9.5%	62 34.6%	48 26.8%	17 9.5%	1 0.6%	179 100.0%
직 업	자영업	10 25.6%	9 23.1%	5 12.8%	14 35.9%	1 2.6%	0 0.0%	39 100.0%
	블루칼라	14 15.6%	7 7.8%	37 41.1%	27 30.0%	4 4.4%	1 1.1%	90 100.0%
	화이트칼라	45 13.4%	46 13.7%	115 34.2%	88 26.2%	40 11.9%	2 0.6%	336 100.0%
	주부	13 13.5%	8 8.3%	33 34.4%	28 29.2%	14 14.6%	0 0.0%	96 100.0%
	학생	3 7.7%	7 17.9%	13 33.3%	14 35.9%	2 5.1%	0 0.0%	39 100.0%
	무직/기타	6 14.3%	6 14.3%	8 19.0%	15 35.7%	7 16.7%	0 0.0%	42 100.0%

3.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8.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6.1%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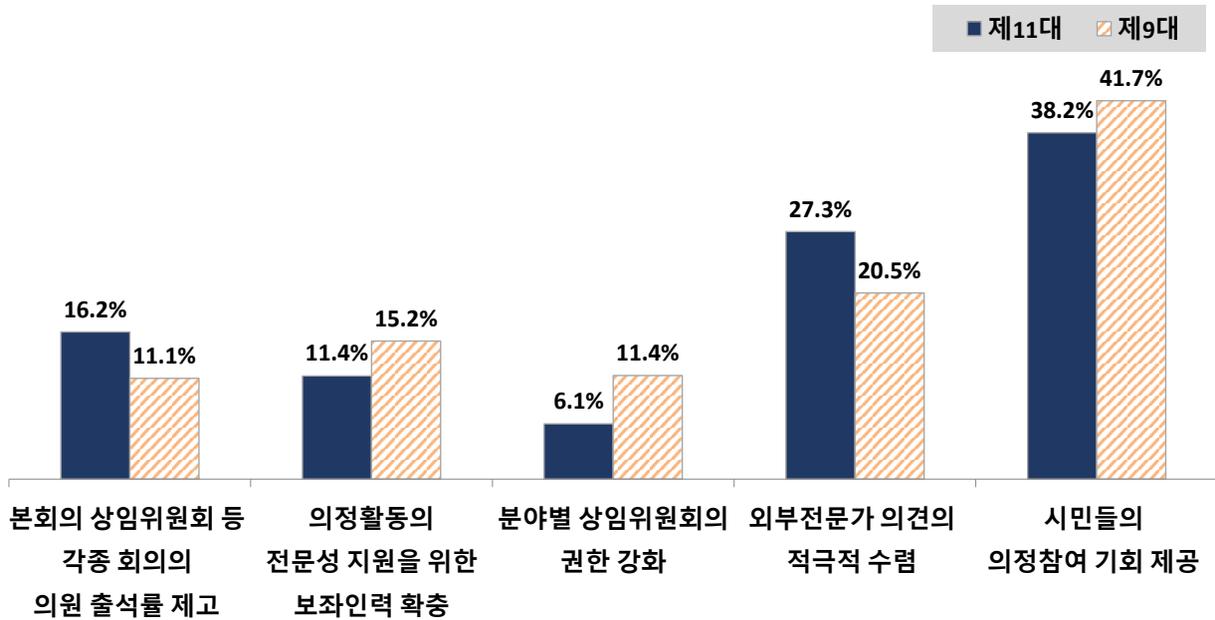
【 그림 III-5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외부전문가 의견의 적극적 수렴에 대한 응답은 가장 크게 증가함

【 그림 III-6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53.1%), 여성(40.0%), 40대(49.2%), 고졸 이하(40.4%),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초과인 집단(39.1%), 자영업(4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Ⅲ-3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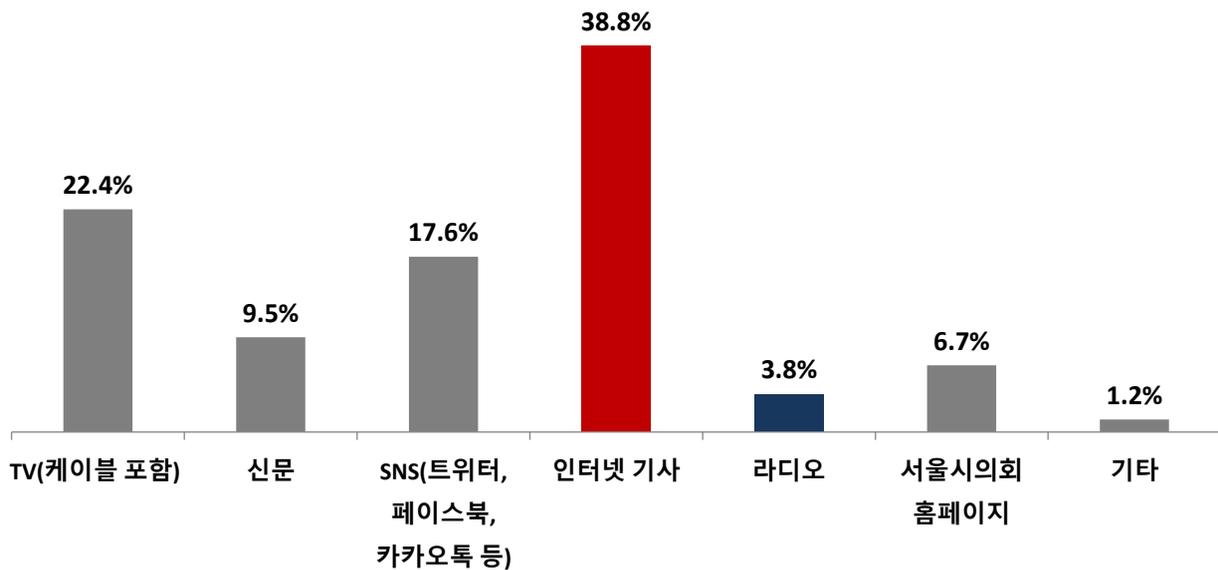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원 출석률 제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을 위한 보좌인력 확충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	외부전문가 의견의 적극적 수렴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 제공	기타	합계
전체		104 16.2%	73 11.4%	39 6.1%	175 27.3%	245 38.2%	6 0.9%	642 100.0%
지역	도심권	5 15.6%	1 3.1%	3 9.4%	6 18.8%	17 53.1%	0 0.0%	32 100.0%
	동북권	29 15.0%	27 14.0%	13 6.7%	55 28.5%	68 35.2%	1 0.5%	193 100.0%
	서북권	15 20.3%	7 9.5%	7 9.5%	12 16.2%	30 40.5%	3 4.1%	74 100.0%
	서남권	29 14.4%	18 9.0%	7 3.5%	72 35.8%	74 36.8%	1 0.5%	201 100.0%
	동남권	26 18.3%	20 14.1%	9 6.3%	30 21.1%	56 39.4%	1 0.7%	142 100.0%
성별	남성	52 16.9%	30 9.8%	23 7.5%	90 29.3%	111 36.2%	1 0.3%	307 100.0%
	여성	52 15.5%	43 12.8%	16 4.8%	85 25.4%	134 40.0%	5 1.5%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25 17.7%	14 9.9%	10 7.1%	45 31.9%	47 33.3%	0 0.0%	141 100.0%
	30대	27 20.1%	23 17.2%	7 5.2%	35 26.1%	42 31.3%	0 0.0%	134 100.0%
	40대	14 11.5%	12 9.8%	7 5.7%	27 22.1%	60 49.2%	2 1.6%	122 100.0%
	50대	20 15.0%	13 9.8%	6 4.5%	38 28.6%	52 39.1%	4 3.0%	133 100.0%
	60대 이상	18 16.1%	11 9.8%	9 8.0%	30 26.8%	44 39.3%	0 0.0%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14 14.9%	10 10.6%	12 12.8%	20 21.3%	38 40.4%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67 15.3%	48 10.9%	21 4.8%	131 29.8%	167 38.0%	5 1.1%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23 21.1%	15 13.8%	6 5.5%	24 22.0%	40 36.7%	1 0.9%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7 10.8%	16 24.6%	4 6.2%	16 24.6%	20 30.8%	2 3.1%	65 100.0%
	201~400만원	37 16.9%	21 9.6%	15 6.8%	59 26.9%	85 38.8%	2 0.9%	219 100.0%
	401~600만원	25 14.0%	22 12.3%	14 7.8%	47 26.3%	70 39.1%	1 0.6%	179 100.0%
	601만원 이상	35 19.6%	14 7.8%	6 3.4%	53 29.6%	70 39.1%	1 0.6%	179 100.0%
직업	자영업	4 10.3%	0 0.0%	5 12.8%	12 30.8%	17 43.6%	1 2.6%	39 100.0%
	블루칼라	12 13.3%	11 12.2%	6 6.7%	28 31.1%	32 35.6%	1 1.1%	90 100.0%
	화이트칼라	57 17.0%	35 10.4%	17 5.1%	96 28.6%	128 38.1%	3 0.9%	336 100.0%
	주부	18 18.8%	16 16.7%	5 5.2%	15 15.6%	41 42.7%	1 1.0%	96 100.0%
	학생	7 17.9%	7 17.9%	2 5.1%	14 35.9%	9 23.1%	0 0.0%	39 100.0%
	무직/기타	6 14.3%	4 9.5%	4 9.5%	10 23.8%	18 42.9%	0 0.0%	42 100.0%

4. 의정정보 인지경로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평소 서울시의회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 기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8.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주로 라디오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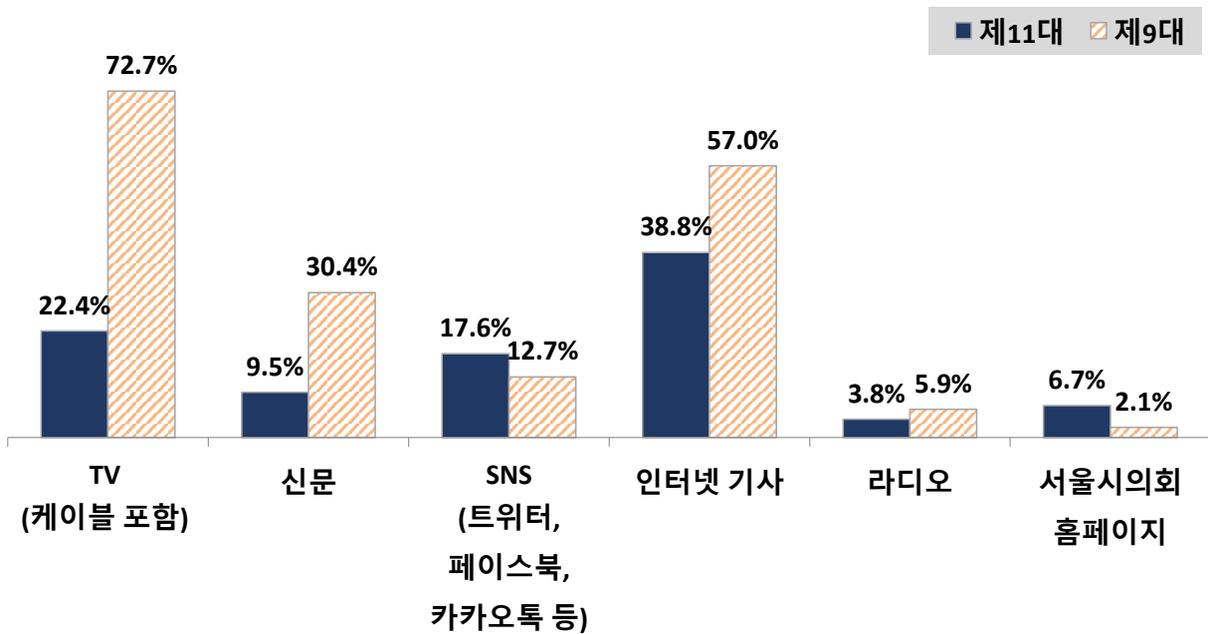
【 그림 III-7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TV, 신문, 인터넷기사, 라디오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SNS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응답은 증가함

【 그림 III-8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의회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 기사로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50.0%), 여성(49.6%), 40대(54.9%), 대학원 재학 이상(51.4%), 월평균 가구소득이 401만원 초과 600만원 미만인 집단(51.4%), 학생(5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II-4 】 의정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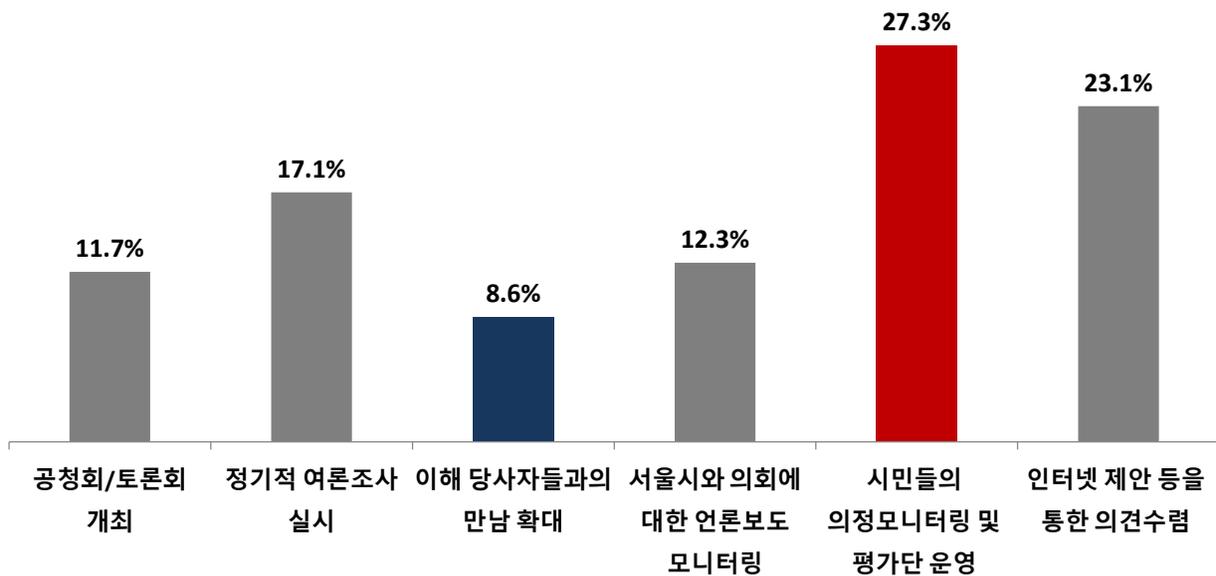
		TV (케이블 포함)	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기사	라디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기타	합계
전체		136 21.2%	50 7.8%	95 14.8%	293 45.6%	20 3.1%	40 6.2%	8 1.2%	642 100.0%
연령	도심권	7 21.9%	4 12.5%	5 15.6%	16 50.0%	0 0.0%	0 0.0%	0 0.0%	32 100.0%
	동북권	40 20.7%	15 7.8%	31 16.1%	88 45.6%	6 3.1%	10 5.2%	3 1.6%	193 100.0%
	서북권	12 16.2%	8 10.8%	8 10.8%	32 43.2%	5 6.8%	5 6.8%	4 5.4%	74 100.0%
	서남권	53 26.4%	7 3.5%	33 16.4%	90 44.8%	5 2.5%	13 6.5%	0 0.0%	201 100.0%
	동남권	24 16.9%	16 11.3%	18 12.7%	67 47.2%	4 2.8%	12 8.5%	1 0.7%	142 100.0%
성별	남성	63 20.5%	25 8.1%	55 17.9%	127 41.4%	15 4.9%	19 6.2%	3 1.0%	307 100.0%
	여성	73 21.8%	25 7.5%	40 11.9%	166 49.6%	5 1.5%	21 6.3%	5 1.5%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25 17.7%	13 9.2%	37 26.2%	60 42.6%	2 1.4%	4 2.8%	0 0.0%	141 100.0%
	30대	29 21.6%	8 6.0%	24 17.9%	56 41.8%	5 3.7%	8 6.0%	4 3.0%	134 100.0%
	40대	17 13.9%	13 10.7%	10 8.2%	67 54.9%	7 5.7%	6 4.9%	2 1.6%	122 100.0%
	50대	29 21.8%	6 4.5%	14 10.5%	64 48.1%	6 4.5%	13 9.8%	1 0.8%	133 100.0%
	60대 이상	36 32.1%	10 8.9%	10 8.9%	46 41.1%	0 0.0%	9 8.0%	1 0.9%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24 25.5%	10 10.6%	16 17.0%	34 36.2%	3 3.2%	6 6.4%	1 1.1%	94 100.0%
	대졸 (재학포함)	94 21.4%	28 6.4%	70 15.9%	203 46.2%	10 2.3%	28 6.4%	6 1.4%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8 16.5%	12 11.0%	9 8.3%	56 51.4%	7 6.4%	6 5.5%	1 0.9%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19 29.2%	1 1.5%	18 27.7%	23 35.4%	2 3.1%	2 3.1%	0 0.0%	65 100.0%
	201~400만원	59 26.9%	12 5.5%	35 16.0%	93 42.5%	7 3.2%	11 5.0%	2 0.9%	219 100.0%
	401~600만원	30 16.8%	11 6.1%	25 14.0%	92 51.4%	6 3.4%	11 6.1%	4 2.2%	179 100.0%
	601만원 이상	28 15.6%	26 14.5%	17 9.5%	85 47.5%	5 2.8%	16 8.9%	2 1.1%	179 100.0%
직업	자영업	10 25.6%	5 12.8%	7 17.9%	15 38.5%	0 0.0%	2 5.1%	0 0.0%	39 100.0%
	블루칼라	23 25.6%	9 10.0%	10 11.1%	39 43.3%	4 4.4%	5 5.6%	0 0.0%	90 100.0%
	화이트칼라	63 18.8%	22 6.5%	54 16.1%	151 44.9%	15 4.5%	26 7.7%	5 1.5%	336 100.0%
	주부	25 26.0%	7 7.3%	7 7.3%	48 50.0%	1 1.0%	7 7.3%	1 1.0%	96 100.0%
	학생	4 10.3%	6 15.4%	9 23.1%	20 51.3%	0 0.0%	0 0.0%	0 0.0%	39 100.0%
	무직/기타	11 26.2%	1 2.4%	8 19.0%	20 47.6%	0 0.0%	0 0.0%	2 4.8%	42 100.0%

5.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7.3%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이해당사자들과의 만남 확대는 8.6%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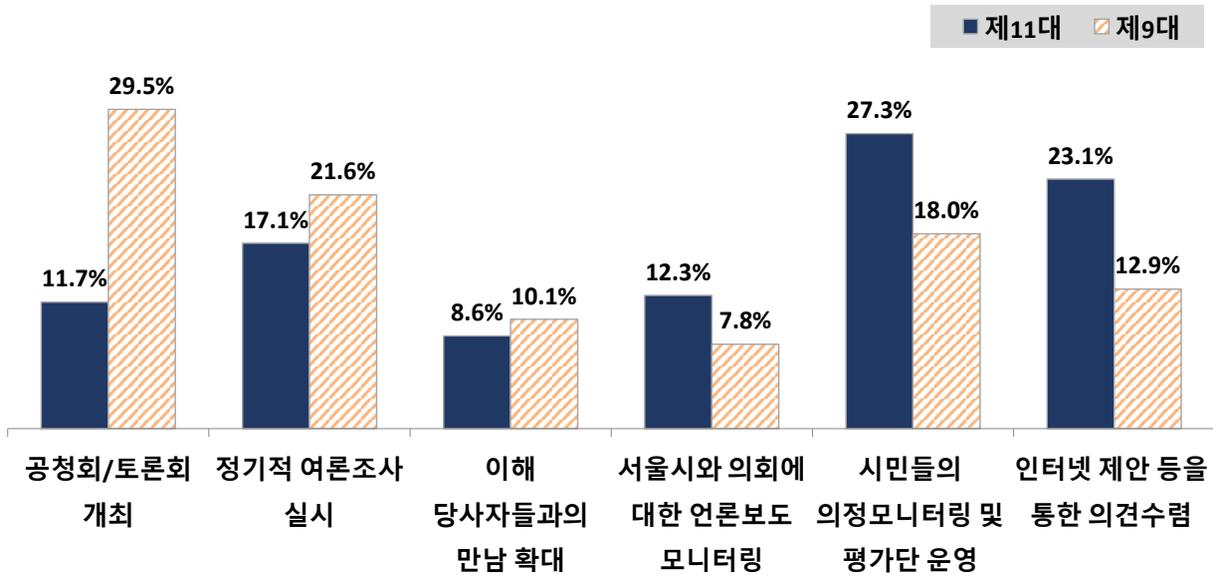
【 그림 III-9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 이해당사자들과의 만남 확대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서울시와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인터넷 제안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응답은 증가함

【 그림 III-10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방안은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34.4%), 여성(31.9%), 60대 이상(34.8%), 대졸(27.6%),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33.8%), 자영업(3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II-5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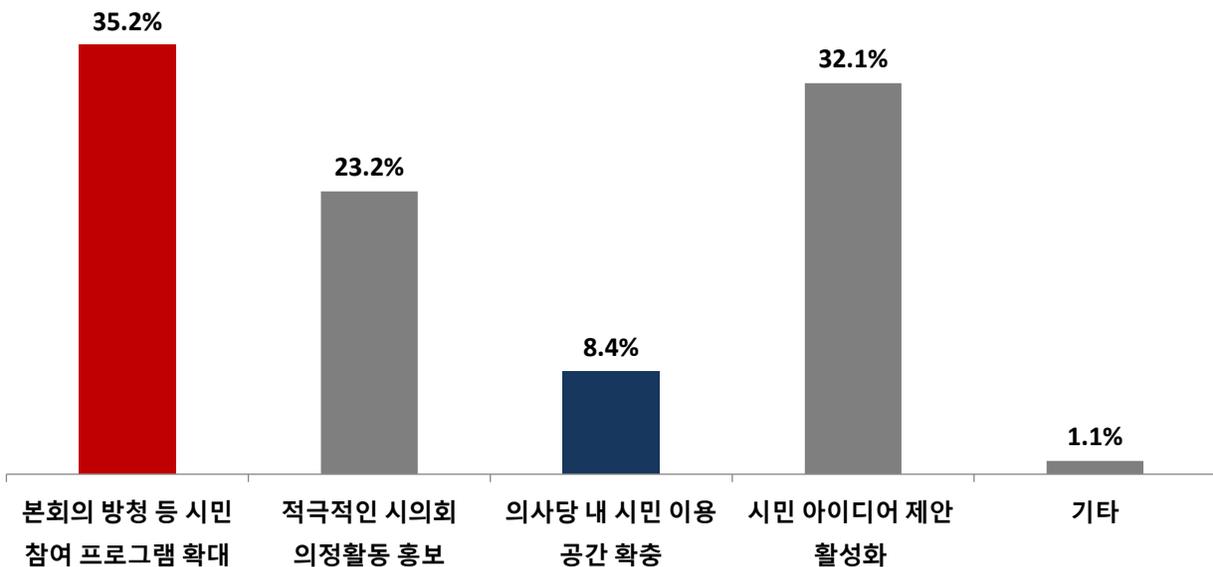
	공청회/ 토론회 개최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	이해 당사자들과의 만남 확대	서울시와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인터넷 제안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합계	
전체	75 11.7%	110 17.1%	55 8.6%	79 12.3%	175 27.3%	148 23.1%	642 100.0%	
연령	도심권	3 9.4%	5 15.6%	0 0.0%	3 9.4%	11 34.4%	10 31.3%	32 100.0%
	동북권	24 12.4%	33 17.1%	15 7.8%	28 14.5%	54 28.0%	39 20.2%	193 100.0%
	서북권	7 9.5%	18 24.3%	6 8.1%	11 14.9%	18 24.3%	14 18.9%	74 100.0%
	서남권	21 10.4%	28 13.9%	22 10.9%	25 12.4%	54 26.9%	51 25.4%	201 100.0%
	동남권	20 14.1%	26 18.3%	12 8.5%	12 8.5%	38 26.8%	34 23.9%	142 100.0%
별칭	남성	40 13.0%	47 15.3%	40 13.0%	37 12.1%	68 22.1%	75 24.4%	307 100.0%
	여성	35 10.4%	63 18.8%	15 4.5%	42 12.5%	107 31.9%	73 21.8%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16 11.3%	29 20.6%	17 12.1%	13 9.2%	30 21.3%	36 25.5%	141 100.0%
	30대	14 10.4%	17 12.7%	12 9.0%	14 10.4%	39 29.1%	38 28.4%	134 100.0%
	40대	12 9.8%	16 13.1%	9 7.4%	15 12.3%	37 30.3%	33 27.0%	122 100.0%
	50대	20 15.0%	25 18.8%	9 6.8%	21 15.8%	30 22.6%	28 21.1%	133 100.0%
	60대 이상	13 11.6%	23 20.5%	8 7.1%	16 14.3%	39 34.8%	13 11.6%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15 16.0%	24 25.5%	1 1.1%	15 16.0%	25 26.6%	14 14.9%	94 100.0%
	대졸 (재학포함)	46 10.5%	67 15.3%	48 10.9%	50 11.4%	121 27.6%	107 24.4%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4 12.8%	19 17.4%	6 5.5%	14 12.8%	29 26.6%	27 24.8%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7 10.8%	12 18.5%	6 9.2%	8 12.3%	22 33.8%	10 15.4%	65 100.0%
	201~400만원	26 11.9%	33 15.1%	23 10.5%	33 15.1%	50 22.8%	54 24.7%	219 100.0%
	401~600만원	17 9.5%	31 17.3%	12 6.7%	18 10.1%	59 33.0%	42 23.5%	179 100.0%
	601만원 이상	25 14.0%	34 19.0%	14 7.8%	20 11.2%	44 24.6%	42 23.5%	179 100.0%
직업	자영업	3 7.7%	8 20.5%	5 12.8%	3 7.7%	14 35.9%	6 15.4%	39 100.0%
	블루칼라	10 11.1%	20 22.2%	4 4.4%	10 11.1%	21 23.3%	25 27.8%	90 100.0%
	화이트칼라	39 11.6%	50 14.9%	33 9.8%	44 13.1%	87 25.9%	83 24.7%	336 100.0%
	주부	13 13.5%	18 18.8%	3 3.1%	16 16.7%	29 30.2%	17 17.7%	96 100.0%
	학생	4 10.3%	9 23.1%	6 15.4%	4 10.3%	9 23.1%	7 17.9%	39 100.0%
	무직/기타	6 14.3%	5 11.9%	4 9.5%	2 4.8%	15 35.7%	10 23.8%	42 100.0%

6.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본회의 방청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이사당 내 시민 이용공간 확충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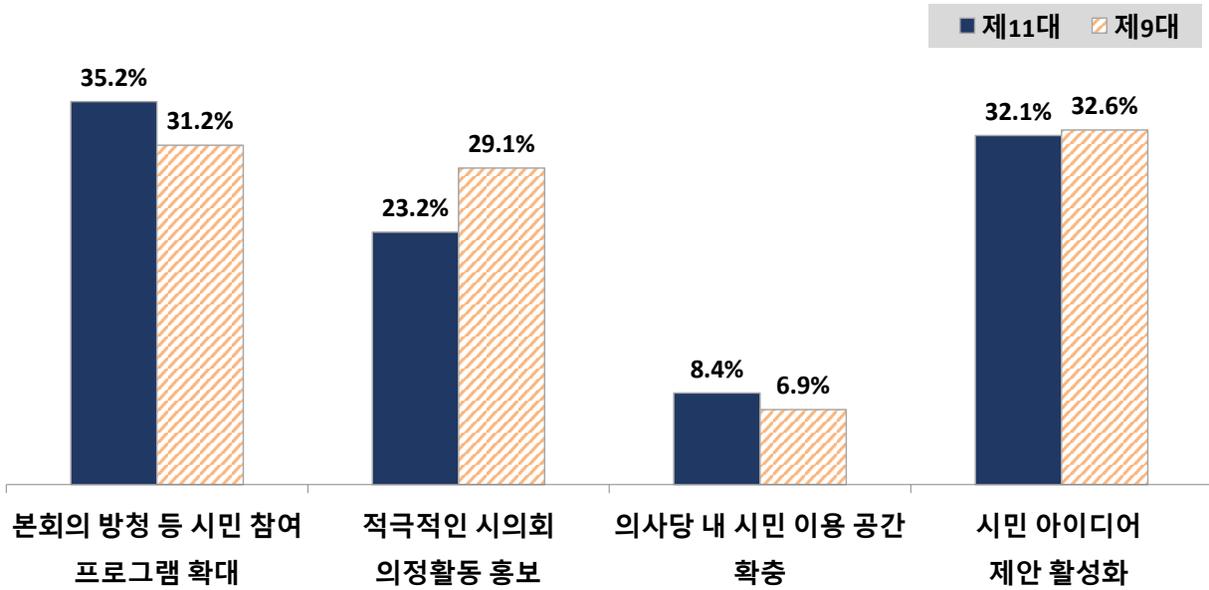
【 그림 III-11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의정활동의 시민 관심 및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본회의 방청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응답은 증가함

【 그림 III-12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본회의 방청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북권(44.6%), 여성(37.0%), 50대(43.6%), 고졸 이하(40.4%),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집단(37.4%), 주부(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II-6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본회의 방청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적극적인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의사당 내 시민 이용 공간 확충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기타	합계
전체		226 35.2%	149 23.2%	54 8.4%	206 32.1%	7 1.1%	642 100.0%
권역	도심권	8 25.0%	6 18.8%	9 28.1%	9 28.1%	0 0.0%	32 100.0%
	동북권	77 39.9%	48 24.9%	17 8.8%	50 25.9%	1 0.5%	193 100.0%
	서북권	33 44.6%	13 17.6%	7 9.5%	20 27.0%	1 1.4%	74 100.0%
	서남권	62 30.8%	55 27.4%	10 5.0%	73 36.3%	1 0.5%	201 100.0%
	동남권	46 32.4%	27 19.0%	11 7.7%	54 38.0%	4 2.8%	142 100.0%
성별	남성	102 33.2%	64 20.8%	29 9.4%	107 34.9%	5 1.6%	307 100.0%
	여성	124 37.0%	85 25.4%	25 7.5%	99 29.6%	2 0.6%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38 27.0%	41 29.1%	18 12.8%	44 31.2%	0 0.0%	141 100.0%
	30대	48 35.8%	31 23.1%	8 6.0%	43 32.1%	4 3.0%	134 100.0%
	40대	39 32.0%	20 16.4%	9 7.4%	51 41.8%	3 2.5%	122 100.0%
	50대	58 43.6%	31 23.3%	10 7.5%	34 25.6%	0 0.0%	133 100.0%
	60대 이상	43 38.4%	26 23.2%	9 8.0%	34 30.4%	0 0.0%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38 40.4%	26 27.7%	9 9.6%	21 22.3%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157 35.8%	90 20.5%	34 7.7%	152 34.6%	6 1.4%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31 28.4%	33 30.3%	11 10.1%	33 30.3%	1 0.9%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23 35.4%	17 26.2%	10 15.4%	14 21.5%	1 1.5%	65 100.0%
	201~400만원	77 35.2%	53 24.2%	13 5.9%	73 33.3%	3 1.4%	219 100.0%
	401~600만원	67 37.4%	38 21.2%	15 8.4%	56 31.3%	3 1.7%	179 100.0%
	601만원 이상	59 33.0%	41 22.9%	16 8.9%	63 35.2%	0 0.0%	179 100.0%
직업	자영업	9 23.1%	11 28.2%	4 10.3%	14 35.9%	1 2.6%	39 100.0%
	블루칼라	33 36.7%	22 24.4%	11 12.2%	24 26.7%	0 0.0%	90 100.0%
	화이트칼라	120 35.7%	78 23.2%	23 6.8%	110 32.7%	5 1.5%	336 100.0%
	주부	38 39.6%	20 20.8%	6 6.3%	31 32.3%	1 1.0%	96 100.0%
	학생	7 17.9%	11 28.2%	6 15.4%	15 38.5%	0 0.0%	39 100.0%
	무직/기타	19 45.2%	7 16.7%	4 9.5%	12 28.6%	0 0.0%	42 100.0%

PART

IV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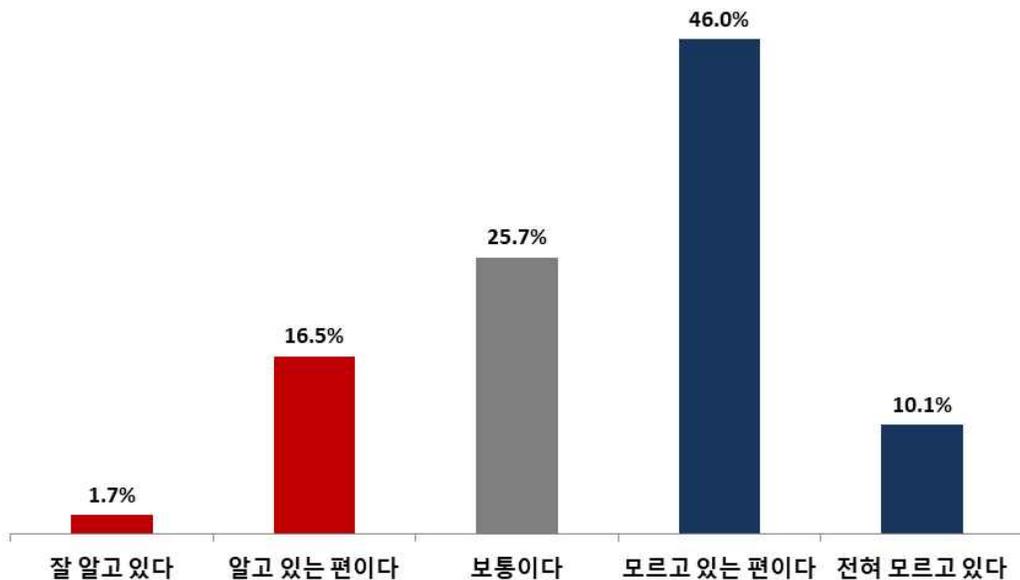
1.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2.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
3.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4.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
5.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

1.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의회가 여러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17명(18.2%), ‘모르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360명(56.1%), ‘보통’ 응답은 165명(25.7%)으로 나타남
 - 잘 알고 있다(1.7%)와 알고 있는 편이다(16.5%)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43.9%로 나타남
-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2.54점임

【 그림 IV-1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에 대한 전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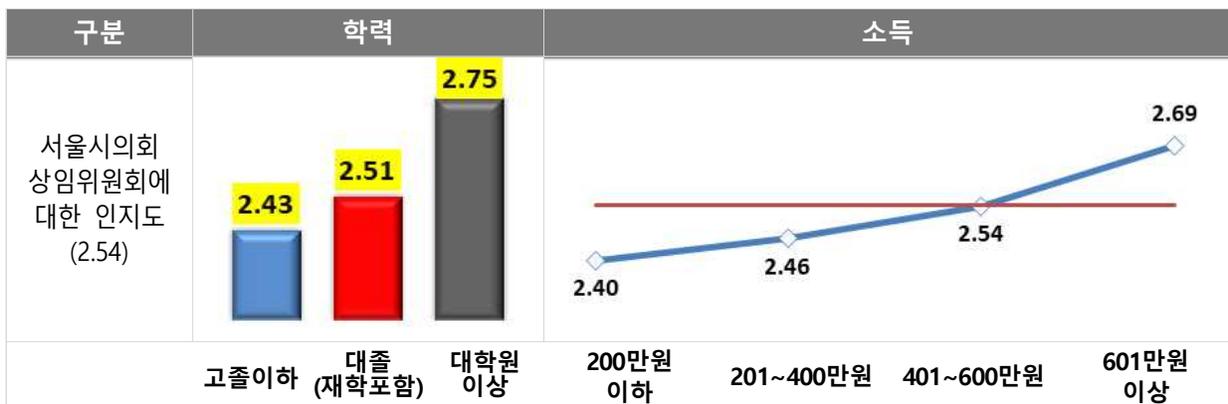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2.57점)가 여성 응답자(2.50점)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30

대 응답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도심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자영업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표 IV-1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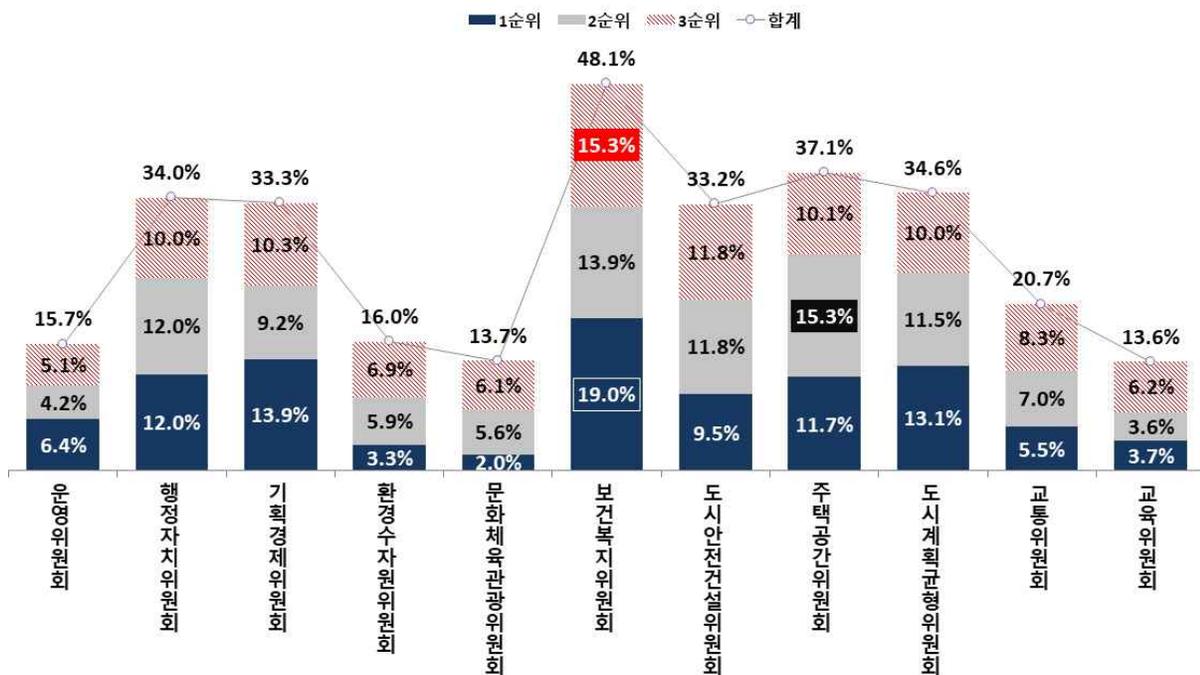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모르고 있는 편이다	모르고 있다	전체	긍정변	부정변
전체		11 1.7%	106 16.5%	165 25.7%	295 46.0%	65 10.1%	642 100.0%	117 18.2%	360 56.1%
구역	도심권	2 6.3%	7 21.9%	6 18.8%	13 40.6%	4 12.5%	32 100.0%	9 28.1%	17 53.1%
	동북권	1 0.5%	29 15.0%	57 29.5%	89 46.1%	17 8.8%	193 100.0%	30 15.5%	106 54.9%
	서북권	1 1.4%	15 20.3%	20 27.0%	33 44.6%	5 6.8%	74 100.0%	16 21.6%	38 51.4%
	서남권	3 1.5%	35 17.4%	47 23.4%	94 46.8%	22 10.9%	201 100.0%	38 18.9%	116 57.7%
	동남권	4 2.8%	20 14.1%	35 24.6%	66 46.5%	17 12.0%	142 100.0%	24 16.9%	83 58.5%
성별	남성	6 2.0%	47 15.3%	91 29.6%	136 44.3%	27 8.8%	307 100.0%	53 17.3%	163 53.1%
	여성	5 1.5%	59 17.6%	74 22.1%	159 47.5%	38 11.3%	335 100.0%	64 19.1%	197 58.8%
연령	20대 이하	4 2.8%	28 19.9%	32 22.7%	70 49.6%	7 5.0%	141 100.0%	32 22.7%	77 54.6%
	30대	1 0.7%	8 6.0%	35 26.1%	60 44.8%	30 22.4%	134 100.0%	9 6.7%	90 67.2%
	40대	2 1.6%	18 14.8%	32 26.2%	55 45.1%	15 12.3%	122 100.0%	20 16.4%	70 57.4%
	50대	1 0.8%	30 22.6%	33 24.8%	61 45.9%	8 6.0%	133 100.0%	31 23.3%	69 51.9%
	60대 이상	3 2.7%	22 19.6%	33 29.5%	49 43.8%	5 4.5%	112 100.0%	25 22.3%	54 48.2%
학력	고졸 이하	2 2.1%	9 9.6%	25 26.6%	49 52.1%	9 9.6%	94 100.0%	11 11.7%	58 61.7%
	대졸(재학포함)	4 0.9%	73 16.6%	109 24.8%	209 47.6%	44 10.0%	439 100.0%	77 17.5%	253 57.6%
	대학원 이상	5 4.6%	24 22.0%	31 28.4%	37 33.9%	12 11.0%	109 100.0%	29 26.6%	49 45.0%
소득	200만원 이하	0 0.0%	7 10.8%	17 26.2%	36 55.4%	5 7.7%	65 100.0%	7 10.8%	41 63.1%
	201~400만원	3 1.4%	35 16.0%	46 21.0%	110 50.2%	25 11.4%	219 100.0%	38 17.4%	135 61.6%
	401~600만원	3 1.7%	23 12.8%	60 33.5%	74 41.3%	19 10.6%	179 100.0%	26 14.5%	93 52.0%
	601만원 이상	5 2.8%	41 22.9%	42 23.5%	75 41.9%	16 8.9%	179 100.0%	46 25.7%	91 50.8%
직업	자영업	1 2.6%	6 15.4%	17 43.6%	11 28.2%	4 10.3%	39 100.0%	7 17.9%	15 38.5%
	블루칼라	0 0.0%	14 15.6%	23 25.6%	46 51.1%	7 7.8%	90 100.0%	14 15.6%	53 58.9%
	화이트칼라	6 1.8%	56 16.7%	83 24.7%	152 45.2%	39 11.6%	336 100.0%	62 18.5%	191 56.8%
	주부	3 3.1%	18 18.8%	26 27.1%	41 42.7%	8 8.3%	96 100.0%	21 21.9%	49 51.0%
	학생	1 2.6%	10 25.6%	5 12.8%	21 53.8%	2 5.1%	39 100.0%	11 28.2%	23 59.0%
	무직/기타	0 0.0%	2 4.8%	11 26.2%	24 57.1%	5 11.9%	42 100.0%	2 4.8%	29 69.0%

2.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민은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2순위로 주택공간위원회를, 3순위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응답함
-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순으로 응답함

【 그림 IV-2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표 IV-2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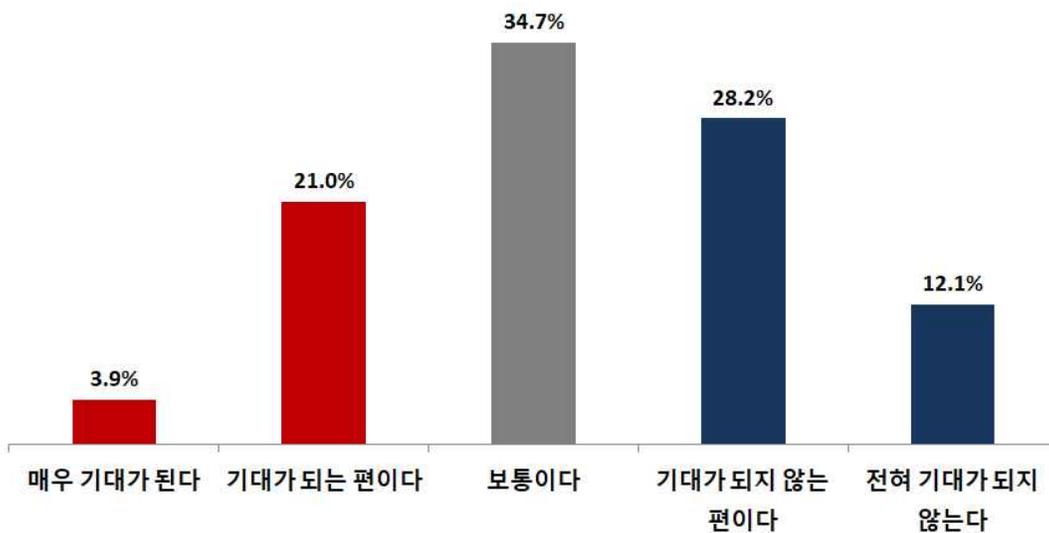
		운영 위원회	행정 자치 위원회	기획 경제 위원회	환경 수자원 위원회	문화체 육관광 위원회	보건 복지 위원회	도시안 전건설 위원회	주택 공간 위원회	도시계 획균형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교육 위원회	합계
전체		41 6.4%	77 12.0%	89 13.9%	21 3.3%	13 2.0%	122 19.0%	61 9.5%	75 11.7%	84 13.1%	35 5.5%	24 3.7%	642 100.0%
권역	도심권	0 0.0%	6 18.8%	2 6.3%	1 3.1%	0 0.0%	14 43.8%	2 6.3%	4 12.5%	2 6.3%	0 0.0%	1 3.1%	32 100.0%
	동북권	11 5.7%	29 15.0%	26 13.5%	8 4.1%	8 4.1%	34 17.6%	14 7.3%	21 10.9%	24 12.4%	12 6.2%	6 3.1%	193 100.0%
	서북권	7 9.5%	9 12.2%	11 14.9%	3 4.1%	0 0.0%	10 13.5%	6 8.1%	14 18.9%	5 6.8%	5 6.8%	4 5.4%	74 100.0%
	서남권	14 7.0%	21 10.4%	36 17.9%	6 3.0%	3 1.5%	37 18.4%	17 8.5%	21 10.4%	25 12.4%	15 7.5%	6 3.0%	201 100.0%
	동남권	9 6.3%	12 8.5%	14 9.9%	3 2.1%	2 1.4%	27 19.0%	22 15.5%	15 10.6%	28 19.7%	3 2.1%	7 4.9%	142 100.0%
성별	남성	18 5.9%	35 11.4%	44 14.3%	6 2.0%	4 1.3%	50 16.3%	28 9.1%	45 14.7%	45 14.7%	20 6.5%	12 3.9%	307 100.0%
	여성	23 6.9%	42 12.5%	45 13.4%	15 4.5%	9 2.7%	72 21.5%	33 9.9%	30 9.0%	39 11.6%	15 4.5%	12 3.6%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11 7.8%	21 14.9%	27 19.1%	1 0.7%	3 2.1%	27 19.1%	12 8.5%	13 9.2%	12 8.5%	10 7.1%	4 2.8%	141 100.0%
	30대	8 6.0%	13 9.7%	17 12.7%	4 3.0%	0 0.0%	19 14.2%	13 9.7%	20 14.9%	21 15.7%	14 10.4%	5 3.7%	134 100.0%
	40대	3 2.5%	13 10.7%	13 10.7%	2 1.6%	1 0.8%	25 20.5%	14 11.5%	13 10.7%	26 21.3%	6 4.9%	6 4.9%	122 100.0%
	50대	9 6.8%	15 11.3%	20 15.0%	4 3.0%	4 3.0%	26 19.5%	10 7.5%	23 17.3%	13 9.8%	3 2.3%	6 4.5%	133 100.0%
	60대 이상	10 8.9%	15 13.4%	12 10.7%	10 8.9%	5 4.5%	25 22.3%	12 10.7%	6 5.4%	12 10.7%	2 1.8%	3 2.7%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6 6.4%	12 12.8%	13 13.8%	2 2.1%	1 1.1%	25 26.6%	4 4.3%	15 16.0%	8 8.5%	5 5.3%	3 3.2%	94 100.0%
	대졸 (재학포함)	22 5.0%	51 11.6%	62 14.1%	12 2.7%	11 2.5%	80 18.2%	51 11.6%	54 12.3%	57 13.0%	19 4.3%	20 4.6%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3 11.9%	14 12.8%	14 12.8%	7 6.4%	1 0.9%	17 15.6%	6 5.5%	6 5.5%	19 17.4%	11 10.1%	1 0.9%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4 6.2%	15 23.1%	8 12.3%	2 3.1%	0 0.0%	18 27.7%	6 9.2%	4 6.2%	3 4.6%	2 3.1%	3 4.6%	65 100.0%
	201~400만원	15 6.8%	22 10.0%	28 12.8%	7 3.2%	8 3.7%	44 20.1%	17 7.8%	30 13.7%	27 12.3%	10 4.6%	11 5.0%	219 100.0%
	401~600만원	11 6.1%	21 11.7%	29 16.2%	6 3.4%	3 1.7%	31 17.3%	16 8.9%	25 14.0%	19 10.6%	11 6.1%	7 3.9%	179 100.0%
	601만원 이상	11 6.1%	19 10.6%	24 13.4%	6 3.4%	2 1.1%	29 16.2%	22 12.3%	16 8.9%	35 19.6%	12 6.7%	3 1.7%	179 100.0%
직업	자영업	1 2.6%	5 12.8%	6 15.4%	2 5.1%	2 5.1%	8 20.5%	2 5.1%	7 17.9%	5 12.8%	0 0.0%	1 2.6%	39 100.0%
	블루칼라	2 2.2%	13 14.4%	12 13.3%	1 1.1%	1 1.1%	19 21.1%	8 8.9%	10 11.1%	14 15.6%	8 8.9%	2 2.2%	90 100.0%
	화이트칼라	23 6.8%	45 13.4%	47 14.0%	9 2.7%	7 2.1%	63 18.8%	28 8.3%	38 11.3%	49 14.6%	15 4.5%	12 3.6%	336 100.0%
	주부	8 8.3%	7 7.3%	12 12.5%	5 5.2%	3 3.1%	18 18.8%	15 15.6%	8 8.3%	12 12.5%	4 4.2%	4 4.2%	96 100.0%
	학생	2 5.1%	3 7.7%	7 17.9%	1 2.6%	0 0.0%	9 23.1%	3 7.7%	6 15.4%	2 5.1%	2 5.1%	4 10.3%	39 100.0%
	무직/기타	5 11.9%	4 9.5%	5 11.9%	3 7.1%	0 0.0%	5 11.9%	5 11.9%	6 14.3%	2 4.8%	6 14.3%	1 2.4%	42 100.0%

3.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서 ‘기대가 된다’는 긍정 응답은 160명(24.9%),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은 259명(40.3%), ‘보통’ 응답은 223명(34.7%)으로 나타남
 - 매우 기대가 된다(3.9%)와 기대가 되는 편이다(21.0%)에 ‘보통’을 포함한 우호적인 응답 비율은 59.9%로 나타남
-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2.76점임

【 그림 IV-3 】 서울시의회 기대감에 대한 전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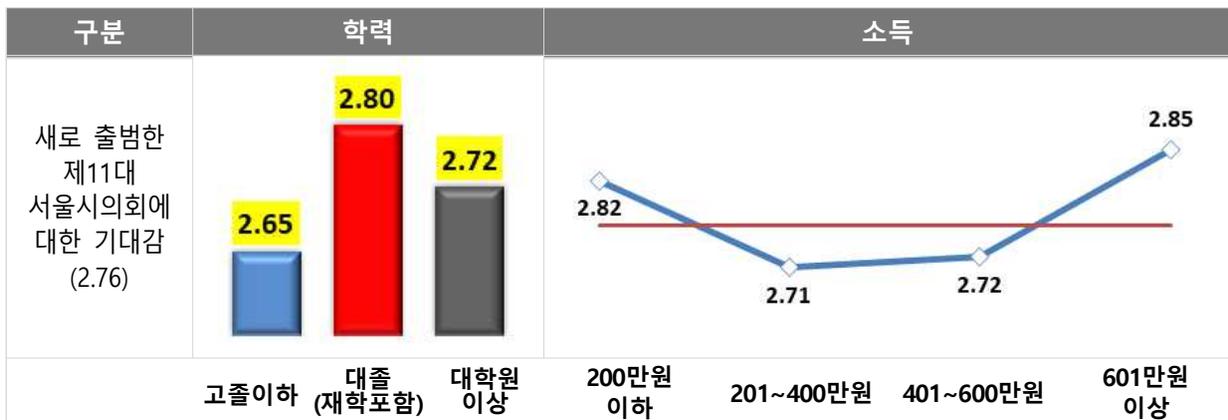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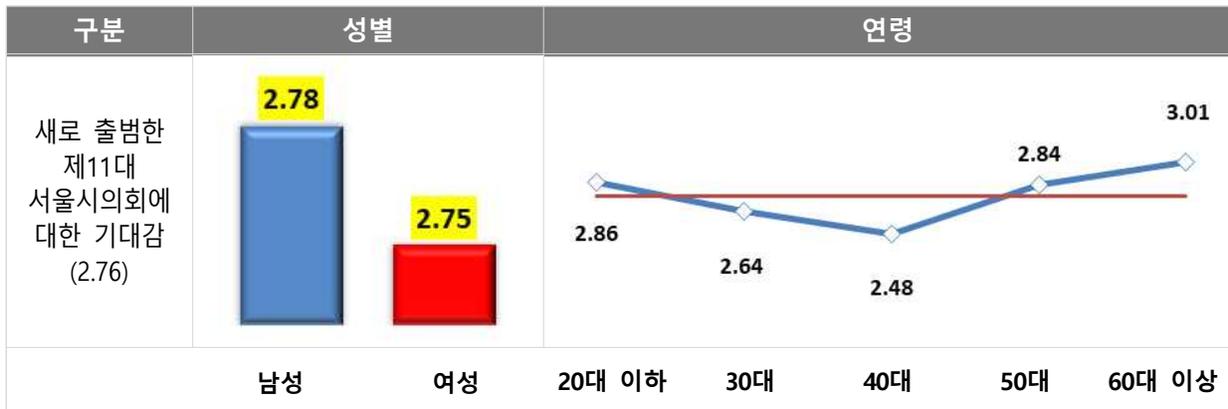


2)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남성 응답자(2.78점)가 여성 응답자(2.75점)에 비해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남

- 또한 대졸인 응답자, 월평균소득 600만원 초과인 응답자, 서남권에 거주하는 응답자, 자영업자들의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높음



【 표 IV-3 】 서울시의회 기대감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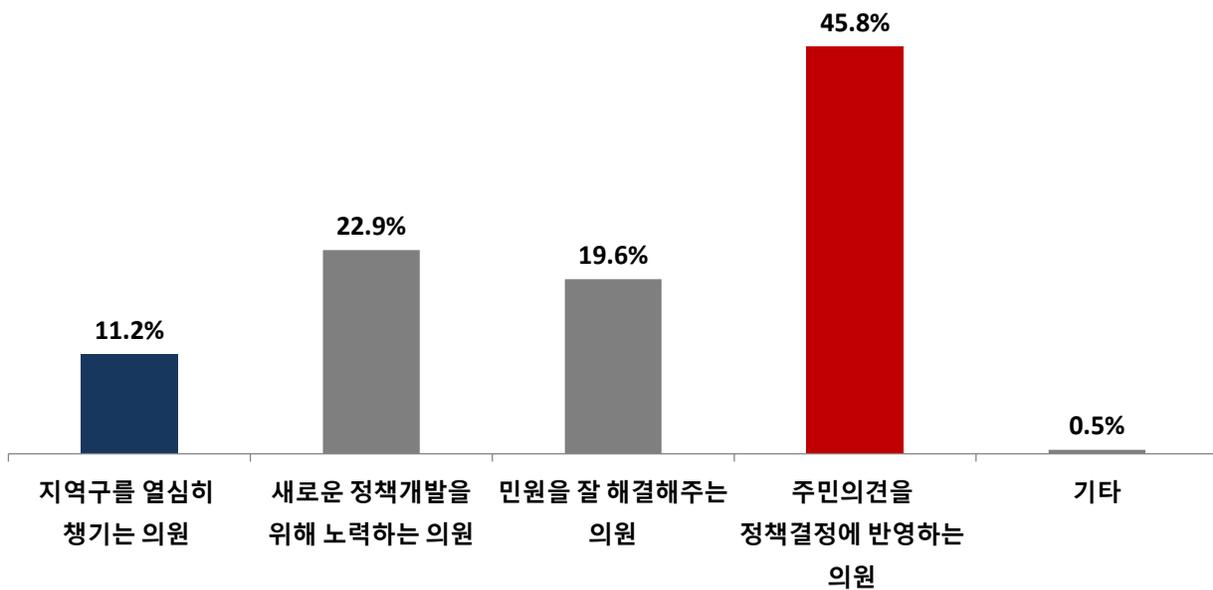
		매우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기대가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전체	긍정 집단	부정 집단
전체		25 3.9%	135 21.0%	223 34.7%	181 28.2%	78 12.1%	642 100.0%	160 24.9%	259 40.3%
권역	도심권	0 0.0%	5 15.6%	11 34.4%	9 28.1%	7 21.9%	32 100.0%	5 15.6%	16 50.0%
	동북권	7 3.6%	46 23.8%	64 33.2%	55 28.5%	21 10.9%	193 100.0%	53 27.5%	76 39.4%
	서북권	0 0.0%	13 17.6%	30 40.5%	21 28.4%	10 13.5%	74 100.0%	13 17.6%	31 41.9%
	서남권	15 7.5%	31 15.4%	77 38.3%	61 30.3%	17 8.5%	201 100.0%	46 22.9%	78 38.8%
	동남권	3 2.1%	40 28.2%	41 28.9%	35 24.6%	23 16.2%	142 100.0%	43 30.3%	58 40.8%
성별	남성	16 5.2%	70 22.8%	97 31.6%	78 25.4%	46 15.0%	307 100.0%	86 28.0%	124 40.4%
	여성	9 2.7%	65 19.4%	126 37.6%	103 30.7%	32 9.6%	335 100.0%	74 22.1%	135 40.3%
연령	20대 이하	9 6.4%	25 17.7%	56 39.7%	39 27.7%	12 8.5%	141 100.0%	34 24.1%	51 36.2%
	30대	2 1.5%	25 18.7%	46 34.3%	45 33.6%	16 11.9%	134 100.0%	27 20.1%	61 45.5%
	40대	1 0.8%	18 14.8%	39 32.0%	44 36.1%	20 16.4%	122 100.0%	19 15.6%	64 52.5%
	50대	7 5.3%	30 22.6%	46 34.6%	35 26.3%	15 11.3%	133 100.0%	37 27.8%	50 37.6%
	60대 이상	6 5.4%	37 33.0%	36 32.1%	18 16.1%	15 13.4%	112 100.0%	43 38.4%	33 29.5%
학력	고졸 이하	1 1.1%	16 17.0%	39 41.5%	25 26.6%	13 13.8%	94 100.0%	17 18.1%	38 40.4%
	대졸(재학포함)	19 4.3%	92 21.0%	156 35.5%	125 28.5%	47 10.7%	439 100.0%	111 25.3%	172 39.2%
	대학원 이상	5 4.6%	27 24.8%	28 25.7%	31 28.4%	18 16.5%	109 100.0%	32 29.4%	49 45.0%
소득	200만원 이하	1 1.5%	10 15.4%	37 56.9%	10 15.4%	7 10.8%	65 100.0%	11 16.9%	17 26.2%
	201~400만원	7 3.2%	46 21.0%	69 31.5%	70 32.0%	27 12.3%	219 100.0%	53 24.2%	97 44.3%
	401~600만원	9 5.0%	37 20.7%	51 28.5%	59 33.0%	23 12.8%	179 100.0%	46 25.7%	82 45.8%
	601만원 이상	8 4.5%	42 23.5%	66 36.9%	42 23.5%	21 11.7%	179 100.0%	50 27.9%	63 35.2%
직업	자영업	2 5.1%	15 38.5%	10 25.6%	7 17.9%	5 12.8%	39 100.0%	17 43.6%	12 30.8%
	블루칼라	2 2.2%	14 15.6%	42 46.7%	18 20.0%	14 15.6%	90 100.0%	16 17.8%	32 35.6%
	화이트칼라	14 4.2%	66 19.6%	101 30.1%	112 33.3%	43 12.8%	336 100.0%	80 23.8%	155 46.1%
	주부	7 7.3%	21 21.9%	35 36.5%	25 26.0%	8 8.3%	96 100.0%	28 29.2%	33 34.4%
	학생	0 0.0%	9 23.1%	16 41.0%	9 23.1%	5 12.8%	39 100.0%	9 23.1%	14 35.9%
	무직/기타	0 0.0%	10 23.8%	19 45.2%	10 23.8%	3 7.1%	42 100.0%	10 23.8%	13 31.0%

4.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 어떤 의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민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의원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5.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지역구를 열심히 챙기는 의원은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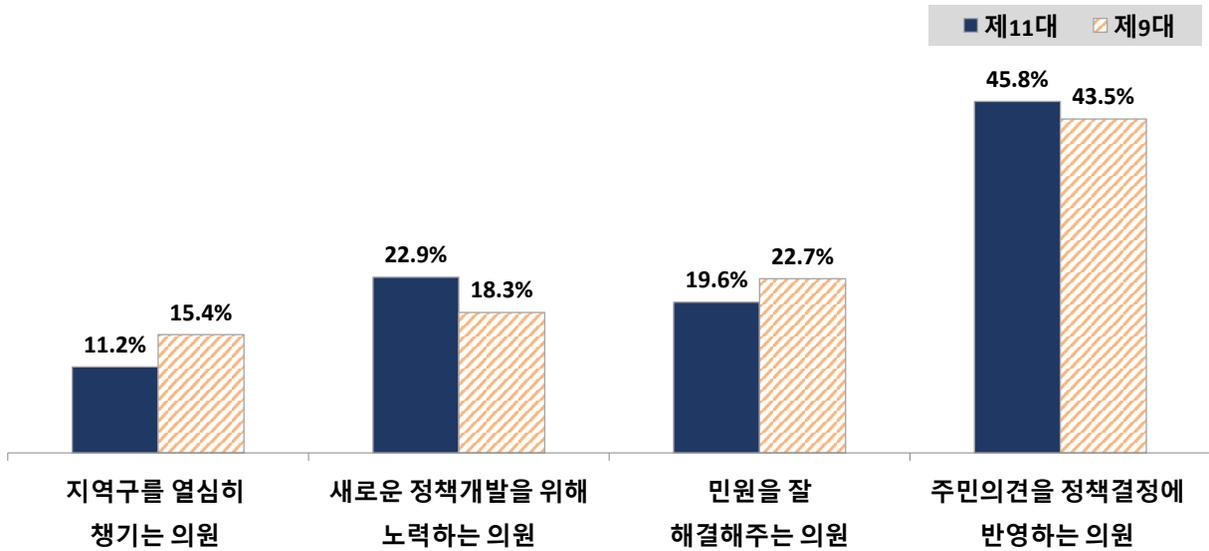
【 그림 IV-4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전체 인식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지역구를 잘 챙기는 의원과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의원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주민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의원에 대한 응답은 과거에 비해 증가함

【 그림 IV-5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주민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의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59.4%), 50대(57.9%), 대학원 재학 이상(50.5%),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집단(56.4%), 주부(5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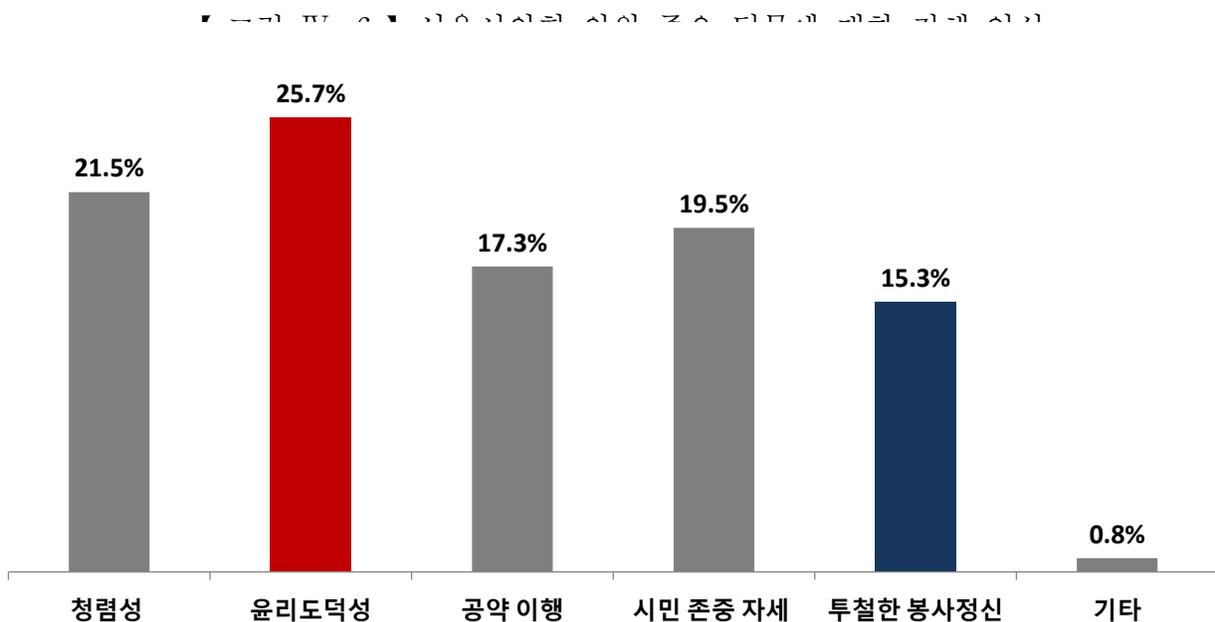
【 표 IV-4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지역구를 열심히 챙기는 의원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의원	주민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의원	기타	합계
전체		72 11.2%	147 22.9%	126 19.6%	294 45.8%	3 0.5%	642 100.0%
권역	도심권	1 3.1%	7 21.9%	5 15.6%	19 59.4%	0 0.0%	32 100.0%
	동북권	27 14.0%	51 26.4%	31 16.1%	83 43.0%	1 0.5%	193 100.0%
	서북권	3 4.1%	17 23.0%	13 17.6%	41 55.4%	0 0.0%	74 100.0%
	서남권	24 11.9%	43 21.4%	43 21.4%	91 45.3%	0 0.0%	201 100.0%
	동남권	17 12.0%	29 20.4%	34 23.9%	60 42.3%	2 1.4%	142 100.0%
성별	남성	26 8.5%	82 26.7%	57 18.6%	140 45.6%	2 0.7%	307 100.0%
	여성	46 13.7%	65 19.4%	69 20.6%	154 46.0%	1 0.3%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25 17.7%	32 22.7%	35 24.8%	49 34.8%	0 0.0%	141 100.0%
	30대	20 14.9%	28 20.9%	38 28.4%	47 35.1%	1 0.7%	134 100.0%
	40대	13 10.7%	27 22.1%	20 16.4%	61 50.0%	1 0.8%	122 100.0%
	50대	11 8.3%	24 18.0%	21 15.8%	77 57.9%	0 0.0%	133 100.0%
	60대 이상	3 2.7%	36 32.1%	12 10.7%	60 53.6%	1 0.9%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9 9.6%	23 24.5%	17 18.1%	45 47.9%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54 12.3%	96 21.9%	92 21.0%	194 44.2%	3 0.7%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9 8.3%	28 25.7%	17 15.6%	55 50.5%	0 0.0%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6 9.2%	6 9.2%	19 29.2%	34 52.3%	0 0.0%	65 100.0%
	201~400만원	17 7.8%	63 28.8%	51 23.3%	87 39.7%	1 0.5%	219 100.0%
	401~600만원	21 11.7%	31 17.3%	26 14.5%	101 56.4%	0 0.0%	179 100.0%
	601만원 이상	28 15.6%	47 26.3%	30 16.8%	72 40.2%	2 1.1%	179 100.0%
직업	자영업	0 0.0%	12 30.8%	8 20.5%	18 46.2%	1 2.6%	39 100.0%
	블루칼라	11 12.2%	20 22.2%	17 18.9%	42 46.7%	0 0.0%	90 100.0%
	화이트칼라	40 11.9%	73 21.7%	73 21.7%	148 44.0%	2 0.6%	336 100.0%
	주부	3 3.1%	24 25.0%	18 18.8%	51 53.1%	0 0.0%	96 100.0%
	학생	12 30.8%	11 28.2%	4 10.3%	12 30.8%	0 0.0%	39 100.0%
	무직/기타	6 14.3%	7 16.7%	6 14.3%	23 54.8%	0 0.0%	42 100.0%

5.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

1) 서울시민 전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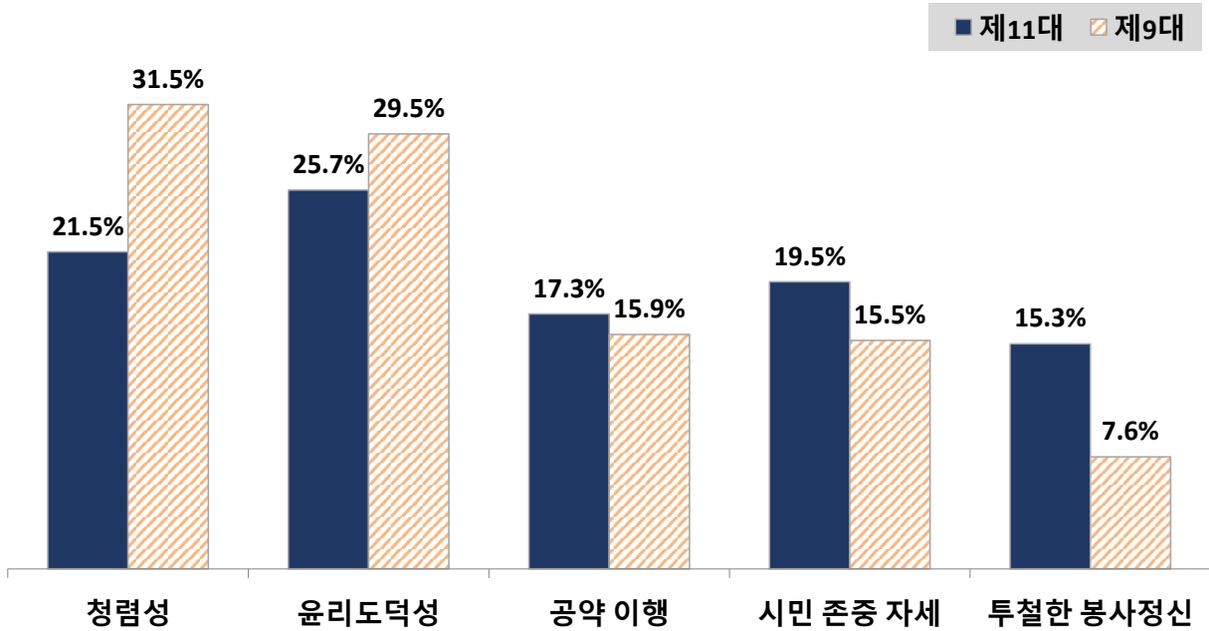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윤리도덕성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5.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투철한 봉사정신은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서울시민 인식 변화

- 서울시의회 의원의 중요 덕목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청렴성, 윤리도덕성에 대한 응답은 제9대에 비해 감소한 반면, 공약 이행, 시민존중 자세, 투철한 봉사정신에 대한 응답은 과거에 비해 증가함

【 그림 IV-7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에 대한 인식 변화



3) 서울시민 집단별 인식 차이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윤리도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심권(37.5%), 여성(28.4%), 60대 이상(31.3%), 대학원 재학 이상(30.3%),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초과인 집단(27.9%), 주부(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표 IV-5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

		청렴성	윤리도덕성	공약 이행	시민 존중 자세	투철한 봉사정신	기타	합계
전체		138 21.5%	165 25.7%	111 17.3%	125 19.5%	98 15.3%	5 0.8%	642 100.0%
권역	도심권	6 18.8%	12 37.5%	5 15.6%	5 15.6%	4 12.5%	0 0.0%	32 100.0%
	동북권	39 20.2%	45 23.3%	35 18.1%	33 17.1%	38 19.7%	3 1.6%	193 100.0%
	서북권	19 25.7%	20 27.0%	11 14.9%	7 9.5%	17 23.0%	0 0.0%	74 100.0%
	서남권	49 24.4%	48 23.9%	33 16.4%	48 23.9%	23 11.4%	0 0.0%	201 100.0%
	동남권	25 17.6%	40 28.2%	27 19.0%	32 22.5%	16 11.3%	2 1.4%	142 100.0%
성별	남성	65 21.2%	70 22.8%	46 15.0%	68 22.1%	55 17.9%	3 1.0%	307 100.0%
	여성	73 21.8%	95 28.4%	65 19.4%	57 17.0%	43 12.8%	2 0.6%	335 100.0%
연령	20대 이하	33 23.4%	31 22.0%	33 23.4%	36 25.5%	8 5.7%	0 0.0%	141 100.0%
	30대	35 26.1%	29 21.6%	30 22.4%	26 19.4%	12 9.0%	2 1.5%	134 100.0%
	40대	20 16.4%	36 29.5%	19 15.6%	27 22.1%	17 13.9%	3 2.5%	122 100.0%
	50대	31 23.3%	34 25.6%	23 17.3%	21 15.8%	24 18.0%	0 0.0%	133 100.0%
	60대 이상	19 17.0%	35 31.3%	6 5.4%	15 13.4%	37 33.0%	0 0.0%	11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 22.3%	20 21.3%	16 17.0%	19 20.2%	18 19.1%	0 0.0%	94 100.0%
	대졸 (재학포함)	105 23.9%	112 25.5%	78 17.8%	85 19.4%	56 12.8%	3 0.7%	439 100.0%
	대학원 재학이상	12 11.0%	33 30.3%	17 15.6%	21 19.3%	24 22.0%	2 1.8%	109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16 24.6%	15 23.1%	5 7.7%	15 23.1%	14 21.5%	0 0.0%	65 100.0%
	201~400만원	55 25.1%	55 25.1%	43 19.6%	37 16.9%	27 12.3%	2 0.9%	219 100.0%
	401~600만원	35 19.6%	45 25.1%	29 16.2%	44 24.6%	24 13.4%	2 1.1%	179 100.0%
	601만원 이상	32 17.9%	50 27.9%	34 19.0%	29 16.2%	33 18.4%	1 0.6%	179 100.0%
직업	자영업	11 28.2%	8 20.5%	2 5.1%	5 12.8%	12 30.8%	1 2.6%	39 100.0%
	블루칼라	19 21.1%	21 23.3%	16 17.8%	18 20.0%	16 17.8%	0 0.0%	90 100.0%
	화이트칼라	63 18.8%	84 25.0%	72 21.4%	67 19.9%	47 14.0%	3 0.9%	336 100.0%
	주부	22 22.9%	32 33.3%	15 15.6%	10 10.4%	17 17.7%	0 0.0%	96 100.0%
	학생	13 33.3%	7 17.9%	6 15.4%	11 28.2%	2 5.1%	0 0.0%	39 100.0%
	무직/기타	10 23.8%	13 31.0%	0 0.0%	14 33.3%	4 9.5%	1 2.4%	42 100.0%

PART

V

주요 결과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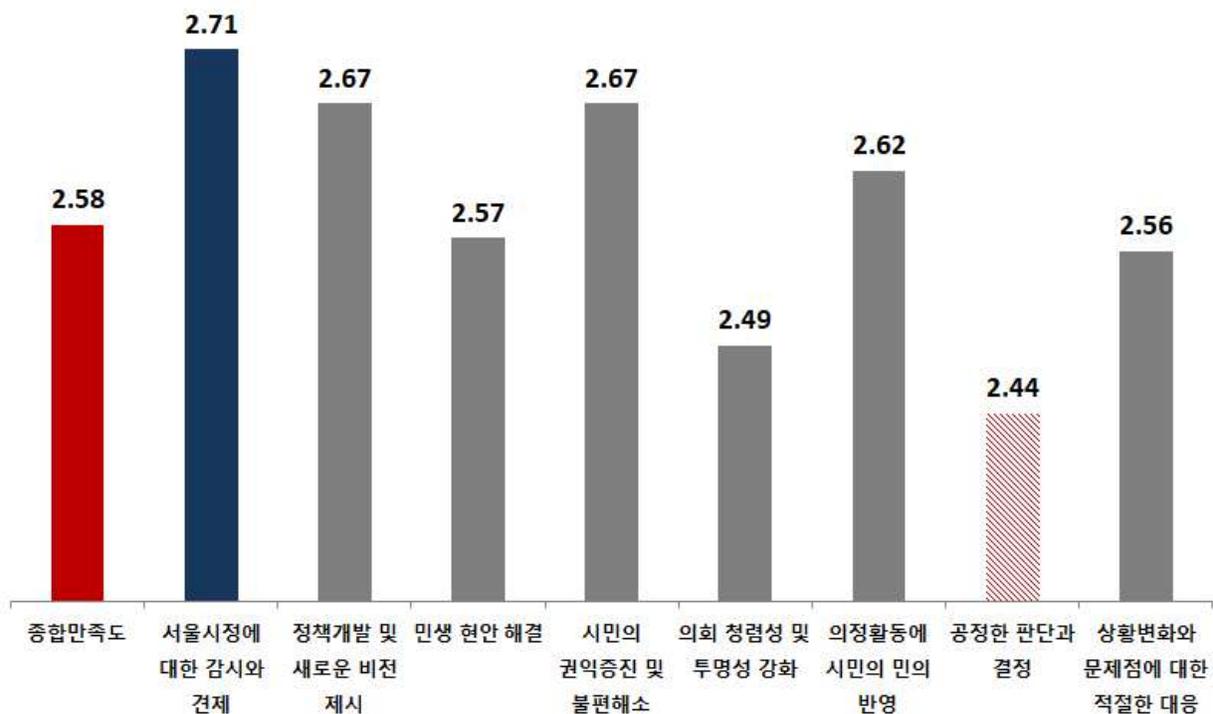
1. 주요 결과 요약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1)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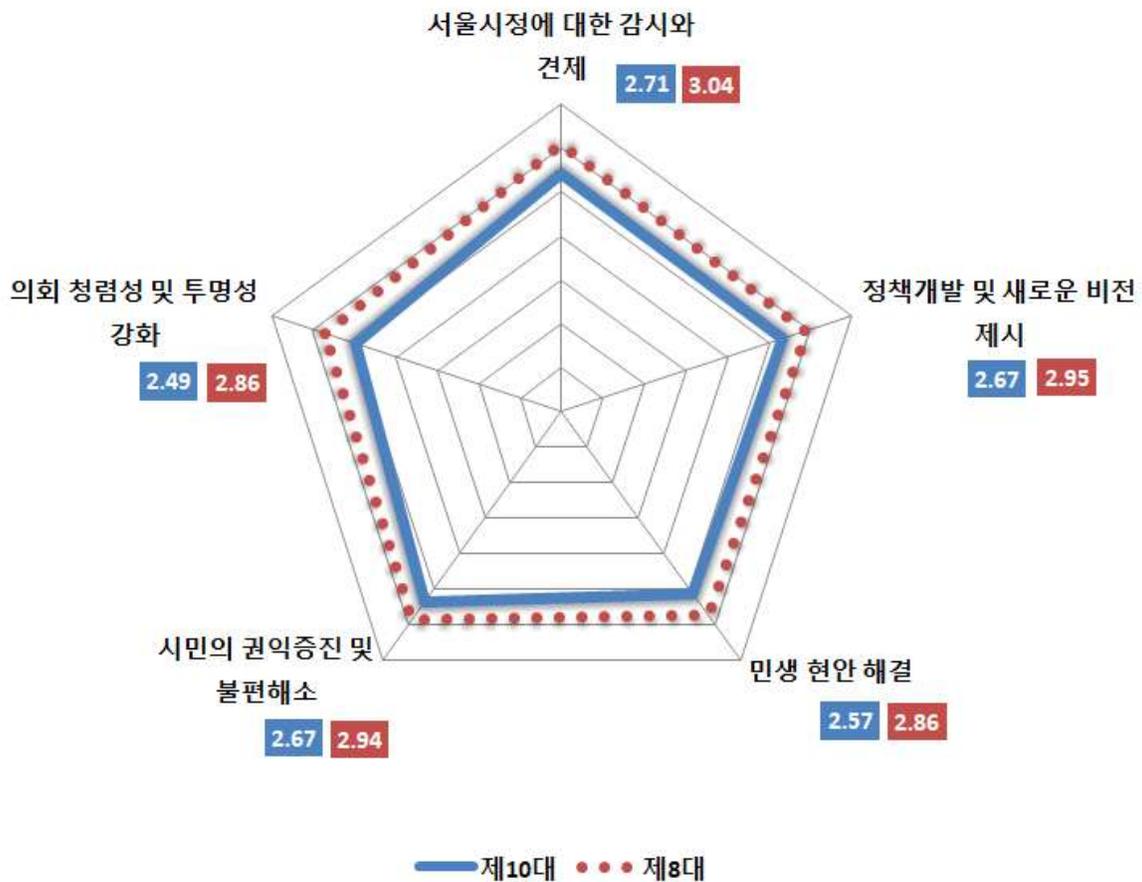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2.58점으로 나타남
 -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항목이 2.71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항목도 2.67점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 반면 ‘공정한 판단과 결정’ 항목은 2.44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항목도 2.49점으로 상대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V-1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평가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항목별 평가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2015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와 같이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증감 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항목별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항목에 대한 응답이 2.86점에서 2.49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항목의 감소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V-2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인식 변화



2)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 주요 결과

■ 제11대 의정활동 역점 추진 분야

문. 귀하께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경제활성화 > 안전한 사회 구축 > 주거.생활환경 개선 > 사회복지 확충 > 지역간 격차 해소 > 교통환경 개선 > 행정서비스 향상 > 교육여건 개선 > 문화예술시설·서비스 확충

■ 제11대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방안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역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민생 현안 해결 >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 해소 > 서울시정 감시와 견제 > 정책 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 의회 내 자정기능 강화

■ 효과적인 의정역량 제고 방안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 제공 > 외부전문가 의견의 적극적 수렴 >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의 회의출석률 제고 >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을 위한 보좌인력 확충

■ 의정정보 인지경로

문. 귀하께서는 평소 서울시의회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계십니까? 주로 접하시는 경로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인터넷 기사 > TV(케이블 포함)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신문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라디오

■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안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인터넷 제안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 > 서울시와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 공청회/토론회 개최 > 이해 당사자들과의 만남 확대

■ 의정활동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문. 귀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본회의 방청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적극적인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의사당 내 시민 이용 공간 확충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가 위와 같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모르고 있는 편이다(46.0%) > 보통이다(25.7%) > 알고 있는 편이다(16.5%) > 전혀 모르고 있다(10.1%) > 잘 알고 있다(1.7%)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요도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보건복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교통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 운영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위원회

■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

문. 귀하께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되십니까?

☞ 보통이다(34.7%) > 기대가 되지 않는 편이다(28.2%) > 기대가 되는 편이다(21.0%) >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12.1%) > 매우 기대가 된다(3.9%)

■ 서울시의회 의원 필요역량

문.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의원들을 가장 높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주민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의원 >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의원 > 지역구를 열심히 챙기는 의원

■ 서울시의회 의원 중요 덕목

문.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리도덕성 > 청렴성 > 시민 존중 자세 > 공약 이행 > 투철한 봉사정신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

1) 자치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형태는 인력과 예산 및 다양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 ‘강시장-약의회형’(strong mayor - weak council form)으로 분류됨(김순은 외 2022)
 - 이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방정치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재건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함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 시행됨
 -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제1조), 주민의 권리 확대(제17조)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제19조),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 및 주민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제21조) 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됨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제41조),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제103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 지방의원 겸직금지(제43조)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제11조)하고,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제28조)하여 자치권을 확대함
 -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제198조),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제105호), 경계조정 절차 신설(제6조) 등 지방행정 능률성 제고 방안이 마련됨
 -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방간 협력 의무를 신설(제164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도입(제186조)함.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제12조)이 마련됨
-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의원의 전문역량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정적인 부분도 지적됨
 -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대다수 지방의회는 충원목표수의 1/2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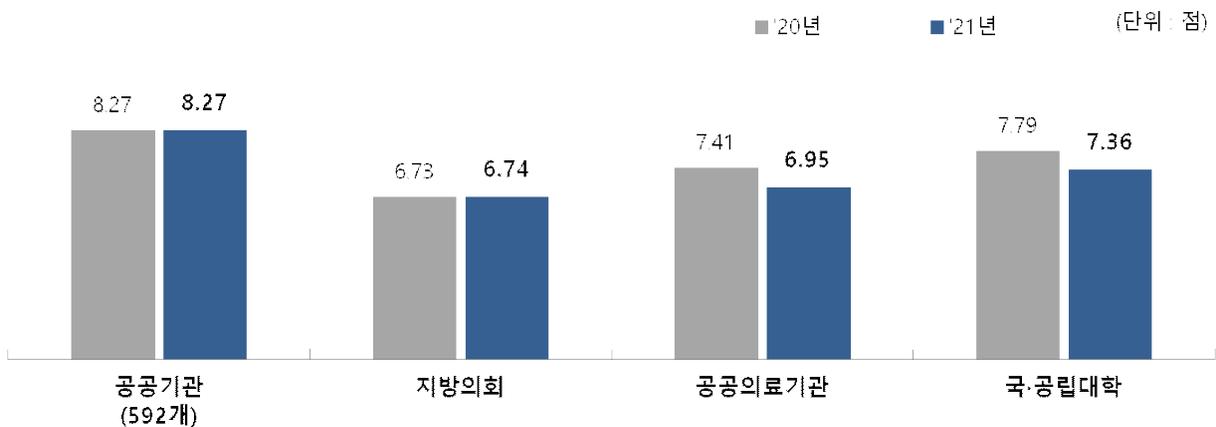
수준에서 충원하고 있음

- 그러나 사실상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도입이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실질적 도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의원이 정책지원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지원관과 의원의 이념 및 가치가 불일치할 수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안 유지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담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임
- 또한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지원기구를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 정책지원관의 제한된 업무영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보다 지방의회의원의 양질의 입법과 정책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증진 및 투명성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함
-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청렴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82개의 지방의회는 6.47점에 그쳤으며, 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8.27점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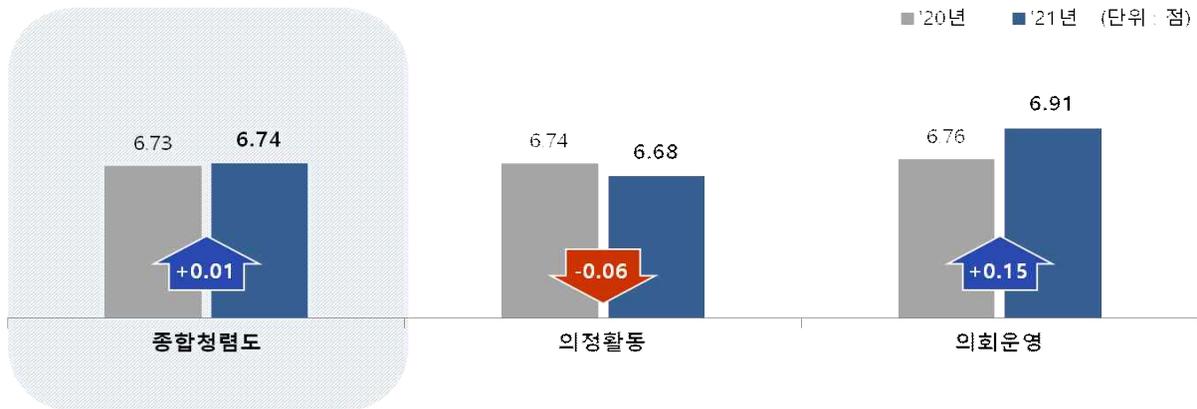
【 그림 V-3 】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2020~2021년)



* 주 : 청렴도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의회업무 담당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3만 19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통합해 산출되며,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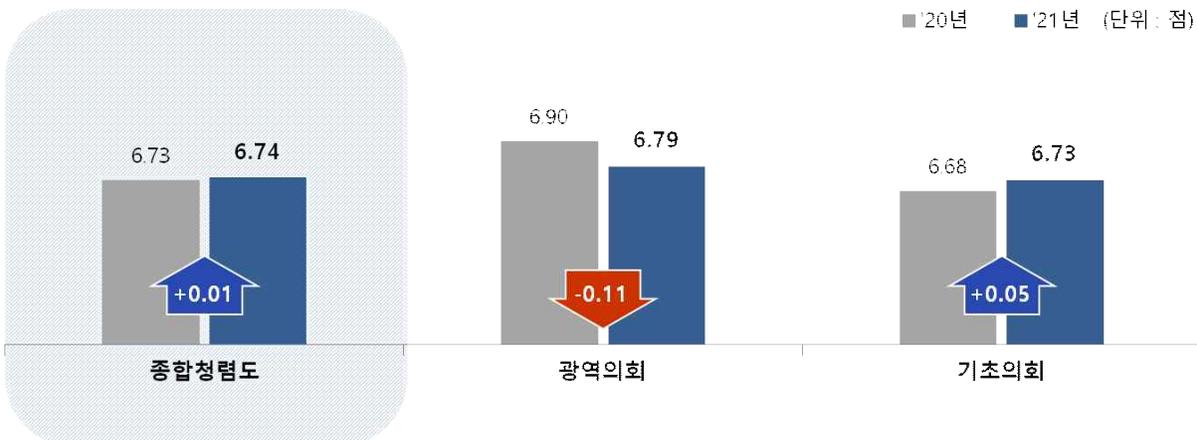
【 그림 V-4 】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청렴도 점수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광역의회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6.79점(-0.11점)으로 나타났고, 기초의회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73점(+0.05점)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5등급을 받는 광역시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유일함
 - 구체적으로는 의회운영 분야에서 4등급, 의정활동 분야에서 5등급으로 나타남

【 그림 V-5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 기초의회는 2020년과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시계열 비교에 한계가 있음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운영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됨
 -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조직 및 재무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반규정을 통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었고,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 추가적인 노력으로 의회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지속적인 윤리교육이 요구됨
 - 지방의회의원 연수원과 같은 기구를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내부에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
 -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외부기관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회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효율적 민의 수렴을 위한 참여·숙의 민주주의 모델의 구현

- 민주주의가 심화 단계에서 지방정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 주민발안제 등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면서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의 구축은 기술의 발전과도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들도 SNS를 통해 주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민의 수렴의 창구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촉발됨. 동일한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함
 - 이는 참여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주민참여의 확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미비했기 때문이기도 함
 -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결국 입안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왔기 때문임. 결국 참여 민주주의와 함께 숙의 민주주의 모델의 구현이 필요함

4) 정보 네트워크 기반 의회 시스템 구축

- 최근 행정부처와 국회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이것은 단지 기관의 업적에 대한 기록적 의미로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함
-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에 매우 느리게 반응함
 - 의안정보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각 의회마다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또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의원들이 정책생산 및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또한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도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담 조직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해야 함
 - 정보 네트워크 기반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의회 내에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생산이 가능함과 동시에 타 의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임
 - 해외 지방의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전반적인 시스템 확충이 필요함

PART

부록

설문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평가 및 제11대 의정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리로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수렴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p>1. 거주지역</p>	<p>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p> <p>① 도심권: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p> <p>② 동북권: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p> <p>③ 서북권: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p> <p>④ 서남권: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p> <p>⑤ 동남권: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p>
<p>2. 성별</p>	<p>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p> <p>① 남성 ② 여성</p>
<p>3. 연령</p>	<p>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p> <p>1) 18~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69세</p>

I.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항목별 전반적 평가

문1~문9.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끝나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제10대(2018년~2022년) 서울시의회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항	활동	매우 잘못했다	잘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한 편이다	매우 잘했다
1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①	②	③	④	⑤
2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①	②	③	④	⑤
3	민생 현안 해결	①	②	③	④	⑤
4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①	②	③	④	⑤
5	의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의정활동에 시민의 민의 반영	①	②	③	④	⑤
7	특정 이해관계자(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	①	②	③	④	⑤
8	상황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9	위 8가지의 평가항목들을 고려할 때,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위상 제고 방안

문10. 귀하께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교통환경 개선
- ② 교육여건 개선
- ③ 사회복지확충
- ④ 문화예술시설/서비스 확충
-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
- ⑥ 경제활성화
- ⑦ 지역간 격차해소
- ⑧ 안전한 사회 구축
- ⑨ 행정서비스 향상
- ⑩ 기타()

문11.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역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서울시정 감시와 견제
- ②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 제시
- ③ 민생 현안 해결
- ④ 시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
- ⑤ 의회 내 자정기능 강화
- ⑥ 기타()

문12.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①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원 출석률 제고
- ②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을 위한 보좌인력 확충
- ③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
- ④ 외부전문가 의견의 적극적 수렴
- ⑤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 제공
- ⑥ 기타()

Ⅲ. 의정활동 인지경로 및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 방법

**문13. 귀하께서는 평소 서울시의회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계십니까?
주로 접하시는 경로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TV(케이블 포함)
- ② 신문
- ③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④ 인터넷 기사
- ⑤ 라디오
- ⑥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⑦ 기타()

**문14.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청회/토론회 개최
- ②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
- ③ 이해 당사자들과의 만남 확대
- ④ 서울시와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 ⑤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⑥ 인터넷제안 등을 통한 의견수렴
- ⑦ 기타()

**문15. 귀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인 방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회의 방청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② 적극적인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 ③ 의사당 내 시민 이용 공간 확충
- ④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⑤ 기타()

V.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인지도 및 중점추진 과제

서울시의회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예산 및 조직 운용과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문제, 수돗물 불신문제, 상수도 관련분야의 현안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디자인서울정책 및 문화디자인 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빈민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와 병원, 보건, 위생, 식의약품 등 보건 분야, 그리고 여성, 아동, 청소년 등과 관련된 여성 및 가족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건설행정분야를 감시 감독,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계획 수립·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운영 및 택지·도시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는 교통정책 수립 및 조정,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교통기반시설 건설 운영 등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19. 귀하께서는 서울시의회가 위와 같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고 있는 편이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문20. 귀하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운영위원회
- ② 행정자치위원회
- ③ 기획경제위원회
- ④ 환경수자원위원회
- 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⑥ 보건복지위원회
- ⑦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⑧ 주택공간위원회
- 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⑩ 교통위원회
- ⑪ 교육위원회

문21. 귀하께서 서울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직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판매/서비스직 ③ 기능/숙련공 ④ 일반작업직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관리직 ⑦ 전문/자유직 ⑧ 가정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DQ2. 학력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재학생 포함) ④ 대학원 재학 이상
DQ3. 가구소득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⑦ 601만원 이상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